

태권도

TAEKWONDO

대한태권도협회 KTA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PECIAL REPORT I

『태권도』, 복간 1주년 맞이하다!

SPECIAL REPORT II

한국 체육 패러다임은 변화 중!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19 II

INTERVIEW

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TAEKWONDO & LIFE

지승원 목사

LEGENDARY PLAYER

여자 최초 세계 선수권 대회 3연패 정명숙

PLAYER OF THE MONTH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이다빈

VOL. 173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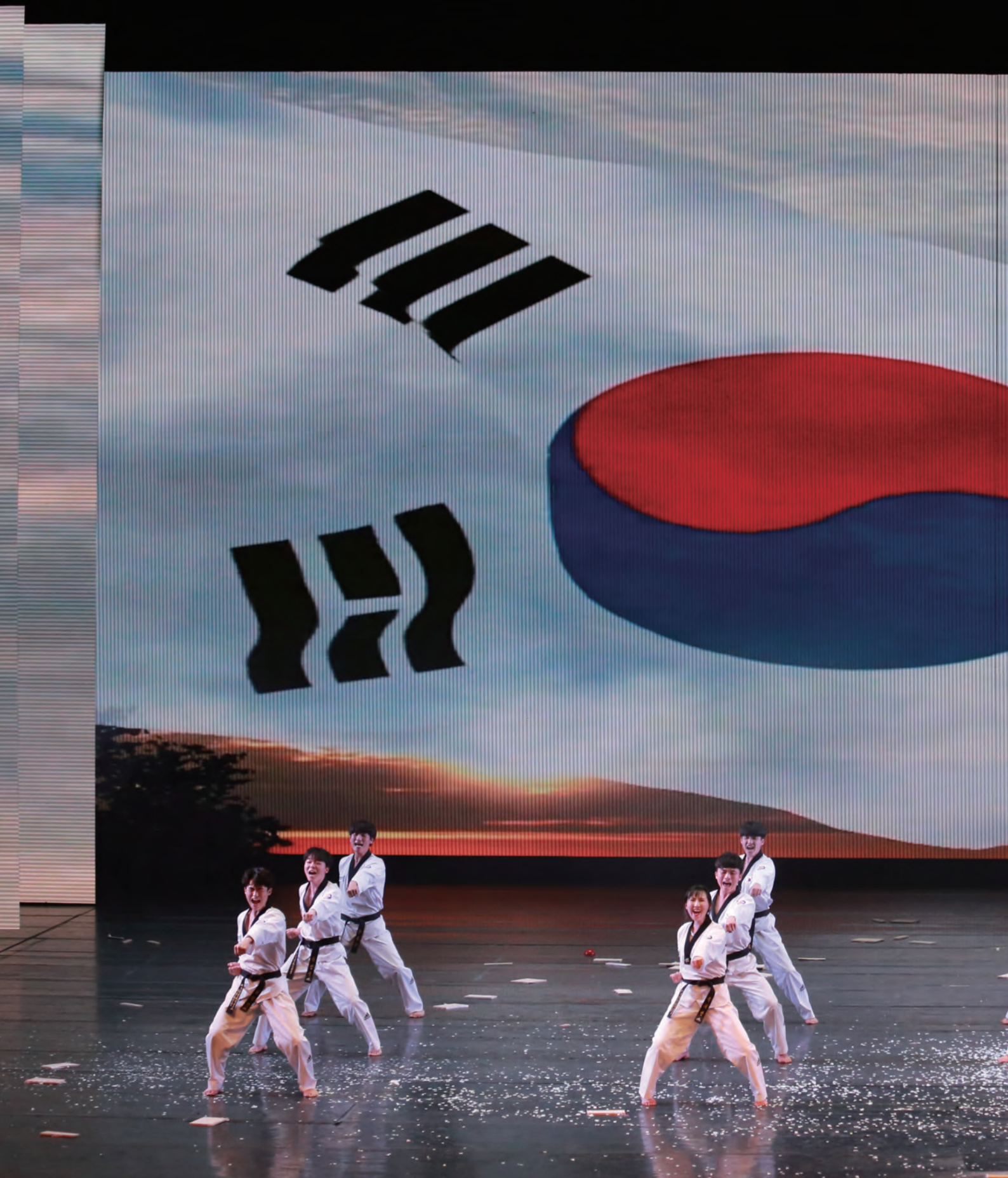
03 · 04



9 771738 481003
ISSN 1738-4818











이대훈(오른쪽·시계 방향), 이다빈, 인교돈

태권도
TAEKWONDO

VOL. 173 2019

03 · 04

SPECIAL REPORT I

『태권도』, 복간 1주년 맞이하다

- 014 다시 태어난 '생명의 4월'에
노래하는 지난날과 훗날
- 016 **복간 1주년 기념 설문 조사**
『태권도』, 공감대 이루며 추진력 얻어...
개혁 열정 더욱 불살라야
- 020 한 해 동안 밝아온 자취 속에서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 022 **창간호를 고이 간직해 온 최낙덕 사범**
48년의 오랜 세월을 초월해 오로지
『태권도』를 사랑하다

외부에서 바라본 『태권도』

- 024 ① 『태권도』가 종주국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의 자랑거리 되길
- 025 ② 복간 1주년 『태권도』,
단지 기록할 것인가 앞장설 것인가?
- 026 ③ 일선 지도자의 '의식 변화'
이끌어 내는 내용 많았으면

EDITOR'S LETTER

- 011 새로운 태권도 문화 개척은 종주국의 책무

PROLOGUE

- 012 악동의 봄에 태어난 『태권도』,
햇살·비·바람과 어우러져 영원하리라

PROPOSAL

- 027 KTA 교육 수강자에서 교육 강사가 되기까지

SPECIAL REPORT II

한국 체육 패러다임은 변화 중!

- 028 시대는 한국 체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원한다
- 030 한국 체육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034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제대로 가고 있는가?
- 036 여전히 시대 변화 읽지 못하는 체육계,
폭력을 대물림
- 038 '미투 운동', 태권도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NATIONAL TEAM

- 040 **2019년 한국 태권도를 대표할 그들 ① 지도자**
'종가'에 걸맞은 대풍을 꿈꾸며 씨앗 뿌려
- 044 **2019년 한국 태권도를 대표할 그들 ② 선수**
맨체스터 아레나에 휘몰아칠 '태극 전사'
16인의 출사표
- 048 창녕서 휘몰아친 태극마크 세대교체와 판도 변화

INTERVIEW

- 066 **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여성 태권도 발전과 진흥 이끌어 나갈
'매력 있는 당찬 리더'

ISSUE

- 068 오리무중 국기원, 그 정상화 과정과 해결책은?
- 070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글로벌
위상 강화 사업에 본격 투자

PHOTO ESSAY

- 072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한 나오시마(直島),
그곳에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이...
- 074 신이 빛은 희비쌍곡선에, 승패의 운명은 엇갈리고

PHOTO OF THE MONTH

- 076 "앗, 이럴 수가! 태극 7장이라나..."





062



086



098

태권도
TAEKWONDO

VOL. 173 2019

03 · 04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19 II

- 050 늘 깨어 있는 사범들, 밝은 앞날을 밝힌다
- 052 **KTA 지상 강좌 지도법 <2>**
태권도 기본기술 지도법 <2·끝>
- 056 **KTA 지상 강좌 경영법 <2>**
승품·단식(式을) 통한 승품·단의
가치 상승과 도장 성장

2019년도 KTA 강사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직무 교육

- 060 재교육의 장에서 도장 활성화의 길을 구하다
- 061 “새 물결과 바람으로 태권도를 으뜸의
문화유산으로 남기자”
- 062 **도장 탐방 <7> 안산 호동 태권도장(체육관)**
교육의 질로 승부, 전국 제일로 우뚝 서다

TAEKWONDO & LIFE

- 078 <2> **지승원 목사**
지승원 사범의 삼위일체, 교수·목사·사범

HISTORY

- 082 **한국 태권도의 자취를 찾아서 <7>**
태권도의 세계화는 어떻게 이뤄졌나?
① 사범들의 미국 진출사
- 085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7>

LEGENDARY PLAYER

- 086 <6> **여자 최초 세계 선수권 대회 3연패 정명숙**
정명숙, 금자탑 쌓고 사범의 길
“사범이 선수 생활보다 힘들어요”

VISION & TREND

- 090 **한민족 전통 무예 시리즈 <6>**
흑독한 수련을 견뎌 낸 최고수 황인무
치명적 실전 전통 무예 ‘옛법 택견’

COMPETITION

- 094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국가대표 최종 선발 대회**
“종가”의 명예를 떨쳐라” ...
요르단행 청소년 국가대표 뽑혀
- 096 **제8회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겨루기와 더불어 지적장애·운동장애
품새 경기에 벅찬 감동

PLAYER OF THE MONTH

- 098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이다빈**
반전의 삼파전(三巴戰), 결론은 이다빈이었다

OUR FAMILY

- 100 <12>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UTA,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어 간다
- 103 <13> **충청남도태권도협회**
행복한 변화 추구하며 회원 중심 협회 운영

KTA & NEWS

- 106 KTA 동정 &

FAMILY NEWS

- 112 시도 협회 통신원 마당

OUR WORLD

- 113 **YOUNG' S EYE**
대학생 명예 기자 마당

RECORDING ROOM

- 114 각 대회 기록

CALENDAR

- 116 3·4월 주요 일정

PUZZLE

- 118 SUDOKU



태권도

TAEKWONDO

발행인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편집인	서완석 전 국민일보 체육 전문기자
편집장	최규섭 전 일간스포츠 종합기획 에디터
편집위원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고진현 스포츠 서울 편집국 부국장
자문위원	▲ 도장 = 손성도(KTA 도장관리위원장) 정종수(KTA 강사) ▲ 학교 = 김중현(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임신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 경기 = 장명수(KTA 겨루기 경기위원장) 최종식(KTA 품새 경기위원장) ▲ 심판 = 천우필(KTA 겨루기 심판위원장) 박상수(KTA 품새 심판위원장) ▲ 지도자 = 이창건(겨루기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 김인기(품새지도자협의회 회장) ▲ 시범 = 이규형(전 국기원 원장) 이춘우(국가대표 시범단 단장) ▲ 언론 = 정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정희돈(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각 분야별 가나다순
객원 기자	양택진 태권도신문 취재부 차장 류호경 태권도신문 취재부 기자
제작 실무	김충환 전략사업부 부장 김영필 전략사업부 차장 강경훈 전략사업부 과장
시도 협회	통신원 임성수(서울) 김도호(부산) 전종열(대구) 박종석(인천) 고남기(광주) 강정덕(울산) 심덕진(경기) 한성진(강원) 김영근(충남) 양희락(전남) 장태영(경북) 백성경(경남)
대학생 명예 기자	▲ 경희대학교 = 김민서 김수진 김정은 박진주 정혜나 지민주 ▲ 계명대학교 = 정준우(교육대학원) ▲ 용인대학교 = 안정현 ▲ 전주대학교 = 공찬욱
등록 번호	송파, 마00047
발행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TEL	02-420-4271~3
발행 연월일	2019년 3월 11일
등록 연월일	2004년 12월 7일
제작	(주)명진C&P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벗어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태권도』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격월간)마다 여러분을 찾아 한국 태권도의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태권도』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태권도』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태권도 문화 개척은 종주국의 책무

글 서완석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 경제학 기초 이론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다. 다이아몬드처럼 공급이 극히 제한돼 있지만 원하는 사람이 많은 재화는 가격이 비쌀 것이고, 공기처럼 너무나도 흔하면 가격은 아예 '0'에 가까울 것이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일이 잦으면, 좋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할 때가 곧 올 것 같다.

태권도 품새 경기를 관람하는 데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태권도의 겨루기는 물론 품새 경기를 관람하는 데 돈을 지불한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이 같은 질문에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태권도 경기는 원래 공짜 아닌가? 품새라고 다른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3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개최한 2019 KTA 품새 최강전은 관중에게 입장료를 받고 치러졌다. 국내 태권도 대회 of 유료화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겠다는 최창신 KTA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첫 작품이다. 최 회장은 현재의 태권도 문화와 경기 규칙으로는 종주국의 지위를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들어 태권도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을 주창(主唱)해 왔다.

태권도 경기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올림픽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외국 대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종주국은 입장료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가정에 태권도 수련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앞 상가에 반드시 태권도장이 있을 정도로, 태권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마치 공기가 그런 것처럼 너무 흔한 탓에, 그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망각했던 것이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품새는 겨루기 태권도와는 다른 새로운 맛을 선사했다. 이번 국내 품새 최강전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행사가 아니다. 한

국 태권도의 품새 실력은 지난해 타이베이(臺北)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6개 중 23개를 따올 정도로 압도적 세계 최강이다. 매일 전국 1만여 개 도장에서 100만여 명이 수련하고 있을 만큼, 두터운 선수층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실력이 평준화돼 한국이 절반의 메달도 따지 못하는 겨루기와 다르다. 이번 대회는 TV 중계는 물론 사상 처음 상금도 내걸었다.

처음 받게 된 입장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기 힘들었다. 공급은 많지만, ‘공짜’라는 인식이 수요자에게 일반화한 탓이다. 10만 원이 넘는 피겨스케이팅 갈라쇼나 유명 뮤지컬을 떠올려 봤지만, 단번에 이를 흉내 낼 수 없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정했다. 수요자의 충격을 줄이는 대신 적어도 영화 관람료보다는 비싸야 했다. 사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이미 이 분야 세계 최고 수들이다. 그들은 품새 최고수가 되기 위해 10~20대의 청춘을 불살랐다. 부상도 웬만한 운동보다 많다고들 한다. 그들이 품새에 바친 피와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2만 원으로는 어렵도 없다.

다행히 팬들의 협조로, 사상 첫 입장료 징수는 관중석을 모두 채움으로써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 관객 대부분이 태권도 관계자였으나 유료화를 받아들였다. “태권도인 스스로 품새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 줄 것인가.”라는 분위기가 유료화에 호의적으로 작용했다.

KTA는 재미있는 태권도로 태권도 문화를 바꾸기 위한 후속 행사를 잇달아 기획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현재의 경기 규칙 일부를 개정해 태권도 본연의 박진감 넘치는 겨루기 대회를 시험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이 경기 규칙을 개정하면 피동적으로 따라갔던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종주국 협회의 사명을 다할 계획이다. 또 태권도의 종합 예술이라 할 태권 공연 경연 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는 국제 대회 메달 이상이 돼야 한다. 태권도는 이미 원조 한류로 인식돼 있다. KTA가 구상하는 새로운 태권도 문화가 글로벌 문화로 거듭나도록 국내 태권도인의 동참과 분발이 필요한 때다.

약동의 봄에 태어난 『태권도』, 햇살·비·바람과 어우러져 영원하리라

글 최규섭 사진 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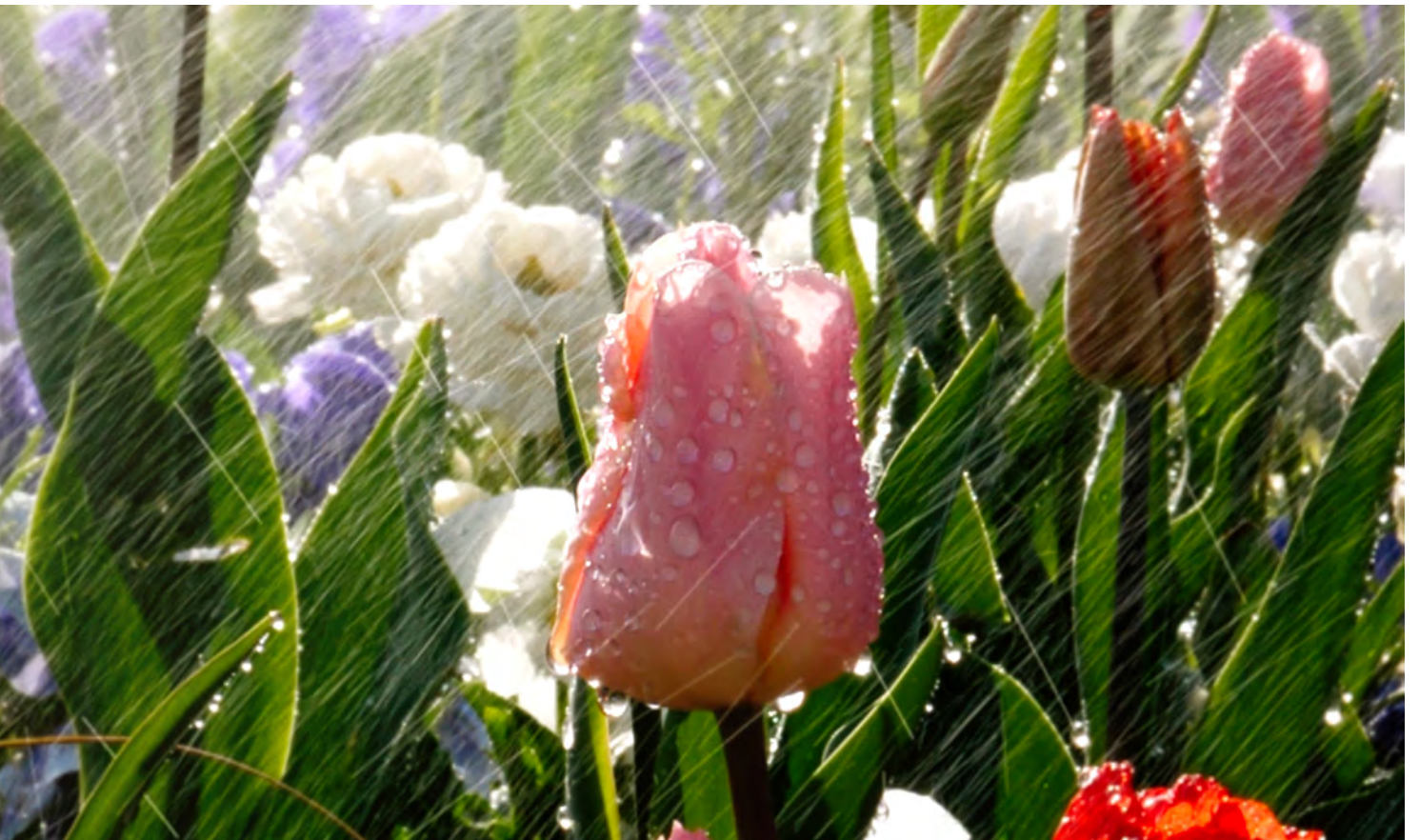


“앞 강에 살얼음은 언제나 풀릴 거나 / 짐 실은 배가 저만큼 새벽안개 헤쳐 왔네 / 연분홍 꽃다발 한 아름 안고서 / 물 건너 우련한 빛을 강 마을에 내리누나 / 오늘도 강물 따라 뗏목처럼 흐를 거나 / 새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듯 나부끼네 / 내 마음 어둔 골에 나의 봄 풀어놓아 / 화사한 그리움 말없이 흐르는구나.”(『강 건너 봄이 오듯』 송길자)

봄이다. 삼월의 햇살이 따사롭다. 모두에게 속삭이는 듯하다. “어서와 안기려무나.” 만물이 기지개를 켜다. 겨우내 움츠렸던 산하는 꽃단장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느라 정신없다. 앙상했던 나목은 어느덧 꽃망울을 맺고 꽃눈을 틔우려 한다. 온 누리가 생동의 빛으로 가득 차 온다. 쇠락(灑落)한 기분에 화답의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그대, 햇살 아씨에게 다가가겠노라.”

봄비다. “어서 가라, 겨울아!” 재촉하는 듯하다. 겨우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개구리에게 속살거린다. “어서 일어나 함께 뛰놀자.” 천둥이 친다. 겨울을 쫓아내는 우레다. 땅속의 벌레에게 큰 목소리로 외친다. “봄이 왔어. 그만 깨어나 밖으로 나오라고.” 개구리가 뛰고, 벌레가 꿈틀거린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 곧 절기다. 달리 경칩(驚蟄), 또는 계칩(啓蟄)이라 일컫겠는가.

봄바람이다. 보드라운 봄 햇살과 감미로운 봄비와 어우러진 명지바람이다. 무기력과 정체를 등에 진 겨울을 저편으로 쫓아낸다. 활기와 소생을 가슴에 안고 이편으로 사뿐히 지르밟고 온다. 어울려 발걸음을 내디딘다. 곳곳의 잔설을 녹이고 신록을 찬미하는 봄의 향연에 함께 젖어 들려는 갈망의 몸놀림이다. 삼월의 그림자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며 ‘봄의 찬미’에 도취한다.



“기나긴 세월, 그대는 달려왔네 / 지쳐 실망정 쓰러지지 않았다네. //
 닥쳐오는 간난을 뿌리치지 않았소 /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극복의
 뿌리를 찾았다고 / 드리운 고난의 그림자를 피하려 하지 않았소 / 언
 져가 영광의 환호성을 터뜨리라 믿고 맞아들였다고 / 벗인 양 품에
 안기려는 슬픔을 물리치지 않았소 / 어느 땐가 열락의 빛을 내뿜으리
 라 여기고 가슴속에 새겨 뒀다고. // 이 사월, 그대는 다시 뛰어가네
 / 한 톨의 밀알이 되리라 다짐하며 걸어가네.”(『그대여, 영원하리라』,
 춘추필) - 『태권도』 복간 1주년에 부쳐 -

달려왔다. 48년간이다. 어찌 주저앉고 싶지 않았으랴. “쓰러져서 잠
 들렴.” 끝없는 유혹의 속삭임은 달콤하기만 했다. 거부했다. 영원한
 휴식의 꿈에 결코 질 수 없다는 오기가 꿈틀거렸다. 사멸의 길로 들
 어설 수 없다는 생존 본능의 발로였을까? 오히려 사명감을 더 굳추
 세웠다. 한국 최초의 태권도 전문 잡지로서, 그에 걸맞게 오뚝이처럼
 일어나리라 다짐하며 열정을 불살랐다.

뿌리치지 않았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다. 1971년, 그때는 불모지나
 매한가지였다. “태권도는 국가다.” 공허한 메아리뿐인 외침이었고, 그
 저 말뿐인 허울이었다. 개척자의 심정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황무
 지를 갈고 일구며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 긴 세월, 곳곳에서 튀어나
 오는 암초에 맞섰다.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며 영광의 고동 소리로 끝
 맺으리라 스스로를 달랜 향해였다.

뛰어간다. 끝없는 길이다. 불투명한 앞길이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으
 려다. 태어나 살아 있다는 존재감, 그 무엇에 비할 행복인가. 살아서
 움직이는 약동의 기쁨을 노래한다.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희열을 만끽하는 구가(謳歌)다. 한국 태권도의 반려자로 남고 싶다.
 마음속 깊이 아로새긴다. ‘그 길을 걷고 달려가야 함은 운명이다.’ 복
 간 1주년을 맞아 다지는 마음가짐이다.🎵

다시 태어난 ‘생명의 4월’에 노래하는 지난날과 훗날

글 최규섭 사진 KTA DB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 이렇듯 아름다운 봄
이 되면 / 당신이 더 보고 싶어진다는 것을 /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 그대 목소리처럼 이
렇게 부드러운 봄에 / 우리의 찬란한 봄을 함
께 시작했다는 것을. / (중략) /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 이렇게 당신이 그리운 날 / 그대
의 모습이 내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 이런 그리움을 이런 아픔을 /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4월에』류옥희)

4월! 뜻깊게 다가온다. 1년 전, 한 생명이 다
시 비롯된 그달 아닌가. 또 한 성상이 흘러간
다. 내디딘 여섯 발걸음(제167~172호)에 힘
입어 선명하게 새겨진 나이테는 창조의 샘
에 포말을 일으키며 퍼져 나간다. 일었던 물
결이 잔잔해지며, 시나브로 펼쳐지는 동심원
이 가득 자리한다. 하나, 둘, 셋... 헤아리기
가 벅찰 만큼 많은 한중심원이다. 마흔여덟
에 이른다.

또 한 걸음을 내디딘다. 순백의 마음으로 띄
운 첫 잔[濫觴·남상]을 깨뜨리지 않으려 애태
우는 행로의 연속이다.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 각고의 나날이었



다. 미지의 앞길을 열어 나가려 탐험의 열정을 불사른 생명체, 『태권도』다. 한결같은 마음의 한길이었다. 발씨가 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태권도가 용틀임할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옮겨 온 행보다.

해탈을 멀리하고 곧게 그리고 줄곧 달려왔다. 여전히 다다르지 않았다. 아니, 갈 길은 더 멀다. 끝을 기억하기 힘든 그날이다. 그렇다면 즐기치게 내달린, 걸음걸음에 기원을 담은 지난 1년 동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국 태권도가 활짝 꽃피우는 데 한 톨의 씨앗이 되리라.’ 역사의 거울로서 다짐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물어봤다.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 또다시 개척의 길에 나서는 까닭이다. 거듭나 새롭게 도전의 길을 떠난다. 그 어떤 간난이 닥칠지라도 맞부딪쳐 박차겠다고 가슴속에 아로새긴다. 다시 힘내 갈 길을 재촉하려면. 완성의 그날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운명의 길 아닌가? 절로 일깨워지는 소명(召命)이다. 이 사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 환호성을 터뜨릴 그 길로 들어선다.☉



복간 1주년 기념 설문 조사

『태권도』, 공감대 이루며 추진력 얻어 ...
개혁 열정 더욱 불살라야

글 최규섭 도움 KTA 도장사업부, 신광철 KTA 강사

2018년 4월, 찬란한 봄이었다. 동면의 숙명을 감내하던 하나의 생명체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다. 7년 4개월 동안 두꺼워지지만 하던 허물을 벗고 밝은 빛을 받아들였다. 깊은 어둠을 뚫고 다시 광명의 세상에 나왔음을 온몸으로 부르짖었다. 인고 끝에 맺힌 과실, 곧 『태권도』지(誌)의 복간이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러갔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불사른 한 해 365일이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밟아 온 외길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싶다.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바탕으로 삼아 내일의 거울을 만들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태권도』의 좌우명을 늘 가슴속에 되새겼다. 태권도계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明鏡止水명경지수]이 되려고 촌음을 아끼며 정진했다.

과연 그러했을까? 자애심에서 비롯된, 자아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상실한 데서 온 헛된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다. 일순 그릇된 자기평가는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경계의 울림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왔다. 『태권도』를 바라보는, 바깥 세계의 냉정한 눈을 구하고 싶었다. 복간 1주년을 기념하여 설문 조사에 나선 까닭이다.

대상은 태권도인이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에 등록된 일선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의 눈을 빌렸다. 그들의 눈에 『태권도』는 어떻게 비쳤을까? 나타난 결과를 수용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나아가야 할 앞길의 길라잡이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왜? 완벽하게 융통임할 훗날을 맞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날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야 할 운명과 소명(召命)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I. 발간

긍정적 평가 받은 『태권도』, 추진력 얻다

이번 설문 조사는 2월 19일에서 25일까지 이레 동안(일수 기준) 실시됐다. KTA 등록 태권도장 지도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모두 160명이 성의껏 응답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국 태권도 발전을 염원하는 한뜻으로 솔직하게 답변한 마음씨가

진정성을 띠고 와 닿았다.

이들은 대체로 『태권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총 160명의 응답자 중 110명(68.8%)이 『태권도』의 지난 1년간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이하 설문 및 그래픽 참조). 특히 가장 많은 응답자(66명·41.3%)가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해 『태권도』가 1년간 제 길을 제대로 밟았음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19명(11.9%)만이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아주 못했다.”라는 반응은 9명(5.6%)에 불과했다.

긍정적 시각은 콘텐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의 다양성”(59명·47.6%)과 “콘텐츠 선정 및 기사 논조”(42명·33.9%)를 택한 응답자가 총 124명 중 절대다수(101명·81.5%)를 차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 시각 역시 콘텐츠에서 원인을 찾았다. “콘텐츠의 다양성”(77명·48.1%)과 “콘텐츠 선정 및 기사 논조”(47명·29.4%)를 택한 응답자가 80% 가까이(124명·77.5%)에 이르렀다.

『태권도』는 지난 1년간 여섯 발걸음(제167~172호)을 내디뎠다. 그 여섯 걸음을 함께 밟은 응답자도 상당수(37명·23.1%)에 이르렀다. 정반대로, 아직까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응답자도 두 자릿수(23명·14.4%)나 됐다. 『태권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그다지 다양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수치로 보인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일선 도장 관장·사범은 문하생을 가르치는 바쁜 시간을 쪼개 『태권도』에 눈길을 줬음이 엿보였다. 가장 많은 지도자(72명·45.0%)가 한 호(號)당 평균 “¾ 이상” 내용을 살펴본다고 답했다. “¾ 미만~½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32명·20.0)를 합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비율(65.0%·104명)이다.

탐독 또는 열독하는 지도자도 적지 않았다. 한 호(號)당 소요되는 평균 시간 설문에, “2시간 이상”(22명·13.8%)과 “2시간 미만~1시간 30분 이상”(23명·14.4%)이라는 대답이 30% 가까이(45명·28.2%) 됐다. 『태권도』는 현재 격월간으로 나오고 있다. 이 발행 주기를 원하는 응답자(56명·35.0%)가 가장 비교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은 응답 분포(51명·31.9%)를 보인 월간 주기에 비교할 때 아주 작은 차이(5명·3.1% 포인트)에 불과해, 상당수 지도자가 발간 횟수가 많은 태

권 전문지를 갈망하고 있는 증좌로 읽혔다.

『태권도』의 기사량과 쪽수에 대해선 현재 상태가 적당하다고 보는 눈이 많았다. 절반을 넘는 응답자(87명·54.4%)가 나왔다. 그러나 “늘려야 한다.”(39명·24.4%)와 “많이 늘려야 한다.”(21명·13.1%)라는 대답이 그 못지않게 나타난 대목은 눈여겨보아야 할 듯하다.

II. 제호·콘텐츠

역사의 순환을 좇는 『태권도』, 공감대 이뤄

『태권도』는 다시 태어나며 제호와 서체를 창간호와 똑같이 했다. 어제→오늘→내일→어제의 순환이 가르치는 역사의 깨우침을 기꺼이 따르려는 『태권도』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싶어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 응한 지도자 대부분이 이런 『태권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70% 가까운 응답자(107명·66.9%)가 “좋다.”(76명·47.5%)와 “아주 좋다.”(31명·19.4%)에 방점을 찍었다. “바뀌야 한다.”(11명·6.9%)와 “마음에 들지 않는다.”(8명·5.0%)를 택해 흡족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19명·11.9%)를 압도했다.

제호 디자인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다. “좋다.”(78명·25.6%)와 “아주 좋다.”(29명·18.1%)에 마음을 연 응답(107명·66.9%)이 “바뀌야 한다.”(7명·4.4%)와 “마음에 들지 않는다.”(5명·3.1%)에 눈길을 준 응답(12명·7.5%)에 훨씬 앞섰다.

콘텐츠 배분에 관한 생각은 썩 만족스럽지 않음이 엿보였다. “그저 그렇다.”(67명·4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면적으로는 “타당하다.”(59명·36.9%)라는 응답에 근소하게 앞섰다. 그렇지만 항목 성격상 크게 나쁘지 않은 이상 “타당치 않다.”(14명·8.8%)보다 “그저 그렇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태권도』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주목도에선, 도장 관련 기사에 가장 눈길이 쏠렸다(113명·70.6%). 일선 도장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데서 비롯된 모양새일 듯싶다. 이슈 관련 기사를 택한 응답(22명·13.8%)이 그 뒤를 쫓았다. 뜻밖에도 국가 대표팀 관련 기사는 극히 소수(6명·3.8%)로,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

그 이유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보’였다.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설문문에, “정보성”(92명·57.5%)이라고 답한 지도자가 제일 많았다. 응답자들은 흥미 요소는 도외시켰다. 흥미성(4명·2.5%)을 택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정보성의 뒤를 관련성(34명·21.3%)→유익성(20명·12.5%)→기타(10명·6.3%) 순으로 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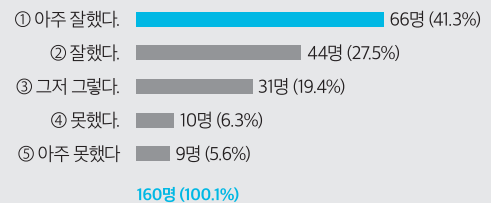
증가가 가장 필요한 콘텐츠로도 역시 도장 관련 기사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물경 126명(78.8%)이 도장 관련 기사를 늘려 달라는 욕구를 드

복간 1주년 기념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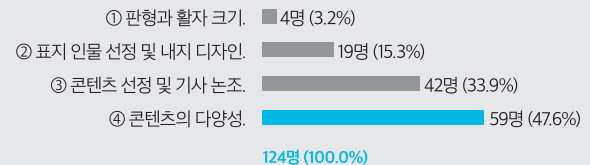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태권도』가 복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제167호(4·5월)를 발간함으로써 7년 4개월 만에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던 『태권도』는 제173호(3·4월)에서 1년간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재탄생의 뜻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려 합니다. 이 맥락에서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태권도』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며 어떻게 움직였는지 객관적 시각을 통해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날의 추진력을 얻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입니다. 한국 태권도 발전을 염원하는 태권도인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1.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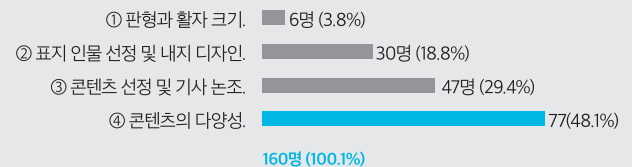
1. 『태권도』 복간 1년간 활동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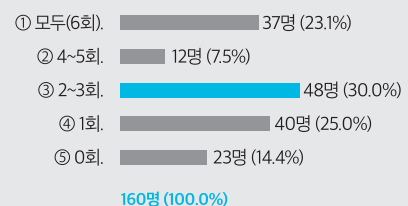
2. 1. 문항에서 ①과 ②를 택한 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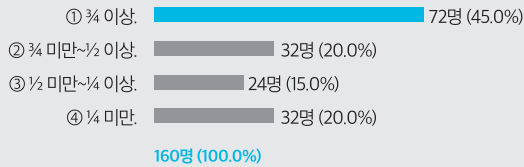
3. 1. 문항에서 ④와 ⑤를 택한 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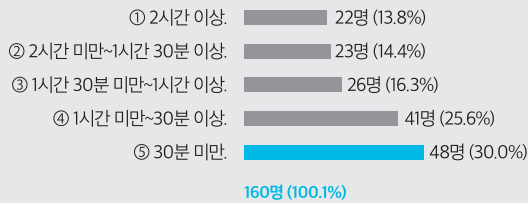
4. 『태권도』는 그동안 여섯 번 발행했습니다. 몇 번이나 보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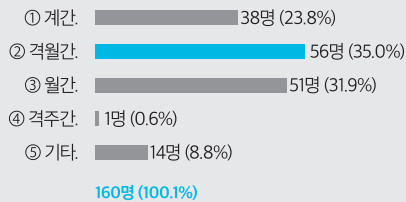
5. 한 호(號)당 평균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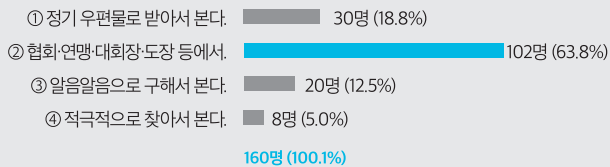
6. 한 호(號)당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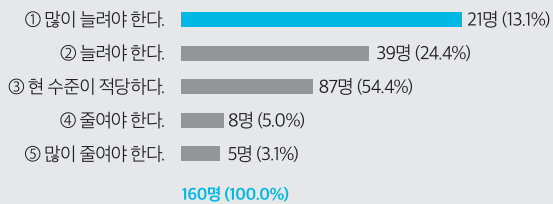
7. 『태권도』는 격월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발행 주기는 무엇인지요?



8. 『태권도』를 어떻게 접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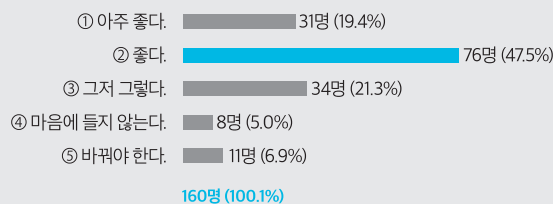


9. 『태권도』기사량, 곧 쪽수를 늘려야 또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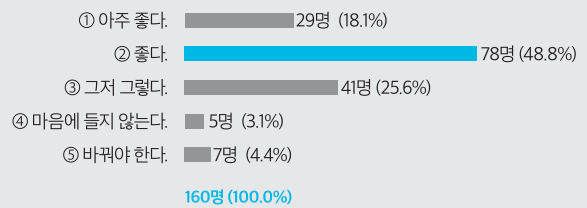


II. 제호·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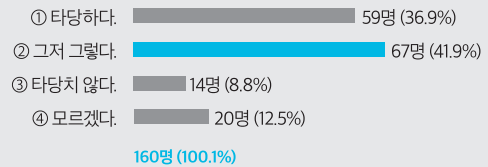
1. 현 『태권도』제호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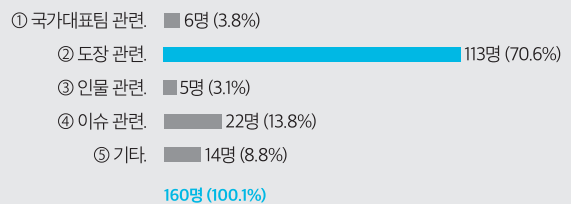
2. 현 『태권도』제호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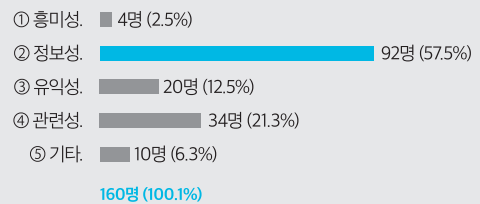
3. 현 『태권도』의 콘텐츠 배분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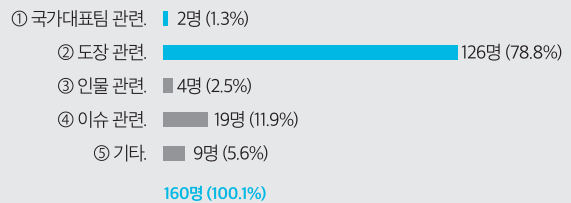
4. 주로 어느 기사를 읽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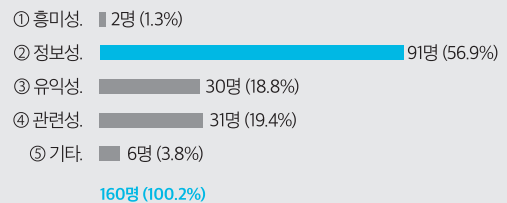
5.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6. 중가가 가장 필요한 콘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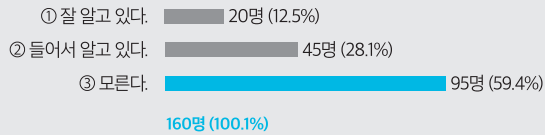


7.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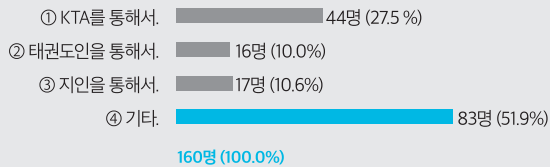


III '태권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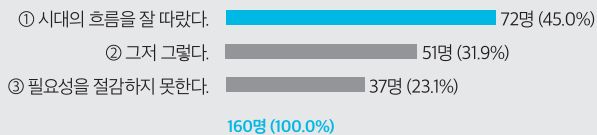
1. 지난 1월 말 『태권도』의 온라인 모바일 버전인 '태권 M'이 선보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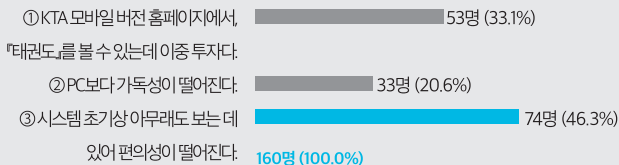
2. URL만 알면 볼 수 있는 '태권 M'을 어떻게 접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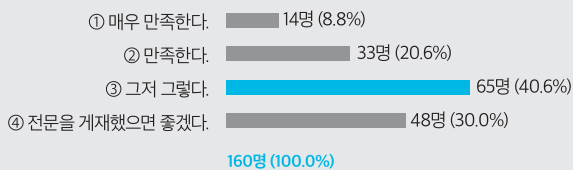
3. 시대적 산물인 '태권 M'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위 문항에서 ③을 택하신 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5. '태권 M'은 모바일 뉴스 특성상 기사 전문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냈다. 그 까닭 역시 정보성이었다. 91명(56.9%)으로 절반을 넘었다.

III '태권 M'

새 생명체 '태권 M', 더욱 개혁의 길로 나아가

2019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웅비를 다짐하는 『태권도』는 지난 1월 그 결정체로 모바일 뉴스 서비스인 '태권 M'을 내놓았다. 널리 그리고 두루 뉴스를 제공하려는 『태권도』의 간절한 희구에서 맺어진 열매였다. HTML5 기반의 플랫폼인 '태권 M'은 오프라인 매체인 『태권도』가 발간된 뒤에 일어나는 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생생한 생명체다.

그렇다면 일선 도장 관장·사범은 '태권 M'의 탄생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동성·편의성·신속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뉴스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지도자가 과반수에 달했다. 95명(59.4%)으로, 절반을 넘었다. “잘 알고 있다.”(20명·12.5%)라고 답한 지도자의 거의 다섯 배에 이르렀다. '태권 M'의 전파력은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인지 “태권 M'을 어떻게 접했는가?”라는 설문에, 160명 모두 응답하는 ‘기이함’을 보였다. 아마 설문을 보고 주위에 묻고 접한 듯싶다. 어쨌든 이 설문에선, “KTA를 통해서.”(44명·27.5%)라는 응답이 “기타”(83명·51.9%) 응답을 제외하면 비교 우위에 섰다.

시대적 산물인 '태권 M'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시대의 흐름을 잘 따랐다.”(72명·4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단, “그저 그렇다.”(51명·31.9%)와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37명·23.1%)라는 대답도 만만찮게 나왔다는 사실엔, 『태권도』가 신경을 써야 할 듯싶다.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한 까닭은 무엇일까? “시스템 초기상 아무래도 보는 데 있어 편의성이 떨어진다.”(74명·46.3%)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KTA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에서, 『태권도』를 볼 수 있는데 이중 투자다.”(53명·33.1%)→“PC보다 가독성이 떨어진다.”(33명·20.6%) 순이었다.

'태권 M'은 모바일 뉴스 특성상 기사 전문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 점도 위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을 게재했으면 좋겠다.”(48명·30.0%)라는 생각이 현재 체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14명·8.8%)라는 시각을 압도했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한 해 동안 밝아온 자취 속에서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글 최규섭 사진 KTA DB



“『태권도』지(誌)! 얼마나 다시 만나 보고 불러 보고 싶었던 이름인지 모릅니다. 꼭 47년 전, 1971년 4월에 첫 얼굴을 내비쳤던 『태권도』가 거닐어 온 외길을 잘 아는 모든 분께서 한결 같이 느끼는 감정이듯 싶습니다. 『태권도』가 창간호부터 줄곧 지키려 애썼던 소명 의식은 한국 태권도가 겪는 영광과 풍파의 세월을 함께하러 함이였습니다. 역사, 그 도구인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 한 정신의 산물이 곧 『태권도』였습니다.”[복간호(제167호·2018년 4·5월) 창간사 중]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고 위대하다. 그런 만큼 생명의 불꽃은 쉬이 꺼지지 않는다. 『태권도』지(誌)가 7년 4개월의 침묵을 깨고 다시 힘차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근원적 연유다. 한국 태권도가 살아 숨 쉬는 한 끝까지 함께 호흡하겠다는, 생명체로서 다진 끈기와 오기에서 비롯된 열정의 소산물이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음을 알린 지 1년이 흘렀다. 미지의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탐험과 도전의

길은 녹록지 않았다. 간난의 가시밭길이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되풀이하곤 했다. 그렇지 만 주저앉고 쓰러질 수 없었다. ‘한국 태권도의 밝은 앞날을 개척하리라.’는 초심을 굶임없이 되새기며 오목이의 근성으로 헤쳐 나왔다.

여전히 앞길은 불투명하다. 신이 희롱하는 목소리일까,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왜 그렇게 쉬지 않고 끝없이 달려가는가? 다시 ‘잠의 세계’로 오라.” 나약한 인간으로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지난 1년간 불태웠던 정열이 소멸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땀을 흘렸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가는 지난 1년 동안의 발자취를 음미하며 다시 운명의 길에 나선다.

파종기 - 제167호 -

복간호답게 『태권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능할 수 있는 체제와 콘텐츠

츠를 선보였다. 다양한 씨앗을 뿌려 풍성한 결실을 기약케 했다.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에 선 한국 태권도의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생명의 샘’에서 길어 올린 ‘생명수’로서 기능해야 할 『태권도』의 본질을 꿰뚫은 전략이었음이 엿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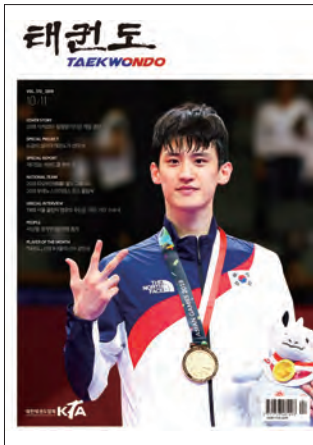
이 맥락에서, 고사 위기에 빠진 일선 태권도장을 회생시킬 수 있는 처방전으로 내세운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는 주제의 연중 기획물인 스페셜 프로젝트가 지도자(관장·사범)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페셜 리포트 ‘최창신호, 격량을 헤치며!’는 닳을 올리고 항해에 나선 ‘최창신 선장 체제’의 어제와 오늘 1년 4개월을 되짚고 내일의 좌표를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언론 매체의 본질 중 하나인 속보성에서도 경쾌한 발놀림을 뽐냈다. 강판을 눈앞에 둔 3월 30일,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법제화된 뉴스를 일간지에 못지않게 기민하게 보도함으로써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곧추세웠다.

맹아기 - 제168호, 제169호 -

움이 뜬 시기다. 비록 씨앗을 뿌린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뿌리를 내렸음을 엿볼 수 있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편집도 힘을 얻어 보다 화려해졌음이 쉽게 읽혔다. 대표적 예로, 사진



성장기 - 제170호, 제171호 -

다양한 밑거름은 성장을 촉진시켰다. 취재 영역이 해외로 넓혀졌고, 필진도 외부 칼럼니스트의 다원화로 풍부해졌다. 앉아서 머릿속에 그리며 쓰는 기사가 생동감이 있을 리 없다. 뛰어서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느끼며



성장의

하게 피었고, 열매는 달았다. 오로지 맘으로 수확한 과실이었다. 그만큼 어려움을 감내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실이었다. 한 해를 밝히는 신년호에 걸맞게 다채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콘텐츠가 독자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했다.

2019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는 태권도계



개화의

과 글의 어우러짐에 초점을 맞춘 '포토 에세이'가 눈길을 끌었다.

위인의 삶을 동경하는 보통 사람의 욕망을 충족키 위한 인물 콘텐츠도 돋보였다. 잊혀가는 스타의 어제와 오늘을 찾아보는 '레전더리 플레이어(Legendary Player)'가 선보인 시기도 이때였다. 두 번에 걸쳐 들여다본 '그랜드 마스터' 김재훈의 인생은 태권도인에게 귀감으로 다가왔다.

열정에 불타는 청춘의 신선한 시각을 담기 위해 기획된 대학생 명예 기자의 마당인 '아워 월드(Our World)'는 짧은 시간에 제자리를 찾으며 훗날의 결실을 기대케 했다.

발아기에서 존재감을 뽐낸 아이템은 제169호(2018년 8·9월)에 스페셜 리포트로 실린 "재미있는 태권도를 하자"였다. '태권도는 재미없다'는 곤혹스런 명제에 맞닥뜨린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찾아낸 살길인 '재미있는 태권도'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태권도계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쓰는 기사가 그만큼 감동과 흥미를 자아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발아기에 나온 두 권의 『태권도』가 이를 다시금 입증했다. 제170호(2018년 10·11월)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과 2018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를 현지에서 취재해 게재함으로써 기사에 생기와 윤기를 더했다. 또 제171호(2018년 12월)는 2018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와 제11회 타이베이(臺北)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사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신선미를 느끼게 했다.

제170호에 실린 한 편의 발굴 기사는 『태권도』의 존재 가치를 높였다. 70년 가까이 한평생을 다른 사람의 이름(백낙언)으로 살아가야 했던 비운의 무도인인 서상렬 세계무덕관 연맹 총재의 삶 이야기는 감동을 자아냈다.

개화기 - 제172호 -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꽃은 화려

의 한마음 한뜻을 꿈꾸며 마련된 '신년 좌담회',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향한 야망을 부풀리는 자들의 각축전을 다룬 '왕좌의 게임' 등은 그 좋은 보기다. 새롭게 선보인 '태권도 & 인생(Taekwondo & Life)', '이달의 사진(Photo Of The Month)' 등도 마찬가지다.

복간호부터 야심 차게 첫걸음을 내디딘 스페셜 프로젝트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는 시즌 2019로 꾸며져 더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일선 도장 지도자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방식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인 '태권 M'의 탄생은 2019년의 화두가 됐다. 『태권도』가 비약의 나래인 '태권 M'을 달고 저 멀리 높게 날아오를지 기대된다. 📺

창간호를 고이 간직해 온 최낙덕 사범

48년의 오랜 세월을 초월해 오로지 『태권도』를 사랑하다

글 최규섭 사진 최낙덕 제공

“잃었던 자식을 되찾고, 집 나간 자식이 되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감동의 느낌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나 보다. 시간을 되돌려 그때를 떠올리면 감격의 파고에 휩쓸리는 듯, 저편에서 들어오는 어조엔 흥분이 배어 있었다. 그럴 만했다. 7년 4개월 동안 추억의 언저리에서나 맴돌던 그리운 ‘자식’이 다시 불쑥 찾아와 품에 안겼으니, 그 기쁨이 오죽했을까. 정겨운 손길을 마주 잡고 어우러져 덩실춤을 추고 싶었던 그 순간의 환희를 도저히 잊기 힘든 듯싶었다.

“휴간이나 정간보다는 폐간됐다고 생각했다. 7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발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감하지 못하다가 실체를 접했을 때 기분은 지금도 표현하기 힘들다.”

최낙덕 사범(68), 한평생을 태권도와 더불어 살아온 태권도인이다. 또 『태권도』지(誌)가 태어날 때부터 늘 함께하며 애정 어린 눈으로 성장을 지켜봐 온 『태권도』가족이다. “태권도와 『태권도』가 그의 삶의 두 축이다.”라고 표현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

『태권도』 변천의 길을 함께한

태권도 사범

2018년 봄 어느날, 최낙덕 사범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제자인 손희운 씨였다.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KTA) 대회위원회(겨루기) 기록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의 손



최낙덕 사범이 『태권도』 창간호를 꺼내고 추억에 잠겨 있다.

엔, 스승께 드리는 선물이 들려 있었다. 깊고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크게 기지개를 켜 『태권도』 복간호(제167호)였다. 2010년 제166호를 끝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권도』가 다시 나올 그날만을 간절히 바라 온 스승의 열망을 헤아린 제자의 정성이 깃든 선물이었다. 1971년 4월에 첫선을 보인 『태권도』 창간호부터 단 한 호(號)도 빠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 온 스승 아닌가.

그는 『태권도』의 생애를 가슴속에 담아 돌만큼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태권도』가 걸어온 변천의 길을 ‘추억의 장’에 차곡차곡 쌓아 왔다. 태권도인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전문 잡지로 인식된 『태권도』가 한때(1970년대)는 서점에서 판매된 적이 있는, 지금은 문헌 ‘비밀’을 소상히 꿰뚫고 있을 정도였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그의 나이는 『태권도』의 연령과 똑같다. 1971년 무덕관 경상남도 본

관(진주 소재) 사범으로 스승의 길에 들어선 그해에 『태권도』도 첫 모습을 보였다.

“그때 기억과 느낌이 지금도 선연하고 생생하다. 관장님이 내미신 손에 있던 책을 보는 순간, 전율이 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충격은 더욱 커졌다. 처음 접하는 태권도 이론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는 듯했다.”

그가 지금도 굳게 지키는 태권도 배움터인, 진주에 자리한 국기도장은 『태권도』의 안식처다. 창간호부터 복간호를 거쳐 올 1월에 나온 제172호까지 한곳에서 같이 호흡한다. KTA가 1985년에 그때까지 발간된 각 호를 모아 합본 형식으로 펴낸 『태권도』도 당연히 이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행여 발간 당시 형태의 낱권으로 그대로 뒀다가 파손되거나 잃어버릴지 몰라 1년 단위로 묶어 간직하고 있다.”

그의 『태권도』 사랑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

는 보관 방법이다.
그는 『태권도』를 디딤돌로 무예 서적 수집에 취미를 붙였다. “한국에서, 각종 무예 서적을 아마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자부심을 품을 만하다. 물경 2,000여 권에 달하는 무예 서적이 빼곡 들어차 있는 곳, 곧 국기도장이다. 이쯤이면 무예 서적의 ‘보물창고’라 해도 과장이 아닐 성싶다.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으뜸을 다룬다. 무덕관을 창설한 황기 관장이 1950년에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무술 교본 『화수도(花手道)』, 박철하 사범(강덕원 무도회)이 집필한 『파사검법(破邪劍法)』은 초판본으로서, 무예 서적 수집가들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희귀 서적이다. 그는 요즘에도 때때로 고서점을 찾아 진귀한 서적을 손에 넣곤 한다.

가르치고 익히는 데 열정을 불사른 한평생

최낙덕 사범은 고회를 눈앞에 둔 요즘도 제자 양성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가르침에



최낙덕 사범이 어린 제자들의 자세를 일일이 바로잡아 주고 있다.

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8년 동안 그가 끊임없이 길러 낸 제자가 8,000명을 넘어선 데엔, 그의 이러한 철학과 소신이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입신인 9단의 경지에 올라선 제자만도 다섯 명이나 된다.



2018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서, 최창신 KTA 회장(가운데)과 함께한 최낙덕 사범(맨 왼쪽)의 모습이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그는 배움의 마당이 열리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다. 1972년 KTA 지도자 교육을 이수(제2기)한 이래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기꺼이 가르침을 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KTA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에도 참여한 그는 단연 최고령 교육생이었다. 당시 최창신 KTA 회장은 그의 이런 열정에 감동해 한동안 손을 잡고 정의(情義)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많은 자격증을 취득했음은 그래서 극히 자연스럽다. 겨루기와 품새, 지도자와 심판 분야에 두루 걸쳐 자격증을 가진 그다. 1급 품새 국제심판을 비롯해, 겨루기·품새·한마당 1급 사범,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태권도), 세계태권도연맹 품새 코치 3급, 태권도인성 지도자 3급, 태권 PAPS 지도자 2급, 호신술 3급 지도자 등은 그가 지닌 무도 정신을 가리키는 지표들이다.

이제는 고인이 된, 당수도(현 태권도) 사범이었던 셋째 형의 가르침으로, 진주중학교 재학생 시절 도복을 입은 그가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잠시라도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태권도 수련에만 정진한 결실이기도 하다. 2006년 9단으로 승단한 그는 단 한 번도 월

단한 적이 없다. 한 치도 그릇된 길로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정도를 걸어왔다.

그는 경상남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도 땀을 아끼지 않았다. 경상남도태권도협회 각 분과 위원장(경기·심판·상벌·도장관리), 이사, 기술심의회 의장으로 활약했다. 또 진주시태권도협회 회장을 거쳐 경상남도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경상남도 태권도의 비약을 이끌어 왔다. 국기원 고단자 심사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할 만큼 역량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는 “『태권도』를 통해 태권도 이론과 기술을 더욱 쉽게 잘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태권도에 매료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식 같은 『태권도』를 향한 애정에서 쓴소리도 감추지 않았다. “태권도 이론과 태권도 정신 같은, 일선 도장 사범이 제자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콘텐츠 개발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외부에서 바라본 『태권도』 ①

『태권도』가 종주국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의 자랑거리 되길

업무상 자주 다니는 해외 출장에서 종종 부러움을 느끼는 게 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잡지가 넘쳐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서점을 살피다 보면 스포츠 레저 잡지가 실로 다양해 부러움을 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다. 유도를 비롯한 다양한 격투기를 다룬 잡지를 보다가 ‘우리는 언제 이런 날이 올까?’ 하고 시샘마저 느끼는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서적이 있다는 교보문고를 한번 가 보자, 태권도 잡지가 있는지. 종주국이라면서 변변한 태권도 전문 잡지 하나 발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지난해 4월 복간한 『태권도』지는 한국 스포츠 저널리즘 역사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선 태권도 종주국에서 발간되는 거의 유일한 태권도 전문지라는 점,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 맞서 과감하게 오프라인 잡지를 발간한 용단이 그것이었다.

『태권도』지는 태권도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저널리즘 역사에서도 큰 획을 그은 바 있다. 1971년 4월 창간호가 나왔으니 무려 48년 전이다. 그 무렵 KTA가 태권도 세계화의 꿈을 안고 기술 전문지와 소식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탄생시켰던 잡지였다. 이를 밀고 나간 당시 집행부의 고집은 타 종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태권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격동기의 태권

도 산 역사를 앓은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지금 KT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1971년 창간호부터 『태권도』에 실린 모든 정보를 단번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태권도』는 이제 역사 기록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태권도』가 없었다면 기억에서 사라졌을 엄청난 양의 태권도 역사가 이제 후학들과 함께 살아 숨 쉬게 된 것이다.

그런 소중한 매체가 시대 물결에 휩쓸려 휴간에 들어간 게 2011년. 이후 태권도 정보는 넘쳐났지만, 온전히 한 그릇에 담아 보존할 수 있는 『태권도』의 존재가 절실했다. 마침내 7년여 침묵을 깨고 지난해 복간한 『태권도』는 태권도인들에게 감동 그 자체였다. 이제 해외 어떤 태권도인들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됐다. “이제 우리도 태권도 전문지를 만들고 있다.”

『태권도』는 전·현직 태권도 담당 언론인과 전문 태권도인으로 구성된 막강 필진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저런 태권도계의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고 깊이 있으며 균형 잡힌 국내외 태권도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깔끔한 편집 디자인은 물론 다채로운 고화질 사진을 담고 있어, 모두가 소장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한다.

또한 태권도를 국기로 제정한 한국에서 발행되는 『태권도』지는 정보 축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정보 축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언론인 출신 최창신 KTA 회장께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스포츠 잡지가 많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태

권도』는 해외 사범 소개 및 국제 대회 정보가 많이 있어 글로벌한 느낌마저 준다. 게다가 올해부터 모바일 버전을 만들어 태권도인을 포함한 일반인에게도 무상 배포한 것은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렇게 소중한 KTA의 『태권도』가 경제적·정치적 논리 등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영문판 버전도 발행되어 전 세계 태권도인에게도 널리 배포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인류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봉사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어 태권도 수련 청소년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으면 한다. 태권도는 진정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며 인류의 원조기 때문이다. 종주국 KTA는 『태권도』를 통해 이를 전 세계에 알릴 책무도 있는 것이다. ㉠



글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WT) 전문위원

외부에서 바라본 『태권도』 ②

복간 1주년 『태권도』, 단지 기록할 것인가 앞장설 것인가?

국내 유일의 태권도 전문지, 『태권도』의 복간 1주년을 축하드린다. 필자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8권의 『태권 투게더』라는 태권도 잡지를 발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태권도』지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태권 투게더』를 발행할 때 항상 많이 들던 말이 있다. “요즘 누가 책을 읽어?” 열심히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언제나 상처가 됐다. 그런 질문을 늘 웃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키보드 한 번만 누르면 없어지는 온라인 매체보다 활자로 찍힌 인쇄물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고 가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결과적으로, 『태권 투게더』는 폐간의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새롭게 다시 태어난 『태권도』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

현재 『태권도』는 태권도 수련생과 지도자, 태권도에 관련된 사람을 독자로 설정하여 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로 예상되는 층은 아무래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전국 1만여 개 태권도장,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보면서 가장 원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줄어드는 수련생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 ‘다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했을까?’, ‘무엇을 가르쳐야 수련생이 지루해 하지 않을까?’ 등이 될 듯싶다. 필자 또한 잡지를 발행할 때 예상 독자를 생각하며 언제나 고민하고 생

각하던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해 보자. 『태권도』를 전국 20여 개 태권도학과에 배부하는 것이다. 그럼 태권도 전공생이 독자가 될 텐데, 그들이 『태권도』를 보면서 가장 원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태권도장 개관 절차?’, ‘태권도 역사와 이야기’, ‘태권도 전공생의 취업 이야기’, ‘사범 생활’ 등이 될 성싶다. 결국 독자를 어디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잡지에 실리는 글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태권 투게더』는 발행 초반에 독자를 일반인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전국 300여 개 서점에 잡지를 보냈고, 잡지 표지에 커다란 글씨로 적었다. “당신의 아이가 태권도장을 가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이다. 해당 호에는 태권도를 접하면서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 태권도를 하면서 좋아진 것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그리고 “이 잡지는 지도자도 도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손님과 상담할 때 시각적 효과도 얻고 태권도에 대한 수련생의 관심도 더 고취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한 신문이나 책에서 읽는 딱딱한 문체가 아닌 자유로운 문체와 에디터들의 개성이 담긴 말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어린 독자층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다. 종종 정기 구독자분들이 도장의 어린 수련생이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 주고 응원해 주곤 했는데, 『태권도』에서도 이런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잡지가 단순히 기록과 정보 전달

외에도 다른 기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태권도』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란 정보 전달과 홍보 기능은 물론 ‘비판’의 소임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기고문을 받는 등 노력하는 편집팀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

태권도 산업이 영세하여, 다양한 잡지가 공존할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아쉽다. 앞으로도 『태권도』가 다양한 태권도인의 이야기를 수렴하여 미비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언제나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올린다. 📖



글 박광범 前 『태권 투게더』 발행인

외부에서 바라본 태권도 ③

일선 지도자의 '의식 변화' 이끌어 내는 내용 많았으면

필자와 『태권도』지(誌)의 인연은 1995년 태권도장을 개관하고 지도법과 경영법에 목말라 있을 때 비롯됐다. 그 시절 태권도장의 배움과 교육은 단순했다. 수련생 시절 사범님에게 배운 태권도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이 대부분이었다. 단순하다고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어쩌면 교육이 단순했기 때문에, 무도로서 도장의 경쟁력이 있었을 듯싶다.

수련생도 유치부에 집중되기보다는 초등학교와 청소년 및 성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기본 동작, 기본 발차기, 품새, 겨루기를 반복적으로 수련하다 보니, 실력이 높아졌다. 또 교육 속도가 빨라 수련생에게 만족감과 지속적 동기부여가 됐다.

도장 경영은 사범 생활에서 체험하거나 어깨너머로 배운 게 전부였다. 1980년대엔 학부모 대부분이 지도자를 자녀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믿음과 신뢰를 보내 줬다. 지도자도 교육 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태권도를 가르치 도장을 경영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도장을 개관하는 의식 있는 젊은 지도자는 새로운 교육과 경영을 생각했고 목말라 했다. 태권도 컨설팅 업체가 생겨났지만,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부담됐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KTA)가 발간하는 『태권도』와 태권도 전문지에서 게재하는 태권도 지도법과 경영법 등의 정보를 활용해 도장 교육과 경영에 접목했다. 그때 『태권도』엔 품새와 시범 발차기 등 태권도장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도장을 경영하는 노하우도 소개해 도장 경영에 많은 도

움이 되었다. 2007년 KTA 도장 지원 사업으로 전국 태권도장 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와 지도자 전문교육 과정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태권도』가 휴간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 틈새를 파고든 줄넘기협회와 컨설팅 업체가 활성화되면서, 태권도장이 줄넘기체육관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부끄러운 일도 나타났다. 만약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발간되며 KTA 강사의 교육 및 경영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게재되었다면, 도장 교육과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20년 동안 주택가에서 경영하던 태권도장을 제자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2014년 다른 지역에서 도장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유치부 수련생이 많아 도장 프로그램과 지도와 경영 모두 새롭게 적용해야만 했다. 53세인 지금도 공부하면서 새로운 경영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A가 지난해 『태권도』를 복간해서 무척 기뻐다.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본 『태권도』'를 주제로 한 기고 청탁을 받아 오랜만에 도장 책꽂이에 서 그동안 모아 두었던 『태권도』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금도 2007년 5·6월호(제153호)부터 2008년 7·8월호(제160호)와 2009년 12월호(제164호)까지 10년 안팎의 『태권도』를 모두 갖고 있다.

2018년 4월에 복간된 『태권도』는 2019년 제172호(2019년 12월호)에서 모바일용 '태권M'까지 갖추고 새롭게 도약해 지도자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20년 넘게 도장을 경영하면서 태권도를 교육하고 있는 중견 지도자로서, 또 KTA와 국기원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필자의 시각에서 『태권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

첫째, 시대 흐름에 맞는 지도자의 '의식 변화'를 다룬 내용이 다양하게 보강됐으면 좋겠다. KTA의 태권도장 지원 사업은 교육 내용도 다양해졌고 역량 있는 강사도 많이 발굴됐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지도자의 의식이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경영의 주체인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의식이 변화해야 제공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 의식 변화를 가장 우선해야, 도장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하고 태권도장이 성장한다.

둘째, 태권도장이 바로 서는 데 도움을 주는 『태권도』가 되길 바란다. "태권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라는 구호가 있는데, 그전에 태권도장이 바로 서야 한다. 승품·단·고역 심사비에 비해 불합격률이 너무 낮다.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도장에서 태권도를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는 것은 학부모도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태권도가 있어야 태권도장이 산다"라는 구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도장과 경기 영역으로 구분하고, 도장 영역은 교육과 경영으로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편집하고 구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태권도』가 일선 지도자에게 호응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글 김동석 국기원 제도혁신위원회 위원

KTA 교육 수강자에서 교육 강사가 되기까지

2004년 도장을 열고 주말도 없이 또 밤낮없이 달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도장 운영이 싫어졌다. 제대로 쉬는 날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었다. 그렇게 방황하던 때,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쉬면서 이야기나 듣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교육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감동을 주었다. 지금까지 수업으로 듣던 원론적 영역을 벗어나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를 중심으로 지도자 소양을 키워 주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서,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황홀한 느낌마저 받았다. 참가자도 전국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도장 경영에 있어서도 굴곡이 찾아오게 된다. 위기가 찾아올 때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을 헐뜯는 방식보다 자신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훨씬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자신을 세우는 노력 속에 얻어진 결과물은 서로 다른 종목일지라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기에, 성질이 다르더라도 결코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시 KTA 강사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저들은 왜 자기 도장을 관리할 시간에 이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지적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퍼주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는 '저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는 속 좁은 경

계를 했는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다. KTA 강사들이 대한민국 태권도장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태권도장의 교육 문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보태어 헌신적 봉사를 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태권도 향기가 가득한 KTA 지도자 교육에 취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면서, 전국에서 연수를 신청한 지도자들과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또 파벌이나 학벌보다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자산을 얻었다. 그 뒤로 더 열정적으로 KTA 지도자 교육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가할 때마다 내가 발전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한 노력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되었고, 2015년 제9회 경진대회에 참가하며 그간의 피교육생에서 KTA 강사라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교육받으며 스스로 준비해 왔던 '마중물'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영광스럽게 KTA 강사가 되어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다.

태권도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비단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도 모든 KTA 강사가 자신이 만들어 쌓은 노하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고, 또 다음의 교육을 위해 노력과 창작의 고통을 이겨 내며 소중한 태권도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강사진은 KTA 지도자 교육이 태권도장 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생각하며 '가장 태권도다운 태권도장'을 세우기 위한 의무와 헌신 그리고 봉사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영역에서 서

로 협력해 가며 대한민국 태권도장의 올바른 도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쓸 뿐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강사들이 가장 염려하는 점은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의 한계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KTA 강사진의 열정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고 모방과 도용을 일삼는 불순한 의도의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강사들은 큰 상처를 입고 좌절감을 맛본다.

KTA 강사가 된 뒤 처우나 열악함도 느꼈다. 하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선배 강사는 이야기한다. 그동안 받았던 열정적 강의, 교육의 혜택 등 모든 것이 그들의 헌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후배로서 그들에게서 받아 온 혜택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야 할 때라는 점도 느낀다. 앞으로 바람은 올바른 태권도 교육 문화를 정착시켜 '태권도가 살아 숨 쉬는, 맘이 가득한, 사범다운 모습의 태권도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KTA와 KTA 강사, 그리고 일선도장 지도자가 협력하여 종주국의 알찬 태권도 교육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것이다. ☎



글 이동찬 KTA 강사

시대는 한국 체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원한다

글 서완석 사진 shutterstock

한국 근대 스포츠는 태생부터 각별했다. 서구에서 직접, 혹은 일본을 거쳐 들어온 근대 스포츠는 시민과 조우하자마자 전쟁부터 배워야 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국가에서 스포츠는 또 다른 독립운동이었다. 여느 나라처럼 스포츠는 여가 선행의 한가한 놀이가 아니었다. 스포츠에서 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했다. 그래서 정신력과 승부욕이 남달랐던 한국 스포츠 문화였다.

해방 후 냉전시대, 스포츠는 또 다른 전쟁터로 내몰렸다. 북한과 벌인 체제 경쟁에서 어떻게 하든 승리해야 했다. 정권의 요구이기도 했지만, 국민도 패배를 원하지 않았다. 한국 스포츠 문화는 이렇듯 슬픈 우리의 근대사 속에서 왜곡된 채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스포츠인이 이

런 문화를 주도했다기보다 시대적 요청이,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만들었다.

선진국 초입에 들어간 현대 한국은 그런 스포츠 문화가 바뀌길 원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하고 나선 판국이다. 과거 스포츠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타자(他者)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패러다임의 핵심은 폭력 없는 스포츠 문화인 것 같다.

스포츠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적 지상주의라고 한다. 성적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의 인생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혹독한 훈련과 이에 수반하는 언어적·육체적 폭력은 어느 정도 용인돼 온 게

스포츠 현장의 정서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성적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대책이다. 아마추어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가 성적을 못 내도 신분에 변화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한 뒤에 해야 할 말들이다. 





한국 체육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글 고진현 사진 shutterstock, 대한체육회 DB

쇼트트랙 스타 심석희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불붙은 '체육계의 미투'는 결과적으로 한국 체육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화두를 던졌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겠다."라고 체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도 장관은 또 합숙 폐지, 전국 소년체육대회 폐지, 병역 특례와 연금 제도 개선, 선수촌 전면 개방 등을 언급하면서 편중된 엘리트 체육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국 체육은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새 시대를 맞았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분절이 일으킨 문제점은 새롭게 조성된 체육 생태계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체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에 이견의 꼬리표를 다는 사람은 없다.

다만 급격한 변화가 부를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심층적 분석과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문제는 한국 체육의 역사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그리 쉽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 체육은 타자와 벌이는 대결, 즉 경기력에만 목을 뺏던 게 사실이다. 국제 경기력은 곧 국력이라는 모토 아래 체육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굳건한 틀 속에서 해석되고 기능했다. 이는 곧 한국 체육의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체육의 태생적 뿌리, 수단으로서 체육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해 유입된 근대 체육은 당시 열강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나

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됐다. 정부와 학교 그리고 민간 단체는 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강건히 해 나라를 지키자며 체육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일제 강점기 역시 체육은 목적이기보다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민족적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체육은 적극 활용됐다. 체육을 통한 민족 자주성 확립과 항일 투쟁의 바탕이 되는 민족 체육 운동은 일제 강점기 시절 한민족을 뚫뚫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해방 이후에도 체육의 도구화는 계속됐다. 6.25라는 처절한 내전을 겪으면서 공고화한 분단 상황은 체육을 체제 선전 도구로 내몰았다. 압축 성장 시기에도 체육은 국위 선양의 전위대였다. 한국 사회에서 체육은 건강과 행복 등 내재적 가치보다는 더 큰 목표를 성취키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던 아픈 역사가 있다. 그 아픈 역사가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한국 선수단 해단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전반적 성과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엘리트 체육 패러다임과 성적 지상주의

오늘날 한국 체육의 패러다임은 체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육성했던 압축 성장 시기에 그 틀이 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압축 성장 시대는 스포츠 국가주의(State Amateurism)를 체육 정책으로 택했다. 체육을 국가의 위상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엘리트 체육에 입문한 모든 선수는 체육에 올인하는 구조에 몸을 내던지게 됐다. 경기력을 위해 학습권 등 다른 모든 걸 포기한 엘리트 선수들은 벼랑 끝 험지(險地)에 내몰려 결국에는 지도자에 절대복종하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선수와 관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지도자는 성적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나머지 가치를 배제하는 체육 문화를 조성했다. 폭력 성폭력 등 반인권적 문화도 성적 지상주의의 미명하에 묵인되기도 했다.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경기력을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폭력 등 반인권적 일탈을 범하는 지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곤 했다. 운동을 포기하면 선택지가 사실상 별로 없는 선수들은 가해 지도자의 비위를 덮어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내몰리거

나 더 나아가 피해 선수가 가해 지도자를 두둔하는 모순의 극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운동을 포기하면 인생의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을 만든 체육의 구조적 모순이 폭력 등 반인권적 태도와 부정부패를 양산한 중요한 단초가 됐다는 사실은 한국 체육 생태계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하고도 남음이 있다.

시민사회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의 반영

그동안 체육은 한국 사회에서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불렸다. 사회와 철저히 유리한 외딴 섬이 됐다. 이는 체육계가 시민사회의 눈높이와 맞지 않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육계가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데엔, 다양한 가치를 압도하는 거대 담론 하나가 따리를 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타자와 대결에서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승리 지상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압축 성장 시대에서 체육이 국위 선양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체육의 본질적이면서도 다양한 가치는 사장됐다.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기형적 문화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성과 정당당당함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맨십보다 더 우위에 섰던 기계적 성과주의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체육의 선진화에 결정적 걸림돌이 돼 버렸다. 시대정신과 파열음을 토해 낸 성적 지상주의는 체육의 가치가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제동을 걸었을뿐더러 체육의 외연 확장에도 큰 장애가 됐다.

그러한 체육의 기형적 문화가 최근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조직에 짓눌려 있던 자아의 각성이 비로소 체육계에서도 시작됐다.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시대정신인 공정성이 체육 문

화의 중심 가치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급작스레 추진됐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서 터져 나온 국민적 반발은 조직과 집단에 억눌렸던 자아의 분출이요, 더 나아가 체육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기폭제가 됐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등한시됐던 과정의 중요성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지없이 떠올랐다.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던 야구와 축구가 극명한 희비쌍곡선을 그리며 이 같은 국내 체육 문화의 변화를 그대로 입증했다. 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말이 많았던 야구가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대를 받은 건 물론, 아시안 게임 이후 재개된 리그 흥행에서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성적이 모든 걸 덮어 준다는 과거의 체육 프레임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체육 문화의 결정적 변화를 입증하고도 남았다.

그동안 체육은 무척 많은 걸 국민에게 선물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적 자부심이라는 정신적 가치는 체육의 위대함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 줬다. 그 결과 국제 대회에서 나타나는 경기력은 체육의 가장 큰 가치로 올라서며 체육의 다양한 가치를 압도하고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국제 대회 성적에 집착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비민주적·비인권적 수단조차도 정당화되곤 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더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유효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물론 지난날의 정책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새롭게 바꾸는 게 옳다.

영구불변의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체육은 아쉽게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둔감했다. 아니, 눈을 질끈 감았





다. 늘 결과에만 집착하는 한국 체육의 낡은 틀을 바꿀 때가 됐다.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체육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민의 의식 변화는 체육 개혁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체육 문화 변화를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의식은 체육 개혁의 든든한 발판이며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

엘리트 체육의 가치와 생활체육의 가치는 과연 충돌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둘은 이분법적 구도의 양자택일(兩者擇一)의 가치가 아니라 양단불락(兩端不落)의 상생의 가치다. 체육이 존재하는 한, 경쟁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 또한 무시되어선 결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다만 압축 성장 시대에서처럼 성적이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 인권 등 모든 게 무력화되는

시대는 지났다. 2018 아시안 게임은 한국 스포츠에 많은 점을 시사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를 지탱했던 패러다임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한 점이 가장 큰 교훈이다. 한국은 1998 방콕 아시안 게임부터 이어 온 6회 연속 종합 2위 달성에 실패했다. 일본에 종합 2위 자리를 빼앗긴 표면적 결과보다 더 뼈아픈 건 경기력 자체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국 체육이 향후 새로운 전략을 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할 만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실패를 에둘러 시인한 뒤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체육계를 이끄는 수장인 이 회장의 상황 인식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여전히 분리해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은 2016년 통합됐다. 이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따로 나눠 논하는 시대는 지났다. 두 분야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사고는 엘리트 체육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집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판단은 엘리트 체육의 가치가 폐기되고 폄훼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타자와 펼치는 경쟁이 스포츠의 본질적 구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체육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포츠를 통해 얻어지는 국민적 사기나 자부심 등 정신적 가치는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포츠 국가주의에 충실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처럼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승리가 지고의 가치로 떠받들어져서는 곤란하다. 엘리트 체육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시대정신에 맞는 공정성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그런 체육 패러다임이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다면 한국 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학교를 거점으로 한 엘리트 체육 패러다임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클럽 스포츠 패러다임이 한국 체육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2016년 단행된 체육 단체 통합은 바로 커뮤니티 중심의 클럽 스포츠를 한국 체육의 새 패러다임으로 만

들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보면 된다. 2018 아시안 게임의 실패는 한국 체육 패러다임의 시급한 전환을 요청하는 신호탄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엘리트 체육의 선수 공급 젖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절실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클럽 스포츠가 바로 그 답이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분절되지 않고 한데 어우러지는 새로운 체육 생태계, 그게 바로 한국 체육의 새로운 돌파구요 바람직한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체육 생태계에 선, 경기력에 따라 수직 계열화가 이뤄져야 하며 자연스레 최상위층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구조를 띠게 될 것이다.

학교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은 오랫동안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건너될 수는 없었다. 소수 정예를 배출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자를 양산하는 치명적 약점은 결국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육 지향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체육의 미래는 클럽 스포츠에 달려 있다. 클럽 스포츠를 통해 체육의 저변을 넓힐 수 있고 확대된 스포츠 공급지에서 출중한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순환 체육 생태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 열쇠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에서 가장 풀기 힘든 고리는 무엇일까? 아마도 학교 체육과 클럽 스포츠의 중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린 듯싶다. 두 분야는 상충되지는 않으나 자칫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적 선택을 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칫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과거의 학교 체육은 엘리트 선수 양성이 중심이 됐다. 그렇지만 바뀐 새 패러다임은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보다는 일반 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마땅하다. 즉 일반 학생을 스포츠의 가치와 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활동에 참여시키는 게 그 첫 번째 목표다. 클럽 스포츠는 일종의 심화 학습 단계라고 보면 된다. 학교에서 몸의 가치를 이해하고 체육 활동에서 행복을 느낀 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맞는 종목을 택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바로 클럽 스포츠의 단계다. 여기에선 고도의 기술적 습득을 요하는 개인 종목이나 특별한 스포츠 인프라가 필요한 종목에 입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체육 생태계를 구

축하게 되면, 시스템도 바뀔 필요가 있다. 대회의 전면적 개편은 불가피하다. 과거 한국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었던 전국 체육대회(전국 체전)가 이제는 한국 체육의 모순 구조의 응축체로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국 체전을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게 시스템 변화의 첫걸음이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 체전의 권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경기력 수준 또한 하향 평준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격년제 개최, 종목 축소 등 혁신적 방안을 통해 새로운 체육 생태계에 조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게 체육계 안팎의 공통된 주장이다. 종목별 대회 규모와 방식도 손볼 필요가 있다. 전국 규모의 대회보다는 학교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작은 대회를 지향하는 게 새로운 체육 생태계에선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축인 클럽 스포츠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의 변화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입시 지옥'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학교를 떠나 커뮤니티에 기반한 스포츠가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문제는 교육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클럽 스포츠의 활성화는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반영시켜 주는 입시 제도가 마련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각 대학이 체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체육에 재능을 보인 일반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 평가를 해 주는 입시 시스템을 갖춘다면, 일반 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도는 높아질 게 뻔하다. 소수의 운동 선수에게 적용되는 현행 체육 특기자 제도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며, 체육에 능력이 있는 일반 학생에게 가점을 주는 입시 제도는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제대로 가고 있는가?

글 고진현 사진 대한체육회 DB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따로 없다.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늘 각을 세우며 으르렁대고 있어 안타깝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 도종환)와 대한체육회(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심석희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불거진 '조재범 사태' 이후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론을 등에 업은 문체부는 체육회를 겨냥한 듯 민감한 사안을 거론하며 엘리트 체육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도종환 장관은 체육회가 가장 꺾끄럽게 여기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를 비롯해 합숙 훈련 폐지와 전국 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 폐지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꺼내, 양측의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서었다. 체육회도 이에 뒤질세라 지난 2월 11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기홍 회장은 "체육회와 KOC 분리 방안, 소년체전 폐지 등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종전과 달리 공식적 자세를 취했다.

이 회장의 태도 변화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면적 공세가 기존 체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음을 확인해준다. 엘리트 체육의 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듯한 도 장관의 발언과 체육회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KOC 분리를 건드린 건 사퇴 위기에 몰린 이 회장을 되살린 자충수였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한국 체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문체부와 체육회는 어찌 보면 체육 행정의 위·수탁 관계에 있는 막역한 사이이다. 그러나 둘은 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체육회는 재정적 측면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지녔고, 문체부는 체육회의 이러한 약점을 빌미로 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곤 했다. 특히 체육회가 각종 추문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면, 문체부는 체육 행정의 책임을 체육회로 미루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곤 했다.

이번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체육 행정을 책임지는 모습은 고사하고 체육회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전가의 보도도 꺼냈다. KOC 분리는 문체부가 체육회를 공격할 때 쓰는 전통의 압박 카드다. 책임져야 할 문체부가 체육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중성이 한국 체육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안팎의 냉정한 시선이다.

또한 한국의 체육 정책은 문체부뿐 아니라 교육부까지 관여하는 이원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학교 체육은 교육부, 그 밖의 체육은 문체부가 담당하는 이원화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고 책임성도 커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KOC 분리 움직임의 배경

체육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원래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율성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각국 NOC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만약 기관 대표를 정부에서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처지인데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림픽 헌장 제29조 4항(정부가 기타 공공단체의 NOC 임원 임명 금지)에 배치되는 건 물론 NOC의 자치권 유지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 제28조 6항에도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NOC의 자율성 문제는 앞으로도 큰 숙제다. 체육회 예산을 대부분 지원하는 정부가 체육회와 KOC 분리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KOC 분리의 명분과 현실의 장벽

정부가 KOC 분리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NOC의 자율성 조항에 저촉받지 않기 위해서다. 올림픽 헌장 제28조 6항엔 "각국 NOC는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며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는 것을 막는 정치적·법적·종교적·경제적 압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억압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NOC 승인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제재를 받게

돼 있다. IOC는 올림픽 무브먼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NOC 자율성 침해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정부로선 KOC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높다. 1960년대 KOC 분리가 빚은 갈등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수 육성권과 대회 파견권을 놓고 양 단체가 치열하게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소지가 지금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KOC 분리 반대론자들은 ▲ 체육 구조의 왜곡은 물론 갈등 증폭 ▲ 분리 운영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이중적 구조 초래 ▲ KOC의 대외적 이미지 추락과 국내 기반 상실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경계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이분법적 사고

KOC 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체육에 대한 분절적 인식이다. 2016년 체육 단체 통합을 통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한데 아우르는 새로운 체육 생태계를 구성했음에도, 아직도 두 분야는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을 뿐 화학적 결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아직 두 분야에 대한 골 깊은 편견에 사로잡힌 채 체육의 모든 문

제가 엘리트 체육에서 파생됐다고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갈등을 조장하고 획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문체부의 편향된 시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엘리트 체육이 경기력에 매몰되면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을 옹호할 생각은 추후도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쌓아 온 기적의 성과와 이를 위해 헌신한 체육인의 노고마저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매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엘리트 체육을 향한 문체부의 날 선 시각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쌓인 구원(舊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체육 단체 통합에서 불거진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두 조직 모두 이번 사태에서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처지인데도 약속이나 한 듯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바람직한 방향과 제언

체육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는 분절적 사고로, 엘리트 체육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와 발언은 많은 체육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경솔한 대응 방식이었다. 시대정신에 걸맞지 않은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도드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부정하고 한국 체육의 전통성마저 훼손하는 듯한 정부의 발언은 현명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문체부 장관이 언급한 소년체전 폐지, 병역 특례, 경기력 향상 연금 개편, 그리고 진천 선수촌 개방 문제 등은 체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대중과 여론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였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가치는 결코 충돌하는 게 아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양단불락의 가치다.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느라 놓친

체육의 본질적 가치는 많다.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시대에 맞게 고치고 살려 나가는 게 체육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이다.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고 교각살우의 자충수를 두지 않기 위해선 일단 냉정함을 찾아 차근차근 영킨 실타래를 푸는 자세가 절실하다.

지금의 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건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판에 박힌 대책을 체육 현장과 상의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이들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체육회도 문체부도 더는 현란한 수사학이 난무하는 신심 없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모습부터 보여 달라고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총체적 이해와 다양한 접근이 절실한 작금의 사태에선 타깃을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말고 다음의 세 가지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선 체육계 스스로가 대오각성해 체육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체육이 설 땅은 더는 없다. 두 번째로, 체육계의 제반 모순 구조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KOC 분리, 진천 선수촌 개방, 소년체전 폐지 등 체육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일체의 논의는 체육 개혁이라는 급한 불을 끈 뒤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논의 역시 관료나 정치인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줄 수 있는 체육인이 주도해야 함은 물론이다. 체육은 생각과 현장의 간극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체육을 권력 투쟁으로 여기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했다간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체육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그리고 땀방울이 배인 발걸음이 합쳐져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까다로운 분야다. ㉠

여전히 시대 변화 읽지 못하는 체육계, 폭력을 대물림

글 서완석 사진 shutterstock

2016년 역도 선수 사재혁의 국가대표팀 후배 폭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팔꿈치가 꺾여도 바벨을 놓지 않는 투혼으로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나 당시 폭력 사건으로, 사재혁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폭력을 비롯한 스포츠계의 4대악(성)폭력, 조직 사유화, 횡령 및 배임,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을 근절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운영하는 4대악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스포츠 폭력 관련 제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터진 빙상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에 대한 코치의 폭력은 성폭력까지 더해 체육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간의 폭력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권위적 조직문화와 서열문화는 유독 스포츠계만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대물림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포츠 폭력은 여전 ...

성적 압박이 심할수록 심각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 1월 발표된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스포츠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폭력 피해(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가혹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국가대표가 3.8%, 일반 선수가 26.9%였다. 그렇지만 2018년 연구에서는 국가대표가 3.7%, 일반 선수가 26.1%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로 감소했다.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피해 경험은 2016년 국가대표가 1.5%, 일반 선수가 3.0%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국가대표가 1.7%, 일반 선수가 2.7%로 나타났다. 국가대표 선수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0.2% 포인트 증가했으나, 일반 선수의 성폭력 경험 비율은 0.3% 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국가대표 선수 598명 중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선수는 10명(1.7%)으로 나타났다. 일반 선수의 경우 조사에 응한 1,069명 중 58명(5.4%)이 성폭력 피해 여부에 “있다.”라고 답했다.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 선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인 이창훈 한남대 교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피해 비중보다 일반 선수들의 피해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의 관리조차 받지 못한다.”라며 일반 선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대표의 경우 남자 선수는 1명, 여자 선수는 6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자 선수 4명은 성추행을 당한 적



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대체로 지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은 주로 접촉 기회가 잦은



이창훈 한남대학교 교수

숙소나 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선수가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1명으로 나타났다. 더욱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 58명 중 4명은 초등학생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일반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지도자(11%)보다는 선배(36%), 동료(26%), 후배(13%)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폭력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건 폭력에 무덤덤한 학부모의 반응이라는 점이다. 이 교수는 “성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는 학부모가 상당히 많았다. 강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부모가 용인하지 않겠지만, 다른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용인하는 태도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학부모도 자녀 피해 사실을 밝혔다가 자녀의 선수 생활에 영향을 받을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발 및 신고 절차를 제대로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내려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5대 프로스포츠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입단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15.9%(여성 응답자 중 37.7%, 남성 응답자 중 5.8%)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4.9%(여성 응답자 중 11.3%, 남성 응답자 중 1.7%)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 언어적·시각적·기타 성희롱은 12.7%(여성 응답자 중 33.0%, 남성 응답자 중 5.1%)로, ▲ 육체적 성희롱은 4.3%(여성 응답자 중 12.9%, 남성 응답자 중 1.0%)로, ▲ 온라인 성범죄는 1.1%(여성 응답자 중 4.0%, 남성 응답자 중 0%)로 각각 조사됐다.

성폭력 가해자는 선수의 경우 코칭스태프가 가장 많았고(35.9%), 그 다음은 선배 선수(34.4%)였다. 가해 장소는 화식자리가 가장 많았고(50.2%), 훈련장(46.1%)이 그 다음이었다.

문제부는 각 프로연맹의 상벌 규정을 개정해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가해자의 영구 제명을 추진한다.

강팀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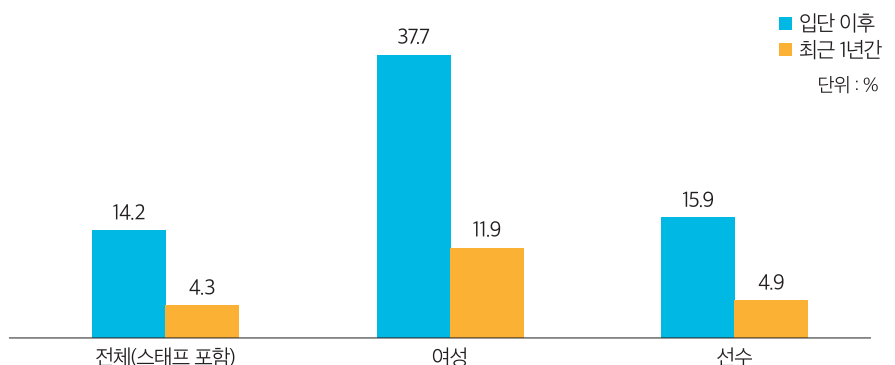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샘 워커는 2017년 역대 최고의 팀 16개를 추린 뒤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MLB(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1949~1953), 브라질 축구대표팀(1958~1962), 쿠바 여자배구대표팀(1991~2000), NBA(미국 프로농구) 샌안토니오 스퍼스(1997~2016), 스페인 라리가 FC 바르셀로나(2008~2013) 등이다. 이들 팀의 공통점은 뛰어난 지도자나 경영자가 이끄는 팀이 아니었다. 바로 뛰어난 주장이 리드하는 팀이었다.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 바르셀로나 카를레스 푸울 등 16개 팀 주장은 일곱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엄청난 끈기와 승부에 대한 집중력, 더티 플레이에 가까울 정도의 거친 플레이도 불사하는 투지, 뒤에서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희생, 인터뷰는 못하지만 실질적·민주적 의사소통, 행동으로 동료에게 동기부여, 할 말은 하고 동료는 보호, 완벽한 감정 조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폭력을 동반한 엄청난 훈련, 지도자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같은 것은 강팀의 조건에 아예 없다. ㉠

프로선수들도 스포츠 폭력에 예외 아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여성 선수 중 37.7%가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성폭력

프로팀 성폭력 피해 경험



‘미투 운동’, 태권도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사진 Shutterstock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게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다.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자행한 사실이 폭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와인스틴이 워낙 거물이었던 데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많은 여성이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 1월 현재에 있던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성폭력 실상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많은 배우, 작가, 정치인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의 성폭력 행위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사회 전방위로 번져 가던 미투 운동은 빙상계를 시작으로 체육계로까지 이어졌으며, 태권도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태권도 최고 스타 로페스도 성추행으로 피소

사실, 태권도계는 이미 미투 운동 이전에 성추행과 관련된 추문이 적지 않았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일부 태권도장에서 수련생에 대한 사범의 성추행 사건이 잇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며 태권도인들의 가슴을 쫄이게 하곤 했다.

이미 태권도계는 최고의 스타 선수가 성추행 파문에 휩싸이면서 세계 태권도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바로 미국의 스티븐 로페스다. 로페스는 세계 선수권 대회 5연패와 올림픽 2연패라는 전에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깨질 것 같지 않은 대기록을 세운 최고의 선수였다.

그런데 이 로페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태권도 선수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스티븐의 친형이자 미국 국가대표팀 코치를 20여 년간 역임한 진 로페스의 성추행도 함께 폭로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추문에 휩싸인 것이다. 로페스 가문은 장남인 진을 비롯해 스티븐과 마크 3형제뿐 아니라 누이인 다이애나까지 네 명 모두가 국가대표팀으로 활동해 온 명실상부한 미국 올림픽 태권도의 상징과도 같은 집안이다. 이 로페스 가문이 성추행 추문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미국 태권도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태권도계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태권도협회는 이들 형제에 대해 제명 및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선수 선발과 훈련 등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판단에 앞서 태권도계에서 주목하고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대표 선발, 훈련, 국제 대회 참가 과정에서 부당하며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가해자들이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폭로의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적극적·합리적 대처로 '미투 운동'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그러나 사실 여부와 별개로, 똑같은 언행에 대해 과거와 현재, 남자와 여자, 청년층과 노년층의 태도와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말과 행동이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성 관점에서는 사소한 농담으로 치부될 수 있는 말이 여성 처지에서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인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우리 때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아니 그런 것도 문제가 되냐?” 하는 식의 말들을 내뱉는 태권도인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 미투 운동에 연루된 한 태권도인은 자신이 그러한 일에 연관된 걸 이해할 수 없었다. 이 태권도인의 경우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무서운 말로 표현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술김에 내뱉은 한마디 말, 취중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했던 무의식적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다. 이 태권도인 처지에선, 수년 전 일이기에 난감하기도 하지만, 요즘의 시대 상황에서는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말하기도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다.

필자 역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심한 성적 농담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리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는 핑계로 쉽게 내뱉거나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은 이미 미투 운동이 터지기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도장 및 학교 등에서 실시되는 태권도 훈련을 지휘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펼쳐 왔다. 문제는 의식의 전환이다.

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은 “여성 태권도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우리 여성연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몽과 계도를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추행과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 태권도인이 남성 태권도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여성 전문 태권도장을 표방하며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은지 태권숭 태권도장 관장은 “뉴스를 보니 올해부터 2000년생이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 21세기 사람들인 거다.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 태권도장에서도 여자아이가 왜 태권도를 배우려고 하는지, 부모는 어떤 생각으로 딸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는지, 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필요가 있다.

일부 (태권도) 관장님들의 경우,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에 빠져계신 분들이 있다. 세상이 변한 만치 태권도장도 관장님들도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를 포함한 시도 태권도 협회도 태권도 지도자뿐 아니라 선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다.

현실의 변화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 태권도계가 미투 운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나선다면, 미투 운동은 태권도계를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종가’에 걸맞은 대풍을 꿈꾸며 씨앗 뿌려

진천 선수촌 = 글 최규섭 사진 양택진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가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종가의 자긍심을 뽐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왼쪽부터 김동휘 의무 트레이너, 이창건 코치, 왕광연 코치, 신경현 코치, 최진미 코치, 나연희 의무 트레이너, 신재현 코치, 김형수 전력분석관, 이석훈 코치.

“용기와 겁은 기세에서 오고, 강함과 약함은 태세에서 온다(勇怯勢也 強弱形也·용겁세야 강약형야).”(『孫子兵法』兵勢篇『손자병법』병세편)

손자(손빈)는 고금에 드문 - 어쩌면 으뜸의 -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손자가 설파한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孫子兵法』謀攻篇 손자병법 모공편)는 2,5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난 글귀의 전술이다.

손자는 기세와 태세를 중요시했다. 군대를 잘 조련해 기세를 높이고 태세를 갖추면 전장에 나가 뜻대로 승패를 다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곧, 승리를 쟁취하려면 이에 통달한 장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군을 잘 움직이는 장수가 태세를 나타내면, 적군이 반드시 이에 따른다.”라고 말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손자는 장수를 전쟁에 있어서 근본 원칙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리고 장수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지혜·신의·

인애·용기·위엄을 제시했다. 그만큼 장수를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 요소로 보았다.

‘종가’를 이끌 장수 자리, 영광과 책무가 공존

한국은 ‘태권도 종가’다. 성가에 걸맞은 역량을 길러 사해에 떨쳐야 종가로서 자존심을 곧 추세할 수 있다. 그만큼 태세를 갖춰 기세를 높일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닦달하며 정진해야

한다. 위의 덕목을 함양한 지도자의 필요성과 중대성에 다시금 방점이 찍히는 배경이다.

이 맥락에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임에 신중을 거듭한다. 저변이 넓은 한국 태권도는 지도자 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태극 전사를 이끌 장수를 뽑을 때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KTA도 신경을 곤두세운다. 옥석을 가려 능히 종가의 명망을 드높일 지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심과 각축의 혼재 속에서, 낙점을 받은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종가를 이끌 장수로 뽑힌 지도자는 영광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감에 시달린다. 종가의 장수로서 언제 어디에서든 최고의 전과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린다. 곧, 영광의 밝음과 책무의 어둠이 공존하는 자리가 한국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직이다.

실리를 좇아 구성된 코칭스태프, 독특한 색깔 입히려 힘써

“어려운 관문을 돌파한 느낌이다. 그런 만큼 기쁘고 감격스럽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지금까지 쌓고 지켜 온 종가의 명성에 부끄러운 흠을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이 든 것도 사실이다.”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지난 1월 말 새로 구성됐다. 9명으로 이뤄진 코칭스태프는 선임된 소감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 코치 6명(이창건·왕광연·신재현·이석훈·신경현·최진미) ▲ 의무 트레이너 2명(김동화·나연희) ▲ 전담팀 1명(김형수)으로 이뤄진 코칭스태프는 선임된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극 도령’(8명)과 ‘태극 낭자’(8명)의 조련에 들어갔다. 지난 2월 17일부터 진천 선수촌에 훈련 캠프를 차리고 “태권 한국의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프로필 및 각오

※ 최종 학력(대학교 학부 또는 학위 취득 연도)→ 주요 경력 순

코치



이창건

한국체육대학교(1984)
1986 아시아 선수권 대회 금
2004 아테네 올림픽 코치
1999-2015 세계 선수권 대회 코치
서울시청 감독(현)

“당면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이어 최종 과녁인 올림픽에 비중을 둔 체제로 전환해 훈련할 계획이다. 사전 맞춤형 대응 훈련을 철저히 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몸 상태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중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체력과 기술을 갈고닦으며 삼자가 서로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조금도 빈틈없는 국가대표팀을 만들고 싶다. 늘 돌발 변수를 경계하고 대비해 목표 달성이 한 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다.”



왕광연

조선대학교(석사·2005)
1983 세계 선수권 대회 금
2007 세계 선수권 대회 코치
조선대학교 코치(현)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소통은 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돼야 할 덕목이다.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다. 지도자와 선수가 한마음 한뜻을 이룰 때, 그 융합된 힘이 으뜸의 결실을 올릴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원 팀(One Team)’의 기치 아래 똘똘 뭉쳐 과녁에 적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최상의 경기력은 심적으로 뒷받침될 때 나타난다고 본다. 선수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티프를 제공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겠다.”



신재현

단국대학교(박사·2014)
1989 월드 게임 금
2005-2015 세계 선수권 대회 코치
한국가스공사 감독(현)

“2016 아제르바이잔 월드컵 단체전 이후 3년 만에 국가대표팀을 다시 가르치게 돼 감회가 깊다. 그런 만큼 올 한 해 종가 태권도의 위엄과 명성에 걸맞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 첫 무대로, 눈앞에 닥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기필코 2020 도쿄 올림픽을 기약하는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맘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도 아직 올림픽 티켓을 따지 못한 남자 -80kg급에서, 박우혁(한국체육대학교)이 우승해 희망봉(도쿄)에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을 이루고 싶다.”



이석훈

동아대학교(박사·2012)
2002 아시아 선수권 대회 금
2018 아시안 게임 코치
동래구청 감독(현)

“2019 세계 선수권은 2020 올림픽의 시금석 무대로, 사기 진작 측면에서 무척 중요한 대회다. 그 바탕을 다지는 데 일익을 맡고 싶다. 강한 체력이 뒷받침될 때, 최고의 기술이 구현된다. 운동 생리학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과학적 체력 훈련을 접목해 훈련 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이다. 그 맥락에서, 심폐 지구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자료를 데이터화하려 한다. 갖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의 피지컬 능력을 지표화하고 관리해 체력 향상을 꾀하겠다.”



신경현

경희대학교(1997)
2001-2005 세계 선수권 대회 금
고성군청 코치
세계태권도연맹 강사

“가장 먼저 중주국 대표선수로서 자부심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를 알려 주고 싶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선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반복적으로 자신을 일깨울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낮은 데서부터 높은 곳으로 차근차근 올라서려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려 한다.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조금씩 수순을 밟다가 중간에 생각지 못한 걸림돌에 걸리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슬럼프에 빠지고 나아가 자신감을 잃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순리를 따르고 싶다.”

성가를 드높이겠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과녁에 적중키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신체제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이번에 크게 바뀌었다.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치렀던 김종기 체제의 코칭스태프 중 세 명(이석훈·김동휘·나연희)만 남았다. 그것도 코치진에선, 이석훈 코치만 유일하게 뽑혀 현 지도자진에 합류했다. 대폭적 물갈이로 아주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 코칭스태프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내려고 힘쓰는 자연스럽게 비친다.

새 진용으로 짜인 지도자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감독’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사실 ‘감독’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제의 잔재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감독과 코치로 구분한 코칭스태프를 구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일 정도다. 심지어 일본조차도 감독과 조감독으로 호칭한다. 스포츠 무대에서, 각 국제 경기단체는 통용어인 영어로 ‘코치(Coach)’와 ‘어시스턴트 코치(Assistant Coach)’로 구분한다. 굳이 찾자면, 일부 국가나 팀에서 감독 개념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헤드 코치(Head Coach)’를 쓰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기존 체제의 감독은 경기 때 코치석에 앉아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태권도 특성상 코칭스태프는 다수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수직적으로 통할할 존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KTA는 창립(1961년) 이래 감독 제도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세컨드를 보지 않는 감독은 코치 정원을 축낼 뿐이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다. 그렇다면 명분뿐인 감독직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실리를 좇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번 코칭스태프는 종전에 비해 한 명이 늘어난 여섯 명 모두 코치석에서 작전을 지시한다. 당연히 각 코치가 맡는 선수 수가 줄어들

었다. 선수 관리 및 작전 운용이 한결 원활해졌음은 물론이다.

2019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실리를 향한 걸음 더 나아갔다. 9명씩이나 되는 현 체제가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위해선 일사불란한 체계도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에 국한해 코치진을 통할할 존재인 수석 코치를 자체적으로 뽑았다. 이에 따라 가장 연장자이며 선배인 이창건 코치가 이 소임을 맡게 됐다.

아울러 효율적 선수 관리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6명의 코치를 세 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남녀 국가대표를 조련키로 했다. 왕광연·신재현·이석훈 코치가 남자 국가대표 8명을, 이창건·신경현·최진미 코치가 여자 국가대표 8명을 각기 전담하는 방식이다.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훈련, 최상의 결실 밀거름

틀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중지를 모아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과녁을 정한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이를 적중시킬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멀리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내다보고 내세운 과녁은 세 개다. 세계 선수권 대회→월드 그랑프리 시리즈→올림픽이 코칭스태프가 쫓으려는 ‘세 마리 토끼’다.

당면한 표적은 오는 5월에 열릴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다. 올림픽 다음으로 랭킹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G12(120점) 무대에서 거둔 전과가 2020 올림픽의 결실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 초점을 맞춘 구상도는 이미 완성했다. 4단계로 짜인 로드맵이다. 첫 단계(2월)는 기초 준비 과정으로, 장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 몸을 만드는 시기다. 맞춤형 훈련 과정인 2단계(3월)에선, 체력을 기르

며 대도 전자호구 적응력을 키우려 한다. 3단계(4월)는 기술 완성 과정으로, 역시 체력을 양성하며 아울러 개개인의 기술을 보완하고 주특기를 가다듬는 기간이다. 마지막 4단계는 적응 훈련 과정으로,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서 마무리 훈련을 가짐으로써 선수가 최상의 몸 상태로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부터는 영상 분석을 통한 선수별 맞춤 훈련을 병행한다. 일찌감치 이 훈련에 돌입할 수 있는 데엔, 타당한 근거가 있다. “3월 31일이 1차 엔트리 마감일이다. 그렇긴 해도 라이벌 국가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대략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나라가 선수층이 얇아 메이저 대회에 모습을 보이는 선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창건 코치의 말에서 읽을 수 있는 까닭이다.

타깃은 ‘물론’ 남녀 모두 종합 우승이다. 종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다. 1973년 창설돼 2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가 스물세 번(남자부 기준) 치러지는 동안, 한국은 스물한 번 정상에 올랐다. 2011 경주, 2015 헬라빈스크 대회에서만 이란에 패권을 내줬다. 여자부에선, 한국이 절대 지존이었다. 1987년 발원해 열여섯 번 열린 마당에서, 한국은 열다섯 번 홀로 정상에 거닐었다. 2009 코펜하겐 대회 때 중국에 한 번 우승을 내줬을 뿐이다. 이 같은 역대 전적에 비춰 화살이 자연스레 종합 우승을 겨누고 있음은 명확하다.

코칭스태프가 심중에 마련한 화살은 남녀 각 세 개씩이다. 그러나 이창건·왕광연 코치는 선수들의 사기에 미칠 영향을 꺼려 구체적으로 화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왕 코치가 “여자 선수들은 무척 섬세하다. 그날, 심할 경우 오전과 오후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력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데서, 마음속에 묻어 둔 이유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패권을 다투려는 나라는 어디일까? 이 코치는 “남자부에선, 이란·러시아·아제르바이잔·영국이 경계 대상이다.”라고 전망했다. 왕 코치는 “여자부에선, 홈코트의 영국을 비롯해 중국·터카·스페인에 맞수로 손꼽힌다.”라고 예상했다. 두 코치는 “세계 태권도 수준이 갈수록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 각 대륙마다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라며 종가의 명예를 짊어진 부담감을 구태여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렇긴 해도 과녁에 명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아울러 나타냈다. 자신감의 발로는 선수 구성에서 비롯됐다. 두 코치 모두 한결같이 장밋빛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경험과 패기가 어우러진 선수단 구성을 내세웠다.

“올해 새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은 신구가 조화를 이뤘다.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남자 배준서(-54kg급)·장준(-58kg급)·박우혁(-80kg급), 여자 박혜진(-49kg급) 등은 이미 주니어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이 검증된 선수들이다. 이들이 성인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리라 기대한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나면, 정복해야 할 제2(월드 그랑프리·6~12월)와 제3(올림픽)의 고지가 잇달아 닥친다. 그 걸림돌을 어떻게 견어 낼 수 있을지 묘방을 맨체스터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과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며 버른다.

“종가에 어울리는 풍성한 수확을 결실하겠다. 기필코 맨체스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프로필 및 각오

※ 최종 학력(대학교 학번 또는 학위 취득 연도)→ 주요 경력 순

코치



최진미

한국체육대학교(석사·2009)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금
중국 신장(新疆)성 대표팀 코치
영국 국가대표팀 코치

“코칭스태프로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태극 도복을 입고 선수로서 활동하던 시절보다 더욱 사명감을 느낀다. 다른 지도자분들과 합심해 역대 국가대표팀 최상의 성적을 내고 싶은 열망과 의욕이 솟구침은 그런 까닭에서일 듯싶다. 영국 국가대표팀과 중국 신장(新疆) 웨이우얼(維吾爾) 자치구 대표팀을 이끌며 쌓은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그 노하우가 한국 태권도가 나래를 활짝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의무 트레이너



김동휘

괴테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박사·2015)
한국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세계태권도연맹 스포츠
테이핑 강사(현)

“선수들이 생각지 않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며 한다. 물론 훈련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면 최대한 빨리 복귀해 훈련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엔 코칭스태프가 일선됐다. 지난해와 다른 지도 철학과 방식이 대표팀에 적용되리라 본다. 따라서 대표선수들이 이를 잘 수용하고 그에 맞춰 훈련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



나연희

부산 가톨릭대학교(2007)
한국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아시아태권도연맹 안티도핑·
의무분과 위원(현)

“지난해 겪었던 곤혹스러움을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처음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다 보니 경험이 많지 않아 부상·치료·재활·훈련 일지를 제대로 문서화하지 못함으로써 많이 애먹었다. 정보의 문서화에 따른 과학적 토대 없이 보강 훈련 프로그램을 편성한 안일한 태도가 자초한 부끄러운 결과로, 효율적 재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괴감이 든다. 올해엔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한다.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각종 데이터의 문서화에 신경 쓰겠다.”

전담팀



김형수

명지대학교(석사 재학)
파푸아뉴기니 국가대표팀
테크니컬 코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전략 분석 코치

“인간은 저마다 다른 성장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지도 방식이나 선수의 경기 스타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경기를 해석하는 방향과 이해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연유다. 이 시각에서, 지도자와 선수 간의 경기 해석 차이를 좁히고 상호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싶다. 이를 토대로, 어떻게 상대를 뜻한 대로 공략할 수 있을지 합일점을 찾는, 지도자와 선수가 서로의 생각을 밝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데 힘쓰겠다.”

맨체스터 아레나에 휘몰아칠 ‘태극 전사’ 16인의 출사표

글·사진 양택진

‘태권도 종가’ 한국의 기량을 만방에 뽐낼 결전의 무대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런던, 버밍엄과 함께 영국 3대 도시라 불리는 맨체스터에 자리한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19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지난 2월 11~12일 경상남도 창원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19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뚫고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단 16명의 남녀 대표선수는 이미 출사표를 가슴에 품었다. 10년 연속 국가대표 타이틀을 지킨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은 통산 다섯 번째 세계 선수권에 출전해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MVP 이아름(고양시청)은 영국의 자존심이자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제이드 존스와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취약 체급인 남자 -80kg급에는 신예 박우혁(한국체육대학교)이 출사표를 던졌고, 선배 김태훈(수원시청)을 뛰어넘어 첫 세계 선수권에 도전하는 장준(한국체대)은 전 세계 경량급 최강자로서 새로운 등극을 준비하고 있다. 그 면면만으로도 술한 화젯거리를 예고하고 있는 한국이다. 맨체스터 아레나서 펼쳐질 결전의 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16명의 태극 마크 주인공들을 만나 보자.

‘10년 독재자’ 이대훈으로 시작해 이대훈으로 끝난다

이대훈은 ‘태권도 독재자’다. 2010년 광저우(廣州) 아시안 게임 최종 선발전에서부터 시



이대훈(오른쪽)은 10년 국가대표의 역사를 완성했다.

작해 이후 10년의 세월 동안 같은 체급 선수들에게 이대훈은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자(?)였다. 이대훈이 남자 -58kg급부터 -63kg급을 거쳐 -68kg급에 이르는 동안, 그 어떤 선수도 같은 체급 국가대표 1진 타이틀을 넘보지 못했다. 한국 태권도는 이대훈이라는 보물을 얻었지만, 같은 체급 선수들에게는 기약 없는 10년이었다.

라저스트, 대도, KPNP 등 그 어떤 전자호구도 이대훈에게는 핑계가 되지 않았다. 슬로우 스타트에 이어 빠르게 상대의 몸통으로 꽂혀 들어가는 이대훈의 발은 헤비급 선수의 파워에 필적했고, 완벽한 거리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스텝과 강력한 체력에서 뿜어내는 압박과 경기 운영, 그리고 그만의 전매특허인 상체 수비 움직임은 단연코 압권이다.

이대훈은 2011 경주 세계 선수권을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세계 선수권에서 세 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5년 첼라빈스크 세계 선수권에선, 전자호구 송수신 오류로 연패가 무산되었지만, 다섯 번 연속 이 대회 출전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맨체스터 대회에서, 남자 -68kg급 세계

랭킹 1위(2019년 2월 기준) 이대훈은 랭킹 2위 아흐마드 아부가우시(요르단), 3위 알렉세이 데니센코프(러시아), 4위 황위런(대만), 8위 브래들리 신든(영국) 등과 메달 색깔을 놓고 경합을 펼칠 전망이다.

“연패(霸) 기록은 끊어졌으나, 국가대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대훈이다. 그의 독재는 맨체스터에서도 이어질 것인가?

세계 선수권 MVP 이아름, 존스와 재격돌

호사다마(好事多魔)다.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여자 -57kg급 준결승전서, 올림픽 랭킹 1위(당시) 제이드 존스를 완발 머리 내려차기로 침몰시킨 이아름은 우승과 함께 MVP에 선정되며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활짝 여는 듯했다. 그러나 2018년은 이아름에게 시련의 시기였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몸속에 염증이 생기며 통증을 유발하는 강직성 척수염이 발병해 끊임없이 이아름을 괴롭혔다. 게다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후 음주 운전이 적발돼 일순간에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아름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가 주사를 놓으며 고통의 시간을 견뎠고, 참회의 시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으로 재기를 알렸다. 이번 최종 선발전에선 신장 180cm의 김유진(서울체고)이 세대교체 가치를 높이 들고 고교(서울체육고등학교)와 대학(한국체대) 선배인 이아름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나 이아름은 김유진의 타점 높은 오른발 공격을 스텝과 완발로 봉쇄, 최종 재결승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언니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아름은 올림픽 랭킹 2위로 시드 2번이 확정적이다. 우승 관건은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존스를 어떻게 요리하느냐다. 고향에서 아직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한 세

계 선수권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존스를 상대로 이아름은 다시 한 번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강화군청의 두 보물 김민혁·배준서, 몸통 공격 불뽕는다

강화군청은 올해 최종 선발전서 겹경사를 맞았다. 창단 후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그것도 두 명씩이나 배출했다. 주인공은 바로 배준서와 김민혁이다.

배준서는 2016 버나비 세계 청소년 선수권, 2017 아티라우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강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강화군청에 입단한 배준서는 최종 선발전서 경이로운 몸통 공격 득점을 퍼부으며 남자 -54kg급 판도를 단숨에 흔들었다. 특히, 비교적 단신(172cm)임에도 강한 체력과 깔끔한 몸통 공격으로 180cm 안팎의 상대들을 압도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배준서보다 1년 앞서 강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화군청에 입단한 남자 -63kg급 김민혁은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어도 이번 최종 선발전서 강한 체력과 승부 기질로 서재하(용인대학교)를 누르고 맨체스터행을 확정지었다. 배준서는 아르민 하디포그 세이그할라니(이란), 람나롱 사웨크위하리(태국)와 경합이, 김민혁은 자오샤이(趙帥·중국)와 격돌이 각각 예상된다. 강화군청 쌍끌이 보물이 다시 한 번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아름(왼쪽)은 노련미로 세대교체를 막아 냈다.

이다빈, 삼파전 뚫고 첫 세계 무대... 도쿄로 시선 고정!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태권도를 시작한 이다빈(서울시청)이 결국 세계 무대에 선다. 울산 효정고등학교 3학년 때 2014 인천 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다빈은 어느새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67kg급 자동 출전권 고지까지 근접했다. 지난해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결승전서, 이다빈은 올림픽 랭킹 1위 비안카 워크덴(영국)의 턱을 왼발 돌려차기로 시원하게 가격하며 여자 +67kg급 올림픽 경쟁 구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발전에선, 오혜리(춘천시청)와 명미나(경희대학교)와 여자 -73kg급 국가대표 타이틀을 놓고 삼파전이 전망된 가운데, 명미나와 최종 재결승전 골든 라운드 명승부를 펼치며 첫 세계 대회 도전장을 손에 넣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첫 경기서, 나래차기를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오른팔 부상을 입었지만 간절함으로 최종 선발전 관문을 뚫었다.

“힘들게 잡은 기회인 만큼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는 이다빈, 그의 발 끝에 2020 올림픽 여자 +67kg급 한국의 자동 출전권이 걸려 있다.

임금별·김다영, 4년 만에 다시 세계 무대로

여자 -53kg급 임금별(한국체대)과 -62kg급 김다영(인천광역시 동구청)이 2015 첼랴빈스크 세계 선수권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이 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1996년 세계태권도연맹(WT)이 세계 청소년 선수권을 별도로 창설한 후, 임금별은 최연소 챔피언으로 등극한 기분 좋은 추억이 있다. 임금별은 2005년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

2019년도 한국 국가대표팀 프로필 및 세계 선수권 대회 각오

(※ 이름→체급→생년월일→학력소속→태권도 입문→주특기→주요 입상 경력→각오 순)

배준서	남자 -54kg급 2000년 12월 25일 강화중학교→강화고등학교→강화군청 9세 접근전 얼굴 및 몸통 공격
------------	---

2016 세계 청소년 선수권 1위, 2017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1위, 2018 제주 코리아 오픈 1위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펼쳐질 시상식 맨 위에 태극기를 걸겠다.”

장준	남자 -58kg급 2000년 04월 16일 홍성중학교→홍성고등학교→한국체육대학교 11세 내려차기, 뒤차기
-----------	--

2016 버나비 세계 청소년 선수권 1위,
2018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1위,
2018 우시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1위

“첫 세계 선수권 출전이다. 2020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민혁	남자 -63kg급 1999년 11월 12일 구월중학교→강화고등학교→강화군청 9세 왼 앞발, 접근전 오른발 공격
------------	---

2018 전국 체전 1위, 2018 국가대표 선발전 2위

“국제 대회는 처음이다. 내 스타일로 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고 싶다.”

이대훈	남자 -68kg급 1992년 2월 5일 한성중학교→한성고등학교→용인대학교→ 한국가스공사→대전광역시체육회 5세 얼굴 돌려차기
------------	---

2011, 2013, 2017 세계 선수권 1위, 2010, 2014,
2018 아시안 게임 금, 2012 런던 올림픽 은,
2016 하우(리우) 올림픽 동

“다섯 번째 출전으로, 네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좋은 팀워크를 이뤄 꼭 남녀 동반 우승에 힘을 보태겠다.”

김지석	남자 -74kg급 1998년 5월 20일 한광중학교→풍생고등학교→한국체육대학교 7세 뒤차기, 주먹 공격
------------	---

2017 전국 체전 1위, 2018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2위

“사람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편견을 다 깰다.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도전할 것이다.”

박우혁 남자 -80kg급
2000년 4월 29일
평원중학교→강원체육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
7세
앞발 내려차기

2018 전국 체전 1위, 2018 대만 프레지던트컵 1위

“패기 있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해 꼭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이선기 남자 -87kg급
1996년 4월 12일
삼례중학교→전주 영생고등학교→
경희대학교→전주시청
14세
왼 앞발, 오른발 뒤차기

2018 대통령기 1위, 2018 전국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2위

“주위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예상을 깨고 우승할 것이다.
두뇌 플레이로 외국 선수들과 겨루겠다.”

인교돈 남자 +87kg급
1992년 6월 27일
8세
상단, 뒤차기 공격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2위,
2016 아시아 선수권 1위, 2017 세계 선수권 3위

“세 번째 세계 선수권 출전이다. 집중해서 금메달을 따겠다.”

심재영 여자 -46kg급
1996년 9월 14일
안화중학교→부천정보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고양시청
10세
왼발 돌려차기

2017 세계 선수권 1위, 2018 제주 코리아 오픈 1위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보여 주겠다. 한 경기 한 경기 집중
해서 꼭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다.”

박혜진 여자 -49kg급
1999년 7월 30일
일동중학교→국제고등학교→조선대학교
9세
오른발 상단

제8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1위, 제99회 전국 체전 1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력을 길러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려 한다. 꼭 1등 하겠다.”

안새봄 여자 +73kg급
1990년 2월 13일
11세
앞발, 접근전 공격

2011 세계 선수권 2위, 2017 세계 선수권 3위

“세 번째 세계 선수권 출전이다. 정말 1등을 하고 싶다. 그
나 욕심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목표를 이루겠다.”

마의 날’을 제정하며 독도 영주권 침해 논란
이 일자, 아버지가 본적을 독도로 옮겨 ‘독도
소녀’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그가 4년 만
에 두 번째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꿈꾼다.

김다영 역시 4년 만에 한 체급 올려 세계 선
수권에 다시 도전한다. 절친 하민아(삼성 에스
원)와 함께 2015 첼라빈스크 대회에 출전
했던 김다영은 여자 -57kg급 메달 입성에는
실패했다. 한국체대를 졸업한 후 인천광역시
시 동구청에 입단한 김다영은 발끝 힘과 경
기 운영이 더욱 좋아졌다. 김다영은 “4년 전
세계 선수권의 아쉬움을 털고 싶다.”라고 말
한다. 이렘 야만(터키), 루스 그바그비(코트디
부아르), 마르타 칼보 고메스(스페인)가 이 체
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다영
의 오른발이 4년 전 아쉬움을 씻어 낼 수 있
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장준·박우혁,

“세대교체 주역은 바로 우리”

2016년 종별 선수권 남고부서 혜성처럼 등
장한 장준이 이렇게 빨리 김태훈을 뛰어넘
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해 버나비 세계 청
소년 선수권서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한국
경량급 유망주로 지목받은 장준이 이번 최
종 선발전 남자 -58kg급서 세계 선수권 3연
패의 김태훈을 돌려세우고 첫 세계 선수권에
도전한다.

전매특허인 왼발 머리 내려차기와 뒤차기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모습을 각인시
킨 장준은 올림픽 랭킹 5위에 자리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 자동 출전권 한 장이 걸
린 우시(無錫)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
리즈서도 누적 포인트 1위로 김태훈에 앞서
있다. 장준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선
수권은 정말 중요하다. 최선의 준비를 해 꼭 1
등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취약 체급인 남자 -80kg급에서도 셋
별이 났다.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국체대로 진학한 박우혁이 그 주인공이다. 왼
발 거포인 키 192cm의 박우혁은 남궁환(한국체
대)을 제압하고 세계 선수권에 출전한다. 몸싸
움의 달인인 남궁환과 맞서서도 침착하고 센
스 있는 경기 운영으로 첫 세계 무대에 도전하
는 박우혁이 그동안 한국이 기를 펴지 못했던
이 체급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교돈·심재영·안새봄·김잔디, 세 번째 세계 선수권 출전

인교돈은 2011 경주 세계 선수권에 용인대 1
학년으로 출전해 예선 탈락했다. 이후 2014
년 림프암 선고를 받고 수술과 함께 시작된
여덟 번의 항암 치료에 시달렸다. 그러나 인
교돈은 자신을 믿어 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한 후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머리
카락이 빠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
이 났지만,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시작으로 ‘3회전의 마법사’라는 별명과 함께
2017 무주 세계 선수권에 다시 등장했다. 도
쿄 올림픽 출전이 거의 확실시되는 수준까지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통산 세 번째 세계 선
수권 출전에서 첫 금에 도전한다.

월등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여자 헤비급의
기대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던 안새봄(춘천
시청)은 2011 경주 대회서 2위에, 2017 무주
대회서 3위에 각각 올랐다. 아직 세계 선수권
금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다. 최종 선발전서
엄광홍 코치와 완벽한 호흡을 이뤄 또 한 번
의 기회를 잡았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
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안새봄이
세계 선수권 첫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여자
+67kg급 올림픽 자동 출전권 경쟁에서 이다
빈과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된다.

김잔디(삼성 에스원) 역시 세 번째 세계 무대

에 선다. 2013 푸에블라 세계 대회엔 여고생으로 출전해 고배를 마셨고, 2017 무주 대회선 3위에 올랐다. 느릿느릿한 행동으로 국가대표팀에서 곧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는 김잔디는 오른발 앞발 머리 내려차기로 첫 세계 선수권 정상에 도전한다.

누르 타타르(터키), 로렌 윌리엄스(영국), 장명위(중국)와 각축전이 예상된다. 올 2월 기준 올림픽 랭킹 7위에 올라 있어 이번 세계 선수권 결과에 따라 5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헤리와 벌일 여자 -67kg급 올림픽 자동 출전권 경합의 교두보를 굳힌다.

심재영(고양시청)은 2015 첼라빈스크 대회부터 세 번째 세계 선수권에 도전한다. 최종 선발전서 일찌감치 패자 부활전으로 밀려났던 심재영은 격전을 치르며 세 번째 세계 선수권 티켓을 손에 넣었다. 2017 무주 대회서 1위를 차지한 심재영은 이번 맨체스터 대회서 사실상 경쟁 상대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허약 체급인 여자 -46kg급에 출전한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결과에 따라 김소희(한국가스공사)와 도쿄 올림픽 자동 출전권 경쟁의 발판을 만들 수 있어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기·김지석·박혜진, 반전 주인공 노려

2017 무주 대회 정윤조(용인시청), 2015 첼라빈스크 대회 하민아, 2013 푸에블라 대회 차태문과 김유진(이상 은퇴).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계 선수권 깜짝 금메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1위를 하리라 믿었던 선수가 탈락하는 것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선수가 종종 있다.

남자 -87kg급에 선발된 영생고등학교 출신 이선기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전주 시청에 입단했다. 영생고에서도 전주시청에

서도 세계 선수권 대표는 이선기가 처음이다. 왼 앞발과 뒤차기 공격이 주무기인 이선기는 최종 선발전을 앞두고 체력에 방점을 뒀다. 경기 중 습관적으로 힘이 부치면 무릎을 짚고 쉬어 가던 이선기가 이번 최종 선발전에서 단 한 번도 경기 중 무릎을 짚지 않으며 변길영(동아대학교)과 최종 재결승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위에 올랐던 까닭이다. 전주 시청 입단 후 일주일 만에 세 번씩 꾸준히 웨이트 훈련을 한 결과다. 센스가 남다른 이선기가 야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까지 얼마나 체력을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남자 -74kg급서는 김지석(한국체대)이 칼을 갈고 있다. 김지석은 “항상 사람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도 나를 향한 기대치는 높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나 혼자만의 목표를 잡고 묵묵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돌진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6년에 풍생고등학교가 전국 대회 종합 우승 7회 달성의 위업을 이룰 때 주역인 김지석의 장점은 주먹과 뒤차기 몸통 공격이다. 투지가 넘치는 풍생고 선배 김훈(삼성 에스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지석은 넘치는 투지를 바탕으로 남자 -74kg급 세계 선수권에 도전한다.

여자 -46kg급서 선발된 박혜진(조선대학교)은 사실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주인공이다. 2016 하우(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소희(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오른발 상단 공격으로 흐름을 가져가며 맨체스터행 좌석의 한자리를 차지했다. 2015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우승자로, “절대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박혜진이 맨체스터에서 빠니뻑 왕빠따나깃(태국), 우징위(吳靜鈺·중국)와 어떤 승부를 펼칠지에 벌써부터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임금별



여자 -53kg급
1998년 6월 23일
전남체육중학교→전남체육고등학교→한국체육대학교
12세
왼발 돌려차기

2015 세계 선수권 1위, 제99회 전국 체육대회 1위,
2017 하계 유니버시아드 2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아름



여자 -57kg급
1992년 4월 22일
성내중학교→서울체육고등학교→한국체육대학교→고양시청
5세
왼발 몸통 공격, 주먹, 그리고 열정

2014 아시아 선수권 1위,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금, 2017 세계 선수권 1위, 2018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1위

“막연히 우승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완벽한 우승을 준비하겠다.”

김다영



여자 -62kg급
1995년 7월 25일
순천 남산중학교→서울체육고등학교→한국체육대학교→인천광역시 동구청
7세
오른 앞발

2015 국가대표 선발전 1위, 2016, 2017 전국 체육대회 1위,
2018 제주 코리아 오픈 1위

“4년 만에 온 기회인 만큼 준비 잘해서 이번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뒤통스.”

김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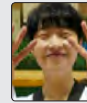


여자 -67kg급
1995년 7월 24일
금곡중학교→부천 정보산업고등학교→용인대학교→삼성 에스원
7세
오른 앞발 내려차기

2017 세계 선수권 3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2위

“매 경기가 힘들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 잘해서 꼭 1등을 하겠다.”

이다빈



여자 -73kg급
1996년 12월 7일
옥동중학교→효정고등학교→한국체육대학교→서울시청
14세
주먹 공격, 접근전 공격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1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

“한 번도 세계 선수권 대표로 선발된 적이 없었다. 힘들게 잡은 기회다.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

창녕서 휘몰아친 태극마크 세대교체와 판도 변화

창녕 = 글·사진 양택진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아성에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도도한 새 시대의 물결이 득달같은 밀려들며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일대신인환구인(一代新人換舊人)' -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한 시대의 새사람이 옛사람을 교체한다' -는 말을 연상케 했다.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에 본격적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인가? 그 징후는 지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19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나타났다.

장준·배준서·김민혁·박우혁, 세대교체 주역으로 떠올라

세대교체의 움직임은 남자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선두 주자는 자타 공인 세계 최강 김태훈(수원시청)을 뛰어넘어 오는 5월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출전 티켓을 거머쥔 장준(한국체육대학교)이다.

이번 최종 선발전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체급은 단연코 남자 -58kg급이었다. 2016 버나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표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과 우시(無錫)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를 휩쓸며 올 2월 기준 올림픽 랭킹 5위까지 도약한 장준. 올림픽 랭킹 1위로 2013 푸에블라 대회, 2015 첼라빈스크 대회, 2017 무주 대회까지 세계 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김태훈. 맨체스터를 향한 두 선수의 각축은 2020 도쿄 올림픽을 향한 명분이 걸린 운명



이대훈(오른쪽)의 플레이 모습에선 어떻게 국가대표 1진 10년의 역사를 완성했는지 엿볼 수 있다.

의 싸움이였다.

승자 결승전서 3:2로 승리해 김태훈을 패자 부활전으로 떨어뜨린 장준은 최종 결승전마저 8:5로 이겨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태훈의 강력한 체력과 오른발 압박에 맞서 장준은 승부처마다 왼발 머리 공격으로 득점을 뽑아내는 승부사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생애 첫 세계 선수권 출전을 확정 지었다.

'Game Changer' 장준의 승리로, 돌의 2020 도쿄 올림픽 최종 선발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남자 -54kg급에서도 새로운 스타 탄생이 예고되었다.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대표 출신의 배준서. 강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1월 1일 강화군청에 입단한 배준서는 소속 팀에 창단 첫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특히 이번 최종 선발전은 대도 전자후구가

사용된 이유 때문인지,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돌려차기 몸통 공격이 잘 먹히지 않았다. 그러나 배준서는 달랐다. 8강전을 35:15(점수 차), 준결승전을 24:8, 승자 결승전을 국내 선발전 사상 최다 스코어 차이로 있는 62:12 등 모두 낙승으로 장식하는 놀라

운 몸통 공격을 선보였다. 배준서는 최종 결승전에서마저 이민영(인천체육고등학교)을 43:21로 가볍게 제압하며 세계 선수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완성했다. 특히, 아무리 남자 최경량급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단신인 배준서(172cm)가 180cm에 가까운 선수들을 상대로 군더더기 없는 몸통 공격을 펼쳐 보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했다.

김민혁은 배준서와 함께 '신에 반란'을 일으켰다. 배준서의 강화고 1년 선배로 한솔밥(강화군청)을 먹는 김민혁은 남자 -63kg급 승자 결승전서 김태용(경희대학교)과 골든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최종 결승전에선, 서재하(용인대학교)에게 37:9로 앞서며 기권을 받아 내 소속 팀에 겹경사를 안겼다. 김민혁은 한국 태권도의 레전드 이대훈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 않아도 힘이 세

서 까다로운 스타일"이라며 이미 유망주로 점찍은 바 있다.

또 한 명의 세대교체 주역은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한국체대로 진학한 남자 -80kg급 박우혁이다. 2017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1위 출신의 박우혁은 2016년 충남 전

“세대교체 어렵었다” 이아름, 첫 세계 선수권 출사표 던진 이다빈

여자부서는 노련한 선배들이 당찬 후배들의 도전을 막아 냈다.

여자 -57kg급에서, 이아름(고양시청)이 올해

리, 이다빈, 명미나의 삼파전이 예상된 가운데, 오혜리가 3위로 밀려나고, 이다빈과 명미나가 최종 재결승까지 가는 경기를 펼쳐 경기장을 달궜다. 극적 승부의 최종 승자는 이다빈이었다.

10년 태극마크 역사 쓴 ‘태권도 천재’ 이대훈

남자부서는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고, 여자부서는 노련한 선배들이 수성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은 한국 태권도 사상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듯한 10년 국가대표 1진의 역사를 완성했다.

2010 광저우(廣州) 아시안 게임 최종 선발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표 1진에 첫 선발된 이대훈은 2011 경주 세계 선수권, 2012 런던 올림픽, 2013 푸에블라 세계 선수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2015 첼라빈스크 세계 선수권, 2016 히우 올림픽,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이어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에 나갈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까지 석권하며 자타공인 한국 태권도의 새 역사를 썼다.

특히, 이대훈은 최종 선발전을 앞두고 훈련 중 왼쪽 낭심이 터지는 부상으로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밥조차 풀지 않은 채 경기기에 출전해 1위에 오르는 독심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술한 화제를 뿌리며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16명의 태극 전사. 이들이 오는 5월 15일부터 닷새간(일수 기준)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펼쳐질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스토리는 이미 시작되었다. 올해 선발된 16명의 태극전사는 오는 5월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꿈꾸며 지난 2월 17일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에 들어갔다. ●



장준(오른쪽)은 올림픽 랭킹 1위 김태훈을 물리치고 거센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켰다.

국 체전 당시 무패를 자랑하는 풍생고 남궁환(현 한국체대)을 잡는 파란을 일으키며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그래서 올해 선발전에서도 박우혁과 남궁환의 대결에 당연히 관심이 쏠렸다. 왼발 거포인 박우혁은 고교 1학년 때 전국 체전서 몸싸움에 정평이 난 남궁환을 상대하기 위해 레슬링부에서 특별 훈련을 한 바 있다. 이번 최종 선발전을 위해 강원체고 인근에 방을 얻고 마지막까지 몸을 불사른 박우혁은 세대교체 주역 명부에当之无愧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한국의 취약 체급인 남자 -80kg급에서, 신장 192cm의 박우혁은 첫 세계 무대에 도전하며 그 가능성을 확인할 발판을 만들었다. 여기에 남자 -74kg급서는 한국체대 김지석이 고교 선배인 김훈이 지켜온 이 체급 국가대표 타이틀을 넘겨받고 첫 세계 무대 도전장을 손에 넣었다.

서울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체대에 진학하는 김유진과 벌인 맞대결에, 가장 관심이 쏠렸다. 신장 180cm를 훌쩍 넘는 김유진은 타점 높은 오른발 머리 공격을 주무기로 이 체급 세대교체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신은 이아름의 손을 들어 줬다. 스텝, 왼발 압박, 그리고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친 이아름이 최종 재결승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해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MVP 주인공임을 증명했다.

여자 -46kg급서는 지난해 최종 선발전서 파란을 일으킨 강보라(성주여자고등학교)가 재차 이변을 예고했으나 결국 세대교체를 완성하지 못하며 탈락했다.

여자 -73kg급서는 2016 히우(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혜리(춘천시청)의 계보를 이다빈(서울시청)이 물려받았다. 당초 오혜

늘 깨어 있는 사범들, 밝은 앞날을 밝힌다

글 서완석 사진 안산 호동 태권도장 제공





오래전에 미국의 태권도장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조금 전까지 야외 운동을 함께했던 사범이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꽃단장’을 하고 나왔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제자와 학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땀방울이 큰 미국에선, 도장에 가려면 승용차로 1~2시간 걸리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녀를 동반한다고 했다. 실제로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직접 지켜보기 때문에, 사범의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태권도 수업이 늘고 있다. 승품·단 심사 과정을 지켜보고 승품·단에 성공한 기쁨을 스승, 학부모, 제자가 함께 나누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태권도 수업을 부모가 지켜보면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사기 양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태권도를 매개로 자식과 부모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마케팅 성공은 오히려 부수적 효과다.

태권도 사범이 어린이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 담임 교사 못지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도장은 신체 활동을 통한 면대면 인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담임 교사 이상의 영향을 아이에게 줄 수 있다. 도장 경영이 어렵다는데, 현장에서 항상 새로운 수업 방식을 고민하는 사범들의 노고가 눈물겹다. 이들의 수업 노하우는 바로 전세계 태권도장의 모델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늘 깨어 있는 관장과 사범의 노력이 있기에, 무예 태권도의 앞날은 밝다. ●

KTA 지상 강좌 지도법 <2>

태권도 기본기술 지도법 <2·끝>

글 강익필 KTA 강사 사진 「KTA 기본기술 지도법과 활용」 발췌 시범 KTA 강사진(강익필·안재로·설성란·엄재영·송남정)



강익필 KTA 강사

손기술 분류

태권도 품새에서 사용되는 손기술 중 방어와 공격 기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방어는 ▲ 막는 부위에 따라 아래, 몸통, 얼굴로 ▲ 방향에 따라 내려(아래)막기, 올려(얼굴)막기, 안막기, 바깥막기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공격은 ▲ 사용 부위와 방법에 따라 지르기, 찌르기, 치기와 ▲ 팔과 몸통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 직선,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한 방향, 나누기, 모으기 등으로 각기 나눌 수 있다. 태권도 품새의 움직임은 몸통의 회전 방향과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분한다. 지도자가 다섯 가지 몸 쓰임의 느낌을 선행 수련하여 뇌에 그 느낌을 전달하고 몸으로 익일 때 품새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1) 유급자 기본 익히기

가. 직선 동작

나. 밖에서 안으로 쓰는 동작

다. 안에서 밖으로 쓰는 동작

라. 나누기 동작

품새 기본 연습 1 유급자 과정(태극 1~8장)

방향에 의한 손동작 분류(몸통과 팔의 회전에 의한 분류)				
동작 유형	유급자			
	방어		공격	
기술 분류	한 팔	양팔(같은 방향)	한 팔	양팔
안에서 밖으로	· 내려(아래)막기 · (몸통) 바깥막기 · 손날 바깥막기 · 올려(얼굴)막기	· 손날 거들어막기 · 손날 거들어 내려(아래)막기 · 거들어 내려(아래)막기 · 거들어 (몸통)막기	· 등주먹 앞치기 · 메주먹 내려치기 · 등주먹 바깥치기	
밖에서 안으로	· (몸통) 안막기 · 바탕손 (몸통) 안막기	· 엇걸어 아래막기	· 손날 안치기 · 팔굽 돌려치기	· 팔굽 표적치기 · 체비품안치기
직선			· 두 주먹 젖혀 지르기 · 지르기(직선) · 찌르기(직선) · 당겨 지르기	
나누기	· 가위막기 · 외산틀막기 · 헤쳐막기(몸통, 아래)			
모으기	· 거들어 바탕손 (몸통) 안막기			

2) 유단자 기본 익히기

가. 직선 동작

나. 밖에서 안으로 쓰는 동작

다. 안에서 밖으로 쓰는 동작

라. 나누기 동작

마. 모으기 동작

품새 기본 연습 2 유단(품)자 과정(고려~십진)

방향에 의한 손동작 분류(몸통과 팔의 회전에 의한 분류)				
동작 유형	유급자			
	방어		공격	
기술 분류	한 팔	양팔(같은 방향)	한 팔	양팔
안에서 밖으로	· 손날내려(아래)막기	· 금강막기 · 금강몸통막기 · 거들어 (얼굴)옆막기	· 등주먹(얼굴) 바깥치기(근거리) · 팔굽 옆치기	· 멍에치기

방향에 의한 손동작 분류(몸통과 팔의 회전에 의한 분류)				
동작 유형	기술 분류	유급자		
		방어		공격
		한 팔	양팔(같은 방향)	한 팔
안에서 밖으로			· 손바닥 거들어 (몸통)바깥막기 · 바위밀기 · 등주먹 거들어 앞치기 · 손날 엇걸어 내려 (아래)막기 · 손날등막기	
밖에서 안으로		· 바탕눌러막기 · 끌어올리기 ※ 몸통 회전 분류	· 산틀막기 ※ 몸통 회전 분류	· 팔굽올려치기 ※ 몸통 회전 방향
직선				· 칼재비
나누기			· 안팔목 헤쳐막기 · 헤쳐 산틀막기 · 손날등 헤쳐막기	

3) 손기술 지도하기

- 모든 동작은 기술 용어를 복창하며 단계별로 지도한다.
- 두 팔의 힘과 속도의 균형이 같아야 한다.
- 모든 동작이 끝날 때 호흡은 단전에 집중되어야 한다
(발바닥은 지면에서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기술의 모양과 과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직선 동작(팔의 이동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감각 익히기)



직선 동작은 당기는 동작부터 지도하며, 팔목이 회전하고 나가고 들어옴의 감각을 수련한다. 또한 안쪽 팔꿈치와 바깥 팔목이 몸통의 옆을 반드시 스치며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나. 밖에서 안으로 쓰는 동작(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감각 익히기)



팔꿈치의 방향은 힘의 방향임을 알고 막았을 때 팔꿈치가 아래를 향하게 한다.

다. 안에서 밖으로 쓰는 동작(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동작 감각 익히기)



■ 안에서 밖으로(양팔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몸동작 감각 익히기)



라. 나누기 동작(양손 힘의 방향을 안에서 밖으로 나누는 동작 감각 익히기)



마. 모으기 동작(두 힘의 방향을 안으로 모으는 감각 익히기: 한수에서 나오는 두 메주먹 안치기는 모으기 동작의 대표적 기술 동작이다)



※ 몸 쓰임은 더 많으나,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다섯 가지 감각을 가르치면 품새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닫기(중심 이동 수련하기)

닫기는 방어나 공격 등 몸을 움직일 때 서기를 바탕으로 효과적 중심 이동 방법을 말한다. 닫기는 가볍고 활기차며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이어야 하고 또한 신속하며 민첩해야 한다. 닫기가 안정되지 못하면, 상체의 모든 동작이 안정되지 않아, 기술 발휘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무릎과 발목은 탄력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닫기는 중심 이동의 연속이다. 태권도에서 닫기는 모든 내닫기, 물러닫기 옆닫기, 돌아닫기, 모던기, 제자리닫기가 있다. 또 방법에 따라 잣은발, 미끄럼발, 빠른발 등이 있다. 돌아닫기는 ▲ 앞발을 축으로 안으로 밖으로 ▲ 뒷발을 축으로 안으로 밖으로 돌아닫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90°, 180°, 270° 등이 있다). 닫기는 공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원천이 된다. 아무리 손(팔)과 몸동작이 좋아도, 닫기가 받침이 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 닫기는 공방의 거리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닫기의 바른 방법



닫기는 발바닥이 지면을 스치는 느낌으로 감아야 하며 높이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닫기는 지면반력에 의해 먼저 지면을 밀어 힘을 물으로 전달한다. 이때 무릎의 활용이 중요하며 옮겨 닫는 발의 무릎은 중심을 지탱하는 발의 무릎과 같은 높이로 지면을 미는 추진력과 하리의 작용으로 무릎을 당긴다. 옮겨 닫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은 바로 서 있어야 하며 옮겨 닫는 발은 앞축 이후 뒤축이 지면에 닿도록 하는데 뒤축으로 바닥을 밟으면 안 된다.

닫기의 잘못된 방법



2, 3에서 중심이 앞으로 치우쳐 있어 균형을 잃고 있으며, 높이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다. 4의 경우 뒤축이 지면에 먼저 닿아 물에 충격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른 거리 조절이 쉽지 않게 된다.

돌아닫기

돌아닫기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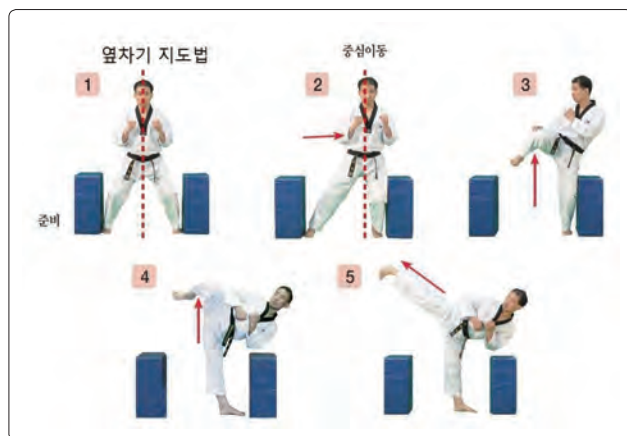
▶ 앞발(또는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
▶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을 옮긴다음의 균형유지.
▶ 중심선을 유지하여 하리의 탄력을 이용하여 방향을 전환한다.
▶ 앞발(또는 오른발)은 하리의 회전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앞꿈이 자세를 취한다.

차기

1) 앞차기



2) 옆차기



3) 돌려차기



※ 차기의 과정을 바르게 머리로 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서기의 지도 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펴기: 약 3초 정도 서서히 무릎을 접어 올리고 → 펴고 → 접고 → 무릎 접어
지면에 내려놓기.

펴기의 수련 목표는 뇌가 차기의 궤적(과정) 감각을 익히고 각 차기에 사용되는 근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② 차 멈추기: 첫 번째 동작에서 다리를 접어서 차고 목표에서 정지하여 멈
춘다. 약 3초 정도 멈추었다가 무릎을 접어 지면에 내려놓는다.

목표물에 힘을 전달하는 느낌을 익힌다.

③ 차기: 모든 동작을 연결하여 찬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동작이 끊어지
지 않도록 한다.

④ 사각 백을 사용하여 중심 발을 지나기 전 차는 발 무릎을 접어 올려 찰 수
있도록 가르친다.

KTA 지상 강좌 경영법 <2>

승품·단식(式)을 통한 승품·단의 가치 상승과 도장 성장



진재성 KTA 강사

글·사진 진재성 KTA 강사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순간을 이야기하라면,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합격해 품 띠 받는 순간을 꼽는 이가 아주 많을 듯싶다. 일선 도장 수련생에게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 중 하나가 바로 승품·단 심사다. 수련생은 승품·단 심사에 합격하고 품 띠를 받으면 무척 기뻐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칭 수련생 부모에게 승품·단 심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심을 수 있는 심사비 관련 뉴스가 보도될 때면 도리어 곤혹스러움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마치 일선 지도자를 죄인처럼 대하는 언론과 일부 여론을 접하고 모멸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돼 태권도 지도자로 살아온 날을 후회하는 관장과 사범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승품·단식의 필요성

우선 지도자는 승품·단 심사를 부모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승품·단 심사 자체를 비용에 국한해 생각하는 언론과 일부 부모를 소비자라 생각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심리를 이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남성의 로망 가운데 하나인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이의 심리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비싼 오토바이를 구입해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매하는 게 아닐까? 꼭 막힌 도심을 떠나 탁 트인 대지를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많은 여성이 샤넬 No. 5 향수를 구매하는 이유도 한 번 엿보자. 향기가 좋아서? 명품 화장품이라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이 향수를 사용했을 때 풍기는 자신의 이미지와 부푸는 자존감을 구매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가격, 장소, 편의성 등...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가치(Value)다. 상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에 큰 가치를 느낀다면 비용과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승품·단 심사를 소비자인 부모에게 어떤 상품의 가치로 전달하고 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반문의 답으로, 필자는 승품·단식(式)을 준비하고 실행하였고, 그 결과 승품·단 심사의 가치 향상을 통해 도장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따

라서 이 과정을 일선 지도자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필자는 승품·단식을 통해 '가족 소통의 시간을 만드는 행복한 태권도장'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승품·단식을 준비한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승품·단식을 통해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녀는 승품·단의 기쁨을 자기 다짐의 예식을 통해 '자기를 이기는 시간'을 가지며 지도자는 제자의 행복한 성장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며 태권도장의 사회적 소임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승품·단 심사에 대한 비용과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승품·단식을 치른 수련생은 승품·단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유품·단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게 돼 장기 수련생으로 이어진다. 곧 승품·단식은 '건 강한 도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승품·단식 과정

1. 승품·단식 전 단계

- ① 승품·단 심사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 추도록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합격하면 승품·단식을 진행할 수 없다.
- ② 승품·단식에 사용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둔다(특강 시간, 심사장).



- ③ 승품·단식 안내문을 준비해 두고 승품·단 심사를 마치면 부모에게 전달한다.
 - ④ 승품·단 심사 이후 15일이 경과하면 국민 홈페이지 단증 발급 처리 현황에서 응시자 현황을 캡처해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며, 다시 한 번 승품·단식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 ⑤ 승품·단식은 승품·단 심사 다음 달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주 평일에 진행한다.
 - ⑥ 초대장, 각 품별 교재, 행사 준비물, 도복, 띠, 송판, 기왓장, 편지, 영상 등을 준비한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 예행 연습을 통해 예상 시간, 예상 동선 등을 점검해 두어야 한다.

2. 승품·단식 당일

- ① 당일 안내 문자를 한 번 더 전송한다.
- ② 식전 상영 영상, 수여할 도복, 격파물 위치, 부모 자리 배치 등을 동선에 고려해 준비한다.
- ③ 식 시작 10분 전에 모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 후 도장 홍보 영상을 상영해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④ 밝은 분위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승품·단 수련생을 경쾌한 음악과 함께 소개한다.
- ⑤ 3품·단의 경우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1분 내외).

여기서 포인트는 3품·단 합격 수련생의 부모가 자녀를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개하는 시

간이다. 지도자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라. 부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칭찬해 준 기억이 있는가? 추측건대 많지 않을 듯하다. 이 시간을 통해 3품·단 승품·단자의 자존감을 올려 주고 부모와 자녀 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3. 승품·단식 초반:

승품·단자의 '자기 다짐의 예식'

격파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을 기르며 자신감을 기르는 시간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견하게 느끼는 시간이며, 승품·단자는 자신이 해냈다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다.



1품·단은 18mm 송판을 손날로 격파한다.



2품·단은 25mm 송판을 앞차기로 격파한다.



3품(단)은 25mm 송판을 뒤차기로 격파하고 기왓장 25mm 3장을 위력 격파로 깨뜨린다.

- 격파는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상비약을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한다.
- 격파물에는 부모의 바람을 쓰게 되는데, 격파 전에 의미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예. “눈으로 읽고, 머리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자신을 이기는 시간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한 것이다.”
- 격파를 완파하지 못하는 승품·단자를 중단시켜 포기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 격파를 완파할 때까지 기다리고 응원해야 한다. 완파할 때까지 진행하는 지도자, 바라보는 부모,, 동료 승품·단자 모두 불안하고 안타깝겠지만 완파 후 완파자의 희열과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이를 통해 승품·단식 '자기 다짐의 예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된다,

4. 승품·단식 중반 ①:

도복 수여와 띠 수여식 진행

-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툰다.

- 부모가 직접 도복을 수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때 특히 이동 동선에 신경 쓴다.
- 띠는 지도자가 직접 매어 준다. 이때 띠를 제대로 매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해 준다.
- 이후 부모와 함께 촬영 시간을 갖는다. 도장에 준비된 카메라로 촬영하지만, 부모의 핸드폰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건 어떨지...



5. 승품·단식 중반 ②:

스승에 대한 감사 예식

하얀 띠부터 1품→2품→3품의 각 과정을 지켜보며 가르친 지도자에 대해 수련생이 큰 절로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며 지도진과 한 명 한 명 포옹하는 시간이다. 지도진은 덕담하고, 승품·단 수련생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6. 승품·단식 후반: 부모에 대한 감사 예식

놓고 기르며 한없는 사랑을 베푼 부모에게 승품·단식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낭독해 드린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맞춤법이 틀려도 사랑하는 자녀가 직접 읽는,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가득한 편지 내용을 보고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 세족식을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도록 한다. 세족식 전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동적 영상 상영이나 글을 낭독하여 부모와 승품·단 수련생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한 후 세족식을 진행한다.



7. 승품·단식 마무리 ①

세족식 후 승품·단 수련생을 부모의 품에 안

기게 한다. '아버이 은혜'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한다. 부모와 승품·단 수련생 모두 각자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며 부를 수 있게 한다.

8. 승품·단식 마무리 ②

- 준비된 클로징 영상 또는 말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태권도의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비누는 모의 때를 벗기는 데 사용된다. 그렇지만 승품·단 수련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찌든 때를 태권도 수련을 통해 씻어냄으로써 바른 성장을 통해 세상의 때를 씻어내는 큰 인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비추는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모의 헌신적 사랑과 같다. 이 헌신적 사랑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

9. 승품·단식 마무리 ③

귀가 후 단체 특이나 문자를 통해 참석했던 부모에게 감사 인사, 자녀에 대한 칭찬, 앞으로 기대감과 진행 내용을 안내한다.



10. 승품·단식 이후

여운이 가시기 전에, 승품·단식에 참석한 부모와 승품·단자에게 승품·단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한다.

- 승품·단 수련생을 수련 시간 전에 여러 수련생 앞에서 소개한다.
- 참석한 부모에게 행사 영상과 사진을 개별톡이나 문자로 반드시 보낸다.
- 도장 SNS 계정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놓고 부모가 링크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장에서 보낸 개별 사진과 영상을 부모의 개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올려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좋다.
- 참석한 부모에게 설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승품·단식 효과

많은 지도자가 태권도장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양적 성장(수련생의 많고 적음)과 질적 성장(수련생의 태권도 기능의 잘하고 못함)을 주로 이야기한다. 필자는 태권도장의 성장을 다른 시각으로 제안하려 한다. 바로 가치 중심의 '건강한 태권도장 성장'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태권도장의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 지도자의 철학과 소신이 도장 운영 전반에 잘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모·수련생·지도자 모두 태권도장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규 수련생 증가를 위한 투자와 연구보다는 기존 수련생의 장기 수련을 위한 투자와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유급자의 비율과 유품자의 비율이 4:6 정도로, 유품자 수련생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 다섯째, 기능 중심의 수련 지도에서 가치 중심의 수련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련생은 수련의 만족감과 자존감의 향상을 통해 힘든 고비를 이겨 내고 태권도 수련을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며, 부모는 지도자의 도장 운영에 만족해 태권도장의 키맨(소개자) 역을 자처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지역사회에 도장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승품·단식은 바로 건강한 태권도장 성장을 위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 승품·단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과 소신이 느껴지는 시간이다. 또 수련생에게는 단순히 품 띠를 받는 기쁨에서 부모와 스승에게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리며 기쁨의 가치를 높이는 시간이며, 부모에게는 승품·단식 참여로 도장 운영에 참여한다는 느낌과 자녀가 태권도 수련을 통해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태권도 승품·단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다. 많은 부모와 수련생이 함께하는 공개 발표회나 공개 심사와는 달리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것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도장은 두 달에 한 번 승품식이 진행된다. 50회에 걸친 승품·단식을 열면서 어느덧 우리 도장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또 승품·단식에 참석한 부모의 적극적응원에 힘입어 지역사회에 우리 도장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수련생 유입과 장기 수련생 증가 덕분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태권도장의 모습을 이어 가고 있다.

승품·단식 강의를 듣고 여러 지도자가 각 도장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필자보다 더 근사하고 가치 있는 방법으로 승품·단식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을 듯하다. 누군가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 작은 성공 경험이 많은 지도자와 공유되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필자 개인적으로, 승품·단식은 치유의 시간이다. 스승으로서 제자의 행복한 성장을 바라보는 흐뭇함, 이를 함께 지켜보며 지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태권도 수련을 통해 무엇인가 해냈다는 기쁨을 부모와 스승 앞에서 자신감 있게 태권도로 표현하는 제자, 바로 이런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태권도 승품·단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함이 아닐까 한다. 🙏

※ 독자 가운데 승품·단식을 도장에 적용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bttkd@naver.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KTA 강사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직무 교육

재교육의 장에서 도장 활성화의 길을 구하다

천안 = 글 최규섭 사진 진재성 KTA 강사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한국 태권도가 추구하는 대명제다.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내건 기치로, 태권도가 실종돼 가는 일선 도장의 현실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구호다. 짧은 열두 자가 담고 있는 함의를 이해할 때 도장 나아가 한국 태권도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맥락에서, KTA가 기획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가 펼쳐졌다. 지난 2월 22~23일 백석대학교(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열린 2019 KTA 강사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직무 교육은 도장 활성화를 향한 고심의 깊이가 느껴지는 배움터였다. 올 한 해 도장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강의를 맡을 KTA 강사 50명이 모여 어떠한 콘텐츠를 어떻게 가르칠지 토의하고 이를 공유하는 현장에선, 뜨거운 숨결이 배어 나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꿈꾸기 힘든 광경이었다. “KTA가 도장 활성화에 앞장 서야 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실천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구상해 내놓는 태권도인은 적었던 시절이었다. 도장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도자 재교육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이를 충족시킬 강사가 전혀 없었다.

2007년, 비로소 실마리가 풀렸다. KTA가 태권도장 경영법 및 지도법 경진 대회를 창설하고 입상자를 뽑아 강사로 위촉하고 지도자 재교육에 나서며, 물꼬가 트였다. 3년쯤 뒤엔, 30여 명의 강사진이 구성되며 본격적으로 지도자 재교육을 통한 도장 활성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번엔 강사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사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새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갔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선보인 프로그램이 2010년 첫선을 보인 KTA 강사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직무 교육이다.

재교육의 장을 활용하려는 욕구의 강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에 부응키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주관하고 있는 KTA 도장사업부(부장 이종천)는 횡수를 늘렸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회씩 열었는데, 올해엔 2회(봄·가을 각 1회씩) 만남의 장을 베풀기로 했다. KTA 강사는 일정 수준 전문화 경지에 올라섰으며 아울러 교육 콘텐츠도 다양화·고급화

됐다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시장의 요구도 그에 비례해 높고 다채로워졌으니, 이를 충족시키려는 변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데서 취한 시도다. KTA가 강사 재교육과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마음가짐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해가 거듭되면서, 교육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질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엔 강사로서 지녀야 할 ▲ 말씀씨 ▲ 프레젠테이션 ▲ 예의범절 등의 함양에 주력했다.”라는 이종천 부장은 “이젠 외부 강사 초빙을 위시해 여러 형식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형식의 다양성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번에 운용한 분임 토의 방식도 그 한 가지다.”라고 밝혔다.

KTA 미래 인재(지도자) 양성 과정 증설도 같은 맥락이다. 종전 ▲ 성인부 활성화 과정 ▲ 사범·지도자 과정에 ▲ 도장 성장 과정 ▲ 실기 향상을 위한 지도자 과정을 더 만들어 다양한 시장 요구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KTA 강사들 모두 흡족해 했다. 진재성 강사(진스 블랙벨트 태권도장 관장)는 “같이 모이는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모두 기꺼이 함께해 각자의 성공 노후와 나름대로 연구 개발한 콘텐츠를 공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만족감이 넘쳐흐른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을 정도다.”라며 뿌듯해 했다.

이 부장은 “70세까지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수련생과 같이하는 당당한 사범이 높게 평가받는 풍토와 문화가 꽃피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같은 마음가짐에서였을까? 프로그램이 끝나며, 진지한 태도로 어우러진 강사진이 한목소리로 외친 구호는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내가 변해야 도장이 변하고, 도장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며, 가정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



“새 물결과 바람으로 태권도를 으뜸의 문화유산으로 남기자”

천안 = 글 최규섭 사진 진재성 KTA 강사



“여러분은 새로운 물결과 바람을 일으킬 주역이다. 그런 자긍심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 달라.”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이 ‘금지론’과 ‘사명론’을 주창했다. 태권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아가 태권도가 세계 무도계에서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지닌 역량을 다해야 함을 역설했다.

무대는 2019 KTA 강사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직무 교육 현장이었다. KTA 도장사업 부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준비한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 2월 23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가량 강연 형식으로 열린 자리였다.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당부드린다.” 한순간, 최 회장의 어조엔 비장미까지 풍겼다. 그만큼 위기에 처한 태권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헤쳐 나가 태권도를 중흥해야 한다는 시대론적 절박감을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엿보였다.

최 회장은 일선 도장의 자각이 고사 상태의 태권도를 회생시킬 수 있는 묘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처방전으로 세 가지를 제시

했다.

첫째, “태권도장엔 태권도가, 아니 태권도만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권도로 정면 승부를 걸어라.”라고 ‘맞불 작전’을 내세운 최 회장은 “이를 위해 그릇(태권도)에 담을 내용물(콘텐츠)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태권도장엔 땀이 있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밝혔다. “늘 ‘영원한 무도인으로 남겠다’고 스스로를 깨우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수련에 힘쓰지 않는 9단은 진정한 무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최 회장은 “사범과 수련생이 모두 같이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셋째, “사범은 사범다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 맥락에서, 최 회장은 “사범(師範)은 ‘남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를 말한다. 그 뜻에 걸맞은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모두 사범이 정당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신경 써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에 앞서 말머리에서, 최 회장은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태권도의 앞날은 ‘재미있는 태권도’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소신을 나타낸 최 회장은 “KTA가 그 실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겨루기·품새·시범을 태권도의 세 갈래로 든 최 회장은 새롭고 흥미로운 태권도가 싹틀 수 있도록 이미 씨앗을 뿌렸다고 밝혔다.

먼저 겨루기는 “재미있는 경기 방식으로 운영될 때 무도 스포츠계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백이면 백 모두 현재의 경기 방식에 의문을 나타낸다. 따분하고 싫증 나니 당연한 현상이다. 하루바빠 개혁해야 한다. KTA는 지난해 태권도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로, 올해 안에 그에 따른 시범 대회를 열려 한다.”라고 소개했다.

품새는 3월 9일에 열릴 2019 KTA 최강전에서 발아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지난 (2월) 20일 국기원에서 예심 무대가 펼쳐졌는데, 열기가 뜨거웠다. 결선 무대는 더욱 흥미를 자아내리라 전망한다. 왜냐하면 ▲ 관중 심사제 도입 ▲ KTA 사상 최초의 유료 입장제 채택(국내 대회 기준) ▲ 상금제 도입 등 신선하고 독특한 대회 방식이 눈길을 사로잡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시범에 대한 확고한 생각도 밝혔다. “KTA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이 각자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경쟁이 불꽃을 튀고 있다. 그에 따라 도약의 높이와 회전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시범자의 부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음악·무용·연극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 종합 예술로 승화시킬 때, 그 살길이 열린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태권도를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나아가자.”라고 당부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

도장 탐방 <7> 안산 호동 태권도장(체육관)

교육의 질로 승부, 전국 제일로 우뚝 서다

안산=글 박상욱 WTN 기자 사진 호동 태권도장 제공

경제 상황 악화, 인구 감소에 따른 수련 인구 감소 등으로 도장 경영이 녹록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도장 활성화 목소리가 커진 건 오래전이다. 도장 활성화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의 질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통 태권도로 교육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놀이 위주 지도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어떤 지도법이 맞다 틀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측 주장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지도하는 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런 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안산 호동 태권도장(체육관·관장 최재도)은 정통 태권도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까지 주고 있다. 수련생이 발차기를 비롯해 정확한 품새를 잘한다고 소문난 도장이다. 입소문을 타고 지도법을 배우러 전국,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이곳을 방문해 수준 높은 교육을 참관하기도 한다. 교육의 질로 전국 제일의 도장으로 우뚝 선 그곳을 찾아갔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때마침 30여 명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학생도 눈에 들어 왔지만,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태권도장 같았더라면 시끌벅적해야 정상일 텐데, 뛰어 노는 아이나 소리 지르는 아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미리 와 있는 아이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막 도장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신발을 가지런히 신발장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호동 태권도장을 찾아 수업에 참여하거나 수업을 참관한다.

에 놓고 도복으로 갈아입은 뒤 명상 대열에 조용히 합류했다. 수업 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찾아갔다. 질서정연한 모습이 타 태권도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아직 어린아이들임에도 절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느 도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자기 주도형 학습 ... 학습 주인은 '우리'

반갑게 맞아 주는 최재도 관장과 인사를 나눴다. 도장 분위기가 매우 달라서, 최 관장에게 정중히 "인터뷰는 천천히 하고 수업을 먼저 참관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수업은 명상에 이어 스트레칭으로 시작됐다. 대부분 도장이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몸을

푸는 준비체조를 하는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각자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하체와 골반을 푸는 스트레칭에 이어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발차기 동작을 반복하며 하체와 골반 근력 기르기에 들어갔다.

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유심히 보니, 연령층이 달랐다. 태권도 수준도 달랐다. "연령도 태권도 실력도 달라 보이는 데, 같이 수업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최 관장은 "아이들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최 관장은 이어 "자기 주도형 태권도 교육의 핵심은 경쟁과 서로를 관찰하는 습관이다. 선의의 경쟁을 펼칠 때 1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서로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타인을 관찰하여 서로의 실력 향상

정도를 체크하고 자극받아 새로운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기 주도 학습’은 교육계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본인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며 효율적 학습 전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학습법을 뜻하는 데, ‘이 학습 방식이 태권도장에서 가능할까?’란 의문을

복된 아이는 따로 모였는데, 실력 있는 선배가 지도자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가르쳤다. 선배 지도를 받은 아이는 다시 도전해 끝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수련생끼리 서로를 관찰하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해 보자는 동기 유발까지 이끌어 주는 것 같았다.



지난 2월 중순 제주도로 다녀온 ‘발차기 여행’에서, 한 수련생이 발차기를 하고 있다.

품고 계속 수업을 지켜보았다.

스트레칭이 끝나자, 수련생은 일사불란하게 조를 나눠 조별 자율 수련을 시작했다. 처음 본 도구 앞에,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서 수준에 맞게 세 개 조로 나눠 정렬했다. 이후 각 조에서 한 명씩 차례로 나와 도구를 활용해 발차기 수련을 시작했다. 지도자 도움 없이 수련생 스스로 수련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한 모습이었다. 동료 수련생에게 뒤처질까 경쟁하며 수련하는 모습도 역시 인상적이었다. 각자 목표치를 정해 놓은 듯했다. 목표치에 능숙하게 성공하는 아이가 있었는가 하면, 실패하는 아이도 있었다.

실패한 아이는 지도하는 사범이 뭐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시 도전했다. 실패가 반

수업을 참관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왜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려 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도자의 소임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이런 궁금증을 최 관장이 풀어줬다.

“아이들의 성취도를 크게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쟁이다. 따라서 경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도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경쟁을 잘 활용한다면 스스로 수련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아이들 스스로 수련할 때 수련을 즐기고 목표 의식이 명확해진다. 그러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즐기는 수련생은 지도자의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도전과 경쟁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점들을 아

이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자의 소임이란 의미였다.

최 관장은 부연 설명을 했다. “교육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다.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밟는다. 뜻대로 되면 그에 따른 즐거움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물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게끔 한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인성이 좋아지고 실력도 함께 좋아진다. 성인이 되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도자의 소임은 이런 게 아닐까?”

최 관장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점이 궁금해져 사무실로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구를 이용한 지도법

“저 도구들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다. 최 관장은 “정확한 발차기와 품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련 도구다”라고 밝혔다. 최 관장은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맨 먼저 고려해 도구들을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도미노를 이용한 발차기 수련법. 또 향초와 워터 팩 등을 사용하는 수련법도 있었다. 도미노를 이용한 수련법은 수련생 키보다 더 높은 곳에 도미노를 일렬로 세워 놓고 정확한 발차기 동작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하나씩 넘어뜨리며 중심을 잡는 수련법으로, 자세를 잡아 주고 교정해 준다. 발등에 도미노를 놓고 하는 수련법에 대해, 최 관장은 “발등을 퍼지 않으면 무릎이 구부러지는데, 발등에 힘을 주면 무릎이 퍼지며 다리도 쭉 퍼진다.”라고 설명했다.

액상 초를 사용하는 수련법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주먹지르기 수련법으로, 집중력과



수련 시간 중 선배 수련생이 후배에게 발차기를 지도하고 있다.



도미노를 이용해 발차기 수련을 하고 있다.



정확도를 향상시켜 준다. 최 관장은 “태권도 교육에 촛불 끄기가 있다. 양초를 사용하면 잘 꺼지지 않고, 촛농이 떨어지면 아이들에게도 위험해 액상 초를 생각해 냈다.”라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액상 초 제조업체를 찾아냈으나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최 관장은 업체 관계자를 설득해 남아 있는 제품을 사들여 아이들 수련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워터 팩을 활용한 수련법은 정확한 자세를 잡고 임팩트를 준다는 게 최 관장의 설명이었다. “아령이나 납 주머니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흐름이 없더라. 흐름이 없다 보니 끝점에 가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다. 워터 팩은 물이 안에서 흔들리고 쥐기까지 돼 잡는 게 된다. 그래서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처음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임팩트를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겨루기 출신으로 일반 도장의 특성을 전혀 몰랐던 최 관장이 어떻게 정확한 태권도 동작과 수련법 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갖게 됐는지 궁금했다. 최 관장은 “처음 도장을 열기 전에 2년간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 코치를 했다. 그때 이규형 단장님으로부터 태권도 동작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배우고 깨우쳤다. 도장을 개관하면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어서 절로 흥분되더라. 도장을 열고서도 이 부분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또 꾸준히 지도법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도구를 활용한 지도법은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흥미를 준다. 최 관장은 “우리 도장 수련생은 놀이의 즐거움보다 도구를 활용한 지

도법으로 자신의 성장에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태권도 수련은 결코 지겨운 수업이 아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 즐거운 놀이형 교육도 좋지만, 도구를 활용한 성취형 교육은 더욱 오랜 기간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다. 태권도 수련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바꾼다면, 수련생도 바뀌게 된다.”

도구를 활용한 수련법 효과는 컸다. 자기 주도형 학습과 함께 아이의 실력 향상을 배가시켰을뿐더러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승컵을 쓸어 담았다. 2017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서는 개회식 초청 시연을 펼친데 이어 창작 품새 4연패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도장 경진 대회에서 지도법 대상을 받기도 했다.

각종 대회를 싹쓸이하자, 자연스레 ‘도단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란 궁금증과 함께 최 관장의 지도법이 입소문을 타며, 전국 각지에서 수업 참관 문의가 쇄도했다. 국내 뿐만 아니다. 최근 태권도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도 지도자들이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세미나를 모집해서 지도법을 전수하고 있다.

“멀리서 여러 명이 안산까지 오셔서 도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1주일씩 수업을 참관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도 참관을 원하는 지도자와 수련생이 함께 우리 도장을 찾아오기도 했다.”



워터 팩을 이용해 동작의 정확을 높이고 임팩트를 주고 있다.

“호동 태권도장에 가면 태권도 제대로 배운다”

최 관장과 인터뷰가 무르익을 때쯤,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호동 태권도장을 찾아왔다. 이 학부모는 “‘호동 태권도장에 가면 태권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하기에 다니던 도장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는 다소 놀랐다.

최 관장은 “한 학부모가 찾아와 ‘이 도장을 다니기 전에 다른 도장에서 1년 이상 수련했는데, 태권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날이 드물었다’며 우리 도장으로 옮겨온 경우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최 관장은 학부모의 의식이 변해 가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님들이 도구를 활용한 지도법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 도장으로 옮겨 오곤 한다. 이 지역 학부모님들 사이에선, ‘호동 태권도장에 가면 태권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된다. 반면 아이들 사이에선, ‘호동 태권도장에 가면 힘들다’고 소문나 있다.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가끔 상담 중에 다음 같은 일도 일어난다고

했다. “저희 아이는 그냥 편하게 1시간 동안 놀다 오면 그만입니다.” 이런 경우 최 관장은 학부모와 아이를 돌려보낸다고 한다. 최 관장은 “태권도는 놀이가 아니다. 태권도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고 하는 말이다. 태권도 수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잘 모르는 듯싶다.”라고 말했다.

무계획으로 떠나는 발차기 여행

최 관장은 평소 아이들과 즐겁게 태권도 수련을 하는 게 꿈이다. 이런 소망에서 비롯됐을까? 최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종종 ‘발차기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발차기 여행에 대해, 최 관장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몇몇 수련생과 함께 여행을 떠나 경치 좋은 곳을 배경 삼아 발차기도 하는 등 태권도를 수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무계획’이라고 말하나, 실은 한 달 전부터 ‘발차기 여행’에 참여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아이들 전부가 발차기 여행을 가는 건 아니다. 약 한 달 전부터 경쟁했다. 예를 들면 발차기, 주먹치르기 경기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점수를 준 뒤, 나중에 합산 점수를



최재도 관장

토대로 10여 명을 모아 발차기 여행을 떠나곤 한다. 해외도 나갈 때도 있다. 지난 2월 중순엔, 제주도로 발차기 여행을 다녀왔다.”

발차기 여행 목적에 대해, 최 관장은 “자연을 벗 삼아 아이들과 즐겁게 태권도를 수련하고 소통까지 하기 위함이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밝혔다.

최 관장은 새벽에 아이들과 함께 남산 타워도 간다. 이른 새벽에 아이들과 남산 타워를 오르면서 도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녀온 영상을 보니,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뛰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다. 걸으면서 아이들은 고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도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인터뷰 말미에, 최 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태권도 수련은 결코 지겨운 수업이 아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 즐거운 ‘놀이형 교육’도 좋지만, ‘성취형 교육’은 더욱 오랜 기간 즐거움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 태권도 수련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그 생각을 먼저 바꾼다면 수련생이 바뀐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 도장 경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는 엄청난 우수성을 지닌 무도다. 제대로만 가르치면 효과는 어떤 교육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태권도 본연의 우수성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



액상 초를 이용한 지도법은 동작의 정확성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여성 태권도 발전과 진흥 이끌어 나갈 ‘매력 있는 당찬 리더’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태권도 사범! 기호 3번 김지숙입니다.”

2019년 1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7대 한국여성태권도연맹(KWTF)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지숙 후보가 선거인단에게 인사를 했다.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그는 자신의 소신을 당차게 밝혔다.

“우리는 KWTF가 가장 어려울 때 초석을 만들어 주신 이등자 전 회장님과 서용문 전 회장님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를 삼아 KWTF를 더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뭔가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KWTF가 필요한 일들을 반드시 해내는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이날 그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회원이 중심이 되는 목표를 삼고 정기적으로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회원 소통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둘째,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KWTF 대회의 위상을 높이겠다.

셋째, 여성 지도자를 위한 도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단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넷째, 도장특별위원회와 선수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또 여성 우수 지도자를 선발하여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후원회를 조직



해 KWTF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다섯째, 새 시대에 맞는 정책과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KWTF 회원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이윽고 진행된 투표 결과, 그는 선거인단(15명)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1월 21일 김지숙 회장을 인준했다.

김지숙 회장은 누구?

김지숙 신임 회장은 정통 태권도인이다. 중학교 1학년 때 태권도에 입문해 고등학교 1학

년 때부터 겨루기 선수 생활을 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타고난 근성과 성실함, 그리고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기대주가 됐다.

1985년 5월, 경희대 1학년이었던 그는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선수 생활을 한 지 3년 만에 올린 개가였다. 국기원 경기장에서 열린 1985년도 여자 국가대표 선발대회 라이트급에 출전한 그는 정유정(대한유도대학)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이은경(진명여고)에게 적극적 공격을 펼쳐 1위를 했다. 그는 ‘저돌적 공격형’ 선수로 평가받았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줄곧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지만, 막상 졸업하자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여자 선수를 위한 실업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태권도장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서울 강서구에 도장을 개설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도장을 열었어요. 수련생 한 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도장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힘차게 기합 소리를 지르도록 교육했어요. ‘너희들은 내 제

영하면서 제자들과 학부모들에게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또 KWTF 초창기 멤버로 이사, 전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런 태권도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성 태권도 발전을 위해 쌓아 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봉사하고 싶었다. 물론 주위에서 권유해서 심사숙고 끝에 출마했다. 그동안 태권도를 하면서 누리고 싶었던 것과 목표했던 바를 모두 이뤘

“지구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섬세함을 모아서, 그 힘들이 크게 발산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태권도 겨루기 분야에 해박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여성을 비롯해 품새·시범·도장·교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여성 태권도인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면 여성 태권도뿐만 아니라 태권도 전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부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조언을 듣고 고견을 참고해서 KWTF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공약을 보면 우수 선수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수 지도자를 위한 기부금 조성 사업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해 줘야 한다. 회장으로서는 ‘기(氣)’를 팍팍 살려 줄 수 있는 장학 사업과 기부금 조성은 반드시 할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법조계·의료계 인사 등을 주축으로 후원회를 결성해 선수와 지도자가 당당하게 활동하는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 임기 중 꼭 실현하고 싶은 게 있을 듯하다.

“국내외 여성 선수가 참가하는 ‘태권도 국제 오픈 페스티벌(가칭)’을 창설해 엘리트와 생활체육(도장)이 한데 어우러지는 태권도 축제 한마당을 열고 싶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내 의지가 굳건한 만큼 여러 단체와 주위의 도움을 받아 착실히 준비하겠다.”

- 덧붙이고 싶은 말은?

“태권도인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KWTF도 마찬가지다. KWTF 회장으로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배울 수 있는 가치와 위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태권도인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신임 회장(앞줄 가운데)이 선거가 끝난 뒤 자신에게 만장일치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 준 여성 지도자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제공.

자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모토로 정말 열심히 지도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하는 걸까? 여성 지도자 최초로 ‘수련생 420명’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그 후 2012년 청년학사 태권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KWTF 전무이사과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진솔하게 일문일답을 주고받다

- KWTF 회장에 출마한 배경은?

“세계 정상에 올랐던 여성으로서 도장을 경

다. 이제는 태권도 발전에 봉사하고 이바지하는 게 태권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직까지 지치지 않는 태권도 열정이 있다.”

- 선거인단 15명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놀라지 않았는가?

“사실 깜짝 놀랐다. KWTF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여망이 대의원들의 표심에 들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공약대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KWTF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 공약을 다섯 가지나 발표했다. KWTF 발전을 위한 실질적 비전과 청사진이 궁금하다.

오리무중 국기원, 그 정상화 과정과 해결책은?

글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사진 태권도신문 제공

세계 태권도 본부를 자임하고 있는 국기원이 '정상(正常)'이 아니다. '비정상(非正常)'의 격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커져이 쌓였던 국기원의 폐단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다. 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면서, 갖가지 문제들이 분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제도 개선 일환으로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팀을 구성해 국기원 조직 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발표됐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국기원 개혁 및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이해 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비판이 일었다. 국기원 안팎에서는 국기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권도 관련 기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추천받고 공모 이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행부

그러나 국기원 집행부와 이사회는 구태를 반복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연말까지 국기원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등 기득권 챙기는 데에 급급했다.

12월 27일에 열린 이사회는 가관이었다. 정관 개정(안) 중에서 ▲ 이사장과 이사의 잔여 임기 보장 ▲ 이사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수정 ▲ 원장선출위원회 삭제 ▲ 복수의 후보자

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원장이 선임 ▲ 이사추천위원회를 이사장 추천 인사 5인과 외부 인사 8인으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철면피 이사회'라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이사들의 책임 회피와 더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김영태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노순명 전 이사를 사무총장 대행으로 지명한 데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기원 노동조합(직원 30명 가입)은 "유야무야 시간을 끌며 자신들의 임기만을 채우겠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국기원이 직면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사퇴하지 못한다 해도 사퇴 시기를 못 박고, 이사장이 직접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결의에 찬 입장을 표명했어야만



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기원 이사진이 총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 정상화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재무·황인식 이사는 사임하면서 “국기원이 무도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태권도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국기원을 성토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홍성천 이사장은 지난 1월 15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태권도 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빠를 낀 개혁을 통해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기원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후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이사회를 통해 원장후보선출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당면직 이사 등 현안을 보완할 제도에 관한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발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관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원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수원장과 원장직을 둘러싸고 야합과 담합설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싸늘해졌다. 특히 이사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째짜미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태권도신문』은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화를 해야 할 국기원이 되려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의적 책임에 따른 총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홍성천 이사장과 이사들이 국기원 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국기원 정상화 방안은?

격랑에 휩싸인 국기원을 정상화하는 방안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국기원 개혁을 외치고 있는 S 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나서서 국기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S 씨는 “국기원이 소생할 수 있는 열쇠를 문체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뒤,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국기원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이사장과 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에 관리단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고 ▲ 태권도인이 공감(인정)할 수 있는 새 이사장과 원장을 임명한 후 ▲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모로 이사들을 선임하고 ▲ 새 집행부를 출범시켜 국기원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기원은 대한민국의 태권도협회처럼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 부딪쳐 힘을 얻지 못했다.

“정부가 개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사장과 원장을 임명하자.”라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 누구나 공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계파와 인맥과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태권도계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이사장과 원장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문체부가 개입해 관리단체에 준하는 조치”라는 표현은 정부가 개입해 국기원을 관리단체로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해석처럼 들린다. 이는 태권도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외시한 자가당착적 발상이다. 적폐 세력과 결탁해 국기원을 이 지경으로 방치한 것도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상위단체가 개입해 국기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원활하게 국기원을 정상화하려면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신임 원장과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인적 쇄신을 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국기원 직원도 국기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직원이 정치적 논리에 함몰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기원은 정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3월 7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말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할 당시 밝힌 사안으로 태권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청회는 손천택 인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태근 국기원 발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새로운 정관 개정안의 핵심 내용 등을 발제했다. 태권도계 다양한 직종의 패널리스트 의견을 개진하고, 공청회 참석자들도 발언 기회가 있었다. ⑩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글로벌 위상 강화 사업에 본격 투자

글 서완석 사진 TPF 제공

올 예산 지난해보다 30% 증가

태권도진흥재단(TPF·이사장 이상욱)이 2019년 예산 303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태권도 지원 사업에 나선다. 2005년 TPF 설립과 2014년 태권도원 개설 이후 연 예산 300억 원을 넘기기는 상징지구건립예산이 잡힌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TPF는 지난 2월 27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8차 이사회를 갖고 지난해(233억 3,300만 원)보다 30.0%(70억 1,000만 원) 증액된 303억 4,400만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TPF 올해

예산액은 253억 원으로 잡혔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부의 태권도 진흥 및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ODA) 예산(40억 5,700만 원) 등이 국기원에서 이관되면서, 예산액이 크게 늘어났다.

증액된 예산 중 태권도 진흥 사업의 주요 내 용은 ▲ 주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태권도 교육(10억 원) ▲ 태권도 해외 활성 지원(7억 5,000만 원) ▲ 태권도 새품새 개발 및 보급(5억 원) ▲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5억 원) ▲ 태권도 문화 콘텐츠 육성(6억 원) ▲ 세계 태권도 유·청소년 캠프(2억 원) 등이다. 또 ODA 사업 예산은 ▲ 태권도 초청 연수(3억 원) ▲

태권도 용품 지원(1억 4,700만 원) 사업 등에 쓰인다.

이상욱 이사장은 “TPF가 목표로 한 사업에 맞춰 예산을 확보한 만큼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해 알차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본격화한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사업

태권도원 상징지구는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데 핵심 지구다. 태권도원 내 수많은 시설물 가운데 가장 한국의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한

기초 공사가 돼 있는 태권도원의 태권전 전경





명인관, 태권전 조감도(사진 위).
상징지구를 설명하는 이상욱 이사장.

옥으로 건립된다. '태권전'(363m)은 태권도인의 수련을 비롯해 고단자와 일반인의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명인관'(1,092m)은 고단자를 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상징지구 건립에 필요한 예산 176억 원은 이미 확보됐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20억 원, 국기원이 30억 원을 출연했다. 전라북도과 무주군이 각각 15억 원을 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70억 원이 들어왔다. 기부금도 26억 원이나 모였다.

2013년 기부금 일부로 홍살문과 회랑 등을 설치해 첫 삽을 떴던 상징지구는 2017년 12월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갔다. 올해 한옥의 목재 조립 및 기와 공사까지 완료되면 명인관과 태권전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내년엔 내부 마감 공사를 마쳐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상징지구 조성을 통해 태권도의 유·무형 가치를 태권도원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인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과 소임을 다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상징지구 조성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TPF는 상징지구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KTA,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이들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태권전은 기존 설계안을 준수하고 명인관은 수련과 명상 그리고 전시관을 갖춘 공간으로 일부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전시관은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곧 명예의 전당 전시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태권도 해외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태권도진흥법상 TPF의 핵심 업무는 태권도 진흥·보급·홍보다. 해외 태권도 활성화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이 이사장은 최근 중앙아시아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다. 우즈베키스탄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체육부 1차관, 우즈베키스탄태권도협회 회장,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 총장,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부총장 등 체육 관련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NOC 위원장과 체육부 1차관과 만남에서, 이 이사장은 태권도가 IOC 내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태권도 경기 메달 획득을 위한 재단 차원의 협력 사항 등도



우즈베키스탄 체육 고위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이상욱 이사장(왼쪽 가운데).

논의했다. 특히 국립대학교와 국립체육대학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양측 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태권도에 영향력이 큰 우즈베키스탄을 든든한 파트너로 삼았다는 평이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이 이사장이 태권도와 첫 인연을 맺은 곳이다. 사업에 매진하던 이 이사장은 2008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참여한 중앙아시아 태권도연맹의 창설을 주도해 초대 부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TPF는 앞으로 벨라루스를 비롯한 동유럽과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태권도 저개발국에 대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영국 맨체스터 등지에서 홍보에 나서는 등 태권도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TPF는 해외 공관과 협력해 현지의 정규 학교 내에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태권도 용품 및 대회를 지원할 청사진을 갖고 있다. 태권도와 국어를 활용한 문화 외교를 위해 세종학당재단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교 태권도 전공자를 선발해 '글로벌 태권도 미래 지도자 양성 교육'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하고, 교육 수료자를 단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태권도 홍보와 보급 그리고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WT와 함께 WT 산하 대륙 연맹 및 국가 회원국 협회(MNA) 소속 태권도 지도자·선수·심판 등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교육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하고, 세계 주요 태권도 대회를 대비하여 개발도상국 및 태권도 취약국 선수단을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훈련을 지원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도 적극 나설 생각이다. ●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한 나오시마(直島), 그곳에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이 ...

나오시마(일본 가가와현) = 글·사진 서완석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나오시마(直島)는 세토 내해의 작은 섬이다. 한때 구리 제련소가 자리했고 제염업이 성행했지만, 섬은 쇠락을 거듭하며 잊혀 가고 있었다. 이 섬을 살린 것은 다른 아닌 ‘예술’이었다. 섬 전체가 현대 작품으로 채워지며,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격조 높은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1989년부터 진행된 섬 재생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 출판 그룹 베네세 홀딩스의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은 일본 건축의 거장 안도 다다오와 손을 잡았다. 1992년 베네세 뮤지엄을 시작으로 2004년 지추(地中)미술관, 2010년 이우환 미술관을 차례로 열었다. 사실 대도시가 아닌 외딴 섬에 미술관을 짓고 예술의 섬을 만든다는 건 무모한 일이었다. 마치 무주군에 태권도원을 짓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고 할까.

세계 유일의 땅속 미술관인 지추미술관엔 클로드 모네, 제임스 터렐, 월터 드 마리아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인상파 거장 모네의 ‘수련’ 연작 중의 한 작품을 프랑스까지 가지 않고도 감상할 수 있다. 인근에 생존하는 한국 작가 중 가장 그림 값이 비싸다는 이우환 미술관이 있어 한국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금 더 걸어가면 미술관과 호텔을 결합한 독특한 양식의 베네세하우스 뮤지엄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호박을 주제로 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은 이 섬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 노란 호박은 베네세하우스 앞 해안에 위치해 있어 사진 찍는 명소가 됐다. 빨간 호박은 나오시마 관문인 미야노우라 포구 여객선 선착장에 위치해 있다. 정신 질환을 앓은 쿠사마의 아픈 개인 사도 스토리텔링의 주요 요소다. 호박 모양의 다양한 장신구는 이 지역 방문 기념품으로 인기가.

포구 앞 목욕탕은 실제 공공목욕탕에 일본 각지의 물품들로 벽을 채워 감각적 디자인을 덧댔다. 섬 반대편 혼무라 지구는 작은 어촌 마을을 예술의 마을로 바꿨다. 100년 넘는 오래된 빈집과 염전 창고에도 현대미술의 숨결이 곳곳에 녹아 있다. 예술가의 손길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다.

나오시마에서 태권도원을 떠올린다. 외딴 곳에 조성된 인공물이란 점에서 같다. 한쪽은 예술을 앞세웠고, 다른 한쪽은 무예를 주제로 했다. 그렇지만 문화를 접목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국내외에서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것도 공통점이다. 다른 점도 있다. 나오시마를 찾는 이는 자발적 관광객들이다. 스스로 찾아서 간다. 나오시마는 자연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힐링 공간이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민의 희생과 참여가 있었다.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에서 어쩌면 태권도원의 활성화 해법이 있는지 모른다. ☎

신이 빛은 희비쌍곡선에, 승패의 운명은 엇갈리고

글 최규섭 사진 양택진





이기고 짐은 병가에서 늘 있는 일이다[勝敗兵家常事·승패병가상사]. 무릇 장수라면 가슴속에 새겨 뒀야 할 금언이다. 승자의 희열과 패자의 낙담을 아울러 경계하고 있다. 승패가 가려지기 마련인 전장에선,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함께 존재하며 두 축을 이룰 수밖에 없다.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분루가 비록 상반될망정 어우러지는 곳, 곧 승패의 세계다. 얼핏 외면적으로 모순된 현상처럼 보이나, 내면적으로 양시론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만하다.

과연 그럴까? 이긴 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패한 자는 슬픔을 억누르는 감정의 조절이 그토록 쉬울지 모르겠다. 물론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이기려면, 즉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 가슴속에 새겨야 할 금과옥조임엔 틀림없다. 그렇지만 심신을 갈고닦아 그 경지에 오르기관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성인이라면 몰라도 범인이라면 어찌 희로애락을 가볍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현대 정신의학에선, 솔직한 감정 표출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강조한다.

참 절묘한 광경이다. 승자와 패자의 상충된 감정과 표정을 한꺼번에 담고 있다. 작약하는 승자와 비탄하는 패자의 엇갈림 속에서, 승패의 무정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긴 자 - 고양시청 함준 감독과 심재영 -는 덩실 춤이라도 출 양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기쁨의 소리를 내지른다. 진 자 - 경희대학교 조현아 코치와 최수영 -는 허탈의 심연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는 양 한탄의 한숨을 내쉰다. 승패를 다투는 스포츠 세계가 엿보이는 묘미라 할 만한 희비쌍곡선이다.

그럴 만했다. 대반전의 명승부였기 때문이다. 기사화생한 승자, 다 잡았던 대어를 놓친 패자, 모두 극적 요소를 배가하며 승패의 저울추에 긴박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2019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최종 대회(2월 11~12일, 창녕 군민체육관) 여자 -46kg급 주인공은 극적으로 탄생했다. 두 번씩이나 펼쳐진 최종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점을 찍은 히로인은 심재영이었다. 최종 한판, 더구나 골든 라운드에서 영광과 좌절의 향방이 갈렸으니 오죽했으랴.

심재영은 가시밭길을 걸었다. 첫판에서 저 패자 부활전으로 내몰리며 고초를 헤쳐 나가야 했다. 패자 결승전에선, 난적 강보라(성주여고)에게 종료 직전 역전극을 연출하며 마지막 관문에 다달았다. 반면 최수영은 승승장구했다. 순풍에 돛 단 듯 최종 결승전에 먼저 올라 상대를 기다리며 체력을 비축했다. 설사 한판을 내주더라도 한 번 더 최종전을 기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종잡기 힘든 신의 마음이다. 신의 희롱(?)에 희비가 교차한 순간이었다. ㉠



“앗, 이럴 수가! 태극 7장이라니...”

글·사진 양택진

시선은 오로지 한곳으로 향한다. 고사리 같은 손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 희비가 엇갈린다. 강원도 지역 2019년 제1차 승품·단 심사장. 한 수련생이 지정 품새로 태극 7장을 뽑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심사자 가운데 추천자로 뽑혔지만, 비교적 어려운 지정 품새를 골랐기 때문이다. ‘태극 4장이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인다. 과연 결과는?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

지승원 사범의 삼위일체, 교수·목사·사범

글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사진 지승원 제공

교수(敎授), 목사(牧師), 사범(師範). 이 세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다. 물론 대학교 교수, 개신교 성직자, 무술 사범이 모두 존경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들 직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태권도』지(誌)가 만난 사람은 이 세 가지 직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법학 교수(한동대학교)이자, 교회 목사(다릿골교회)이면서, 태권도 사범(강덕원)이다. 바로 지승원(池勝源·69) 사범이다.

대학 시절 스승을 만나 태권도와 평생 인연

지승원 사범은 태권도 9대 도장의 하나인 강덕원을 대표하는 태권도인의 한 사람이다. 강덕원의 공동 창설자인 홍정표 선생과 박철희 선생에게서 모두 배웠다. 특히 홍정표 선생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다. 강덕원은 YMCA 권법부에서 나왔다. 태권도 5대 기간 도장의 하나인 YMCA 권법부의 창설자인 윤병인 선생은 중국 권법(拳法)과 일본 가라테(空手)를 모두 배웠다. 5대 기간 도장 중에서 중국 무술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윤병인 선생 외에 무덕관의 황기 선생이 있지만, 황기 선생이 배운 중국 무술은 현재 태권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윤병인 선생이 만주에서 배운 권법(팔기권·장권·단권·토조산 등)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 윤병인 선생의 권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어 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 사범이다.

지 사범이 평생의 스승인 홍정표 선생을 만난 것은 대학에서였다. 스승은 서울대학교 교직원이었다. 당시에는 서울대학교가 단과대학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법학대학에서 근무하던 스승이 그곳에 태권도부를 만들어서 지도하고 있었다. 지 사범은 서울대 법대 2학년이던 1969년, 도장으로 스승을 찾아간 것이 태권도와 평생 인연의 시작이었다.

지 사범은 “그때 도장이 법대 안에 있었는데, 수련생 명부도 만들고 명패도 만들고 했어요. 홍 노사(老師)님이 그런 것들을 잘하셨거든요. 예전에 YTN에서 만든 태권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 도장의 사진이 나오더라.”라고 말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위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서울대 법대’라는 간판은 우리 사회에서 보통 대학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바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서울대 법대에서 홍정표 선생에게 태권도를 배운 인물 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신기남 전 의원, 이종왕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 양창수 전 대법관도 운동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위에 선배 중에는 이협 전 의원이 있어요.”

지 사범은 법학과 1968학번이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동기생이다. 문동후 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은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경북고) 1년 선배기도 하다.

교수·목사·사회복지사의 일인 다역으로, 심을 잇는 인생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만큼 당연히 사법고시

나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거나 관계 또는 정치계로 진출하는 미래를 생각했을 듯하다. 특히 1970년대 무렵은 ‘경북고-서울 법대’라는, 정통 TK 출신의 엘리트라는 배경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출세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이 여겨지는 시절이 아니었던가.

“나도 고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20대 중



반까지 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직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서울 법대생인 아들이 고시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을 듯하다.

“그렇죠. 형님도 법관이었으니까요. 집안에서는 당연히 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타협한 게 공부를 계속해서 학자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대 교수까지는 되었으니 괜찮았던 거지요.”

지 사범은 고교 시절부터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고교생 때는 친구를 통해 접한 불교에 깊이 심취했다.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유도 궁금했다.

“불교에선, 젊은 나에게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려 주지 않더군요.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불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쪽(기독교)에서는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었고, 그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평생의 방향으로 삼게 되었죠.”

지 사범은 법철학을 전공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같이 다녔다.

“1979년에 대학원(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그 무렵 학교 가까이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야간 강좌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통해 목사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지요.”

지 사범의 박사 논문 주제는 ‘법신학’이다. 법학, 철학, 종교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이다. 사실, 지 사범은 교수, 목사, 사범 외에 또 하나의 직업이 있다. 바로 출판인으로서 ‘지승원’이다. 철학·종교·심리학 분야의 전문 출판사로 ‘이문출판사’라는 곳이 있다. 지 사범의 형이 만든 출판사로, 그는 서울 지사장을 맡아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여기서 발간한 책 중에 빨간색 표지의 『서양 철학사(요한네스 힐슈베르거)』라는 책이 있는데, 기자도 대학 시절 표지 정도는 본 기억이 날 정도로 철학 입문 교재로는 스테디 셀러다. 지 사범 본인 또한 최근에 낸 『태초에 웃음이 있었다』라는 책을 포함해 여러 권의 책을 펴낸 저자기도 하다.

올해 우리 나이로 일흔이 된 지 사범은 2015년 대학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로서 정년을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정년 퇴임을 하고 난 후에 더 바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홍정표 노사(왼쪽)와 지승원 사범의 옛 모습이다.



홍정표(왼쪽) - 지승원 사제 간에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지 사범의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수이던 시절에도 묵회 활동을 이어 오고 있었는데, 최근 집 옆에 조그마한 교회를 신축해서 목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자가 지 사범을 만난 곳이 바로 그 교회였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쯤이었다. 오전에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교회는 크지 않은 강의실 정도의 크기였다. 신도 역시 많지 않았는데, 묵회자인 지 목사와 신도들이 무척 가까워 보였다. ‘행복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전업이 교수에서 목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포항에 자리한 한동대에 가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강의도 강의지만, 한동대 교수 시절부터 가르치던 태권도 제자들에게 태권도 역시 지도하고 있다. 지 사범은 교수, 목사로서 활동하면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고 선교 활동을 병행해 왔는데, 은퇴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열려 있는 교수·목사·사범,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길 걸어가

이렇게 일인 다역을 하고 있는 지 사범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태권도인들에게 그는 ‘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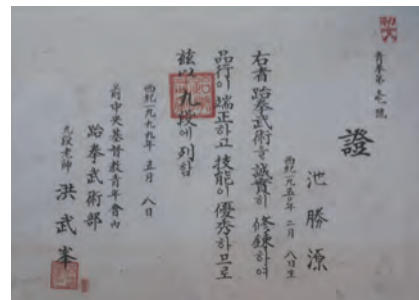
도 사범 지승원’으로 기억된다. 교수와 목사로도 바쁘는데 언제 태권도 사범까지 했을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홍 노사님을 가끔씩 찾아뵈며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4년에 종로2가에 있는 YMCA에 한성기독교청년회 태권무술부가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윤병인 선생님이 만든 YMCA 권법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건물은 새로 지었어도, 위치는 같은 곳이었지요. 1984년 미국에 계시던 박철희 선생님이 귀국하시고 홍 노사님과 의기투합하셔서 만들었죠. 1985년 설엔가 홍 노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YMCA로 운동하러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1998년까지 종로 YMCA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지도했습니다. 이 YMCA 태권무술부 지도자로는 홍 노사님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사범으로서 태권도를 배우러 온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이 무렵 박철희 선생도 가끔 오셨는데, 워낙 바람 같으신 분이어서 마음 내키시는 대로 오시곤 했죠.”

지 사범이 속한 강덕원은 박철희·홍정표 두 선생이 공동으로 창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덕원은 이남석·김순배 선생이 만든 창무관과 함께 YMCA 권법부에서 나왔다. 네 사람 모두 윤병인 선생의 제자들이다. 윤병인 선생은 노병직·이원국·황기·전상섭 선생 등과 함께 태권도 5대 기간 도장의 창설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창설자들이 가라테만을 가르친 데 비해, 윤병인 선생은 중국에서 배운 권법을 함께 가르쳤다. 팔기권·장권·단권·토조산 등인데, 이 윤병인 선생의 권법을 홍정표·박철희 선생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는 이가 바로 지 사범이다. 지 사범 외에 ‘윤병인 권법’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미국 휴스턴의 김병수 사범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이다.

“YMCA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간 이후에, 두 분(홍정표·박철희)이 시연(연습)하시는 걸 종종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형과 방어형이 각각 따로 있는 장권 같은 경우에, 박철희 선생님은 공격형을, 홍정표 선생님은 방어형을 각각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방어형은 안 하고 공격형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홍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내가 방어형을 맡아서 하기도 했었죠. 박 선생님은 순간적



으로 내는 힘이 굉장히 빠르고 강한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특징이 홍 선생님 제자라면 손을 안 대세요. 그러면서도 제 앞길을 열어 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가라테 심판 연수도 받으라고 권해 주셨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1호 가라테 국제심판 자격을 따기도 했습니다. 간혹 두 분에게 함께 배우는 수련생들 사이에 ‘어느 분의 실력이 더 나은냐?’는 것으로 설왕설래하기도 했는데, 언

제 봤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러나 지 사범은 역시 무엇보다 홍정표 선생의 제자다. 스스로가 “홍 선생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그분이 터득하신 옛날 태권도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1985년 이후 YMCA 시절에, 두 분이 함께 장권과 토조산 등을 하시는 모습을 수백 번도 넘게 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서 배운다고, 이때 그분들의 연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운 듯싶네요.”

지 사범이 말하는 태권도는 현재의 태권도가 보이는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대적으로 변화한 지금의 태권도는 그 나름의 진화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에 우리 태권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가 현재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기자만이 갖지는 않을 것이다.

지 사범은 교수로서는 정년 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현역이다. 한동대에서 법학·생활체육 과목 강의를 위해 일주일에 3일은 포항에서 보내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 그리고 고회를 눈앞에 두고도 태권도를 실제로 가르치는 사범이다. 여전히 교수, 목사, 사범으로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 사범을 보면서 그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태권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라테와 중국 권법 등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지 사범이다. 기독교 목사인데도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태도는 스승인 홍정표 선생과 조금 먼 스승인 박철희 선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겸손한 자세로 열려 있는 사람이다.

교수이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한 법학 교수는 아니다. 목사이기는 해도 화려하고 큰 교회의 목사도 아니다. 정통 태권도인이나 주류 태권도계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비주류 태권도인이다. 그냥 법학, 목회, 무술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수도승처럼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태권도계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닐까. ●



태권도의 세계화는 어떻게 이뤄졌나?

① 사범들의 미국 진출사

글 서완석 사진 KTA DB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을 통칭할 때 '비전(Vision)'이란 용어를 쓴다. 개발독재 시절인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수출 100억 달러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이 목표를 향해 전 산업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이 같은 수출 주도정책은 한국이 단기간 내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근로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수장에 취임한 김운용 회장도 태권도에 처음 '비전 제시'를 하게 된다. 태권도의

국기화, 세계화, 국위 선양의 기수, 호국의 근간이라는 4대 비전이 그것이다. 이 같은 뚜렷한 비전이 있었기에, 태권도는 발전을 거듭해 가라테와 쿵푸 같은 유사 동양 무술 가운데 가장 늦게 해외에 진출했으면서도 제일 먼저 올림픽 종목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태권도 세계화란 비전 속에, 사범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사범들의 해외 진출사는 바로 태권도 세계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훗날 김운용 회장은 "한류 원조인 태권도의 오늘은 한국인 사범들이 만든 것"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 사범들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이민법인 하트-셀러법,

미국 진출의 계기 ...

1960년대 유학, 이민 형태로 진출

태권도의 미국 진출사는 해외 진출사의 핵심이다. 초창기 태권도 해외 보급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한 태권도인은 남태희와 우종림이다. 이들은 1952년 군 유학생으로 도미, 미군에게 당수도를 지도했다. 아직 '태권도'란 명칭이 생기기 전이다. 조시학은 1961년 뉴욕에 미국 최초의 한인도장을 개관했고, 이듬해 이준구가 워싱턴에 도장을 개설해 미국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는다. 이준구는 브루스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이준구(사진 위). LA 해안에서 이소룡(사진 아래 왼쪽)에게 발차기를 가르치는 이준구.



1968년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남태희 오도관 관장(앞줄 왼쪽)과 김용재 KTA 회장(앞줄 가운데), 이종우 지도관장(뒷줄 맨 오른쪽)이 함께 걷고 있다.

리(이소룡), 무하마드 알리 등 유명인과 친교를 맺어 태권도 보급에 활용한다. 미국태권도협회(ATA)를 설립한 이행웅이 미국에 진출한 해도 1962년이다. ‘멕시코 태권도의 대부’ 문대원이 미국 유학 중 멕시코로 진출한 것은 1969년이다.

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미국에 진출한 초창기 사범들은 학비보조를 목적으로 사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정부 파견 등 처음부터 사범 활동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무렵 새로 통과된 미국 이민법인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은 사범들의 미국 진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1965년 실시된 이 법은 아시아국가에서 연간 17만명의 미국 이주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한국에는 2만명이 할당됐다. 이로써 전문기술인력의 미국 이주가 쉬워졌다. 서독에 취업했던 광부,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이 활발했던 것도 이 때다. 한국에서는 간호사, 병아리감별사 등의 이민이 늘어났고, 이 때 태권도 사범들도 전문직이라는 지위를 얻어 미국 이민이 쉬웠다.

1965년 정석중, 1967년 박철희, 김대현, 1968년 이영국·영복·영호 3형제, 1969년 강서중, 김재준 등이 당시 미국에 진출했던 태권도인들이다. 1970년 마정균과 권덕근, 1971년 신승의, 김일희, 1972년 이무용, 1974년 송영길, 1975년 이상철로 태권도 사범들의 미국 이주가 이어진다.

1968년 더욱 완화된 이민법 개정으로 태권도 사범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된다. 베트남 전쟁에서 태권도를 배운 미군들과 한국인 사범들의 유대가 미국 진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한 미군으로 수련하던 미군들이 귀국해 한국 사범을 초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5대 기간도장의 하나로 국내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던 무덕관은 이 같은 형식을 빌려 많은 사범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ATA 이행웅 사범

1960년대 중반부터 5년 사이에 해외로 진출한 사범은 약 1,500명으로 집계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1960년대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의지는 강력했지만 자본부족에 허덕였다. 한국의 군사정부를 쿠데타로 규정한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차관을 아예 막아버렸다. 천신만고 끝에 서독에서 경험차관을 얻어올 때도 이를 보증하는 금융기관이 없어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급여를 담보로 간신히 돈을 빌려올 수 있었다. 외화벌이를 위해 베트남전 참전도 마다하지 않았던 당시, 정부는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1970년 대한태권도협회를 이끌던 김용채 회장의 회

고담이다.

“협회에서 4단 이상에게 사범 자격을 주던 때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권이 나오려면 재정보증인과 신원보증서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많은 사범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여권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협회로 빗발칩니다. 외무부 여권과장에게 ‘태권도인들이 해외에 나가 적수공권으로 돈을 벌고 고국에 송금하고 태권도를 우리말로 가르치며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득했죠. 여권과장이 ‘그런 사례가 있냐’고 해서 워싱턴의 이준구 사범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어요. 당시 이준구 사범이 20여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여권과장은 ‘협회장의 사인만 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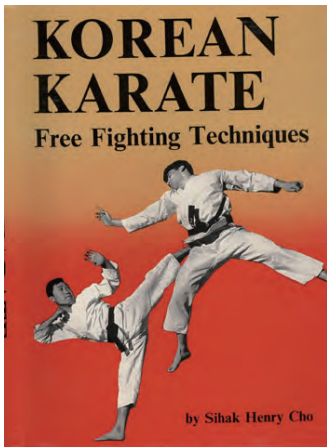


1974년 방한한 데이비드 리빈즈
미국체육회(AAU)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무조건 여권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72년 대한태권도협회 발행 『태권도』지 7·8월호는 “미국에 302명의 사범이 파견돼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해외 진출 사범의 절반가량이 미국에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브루스 리 활약, 태권도 보급에 도움

한국팬들에게 이소룡으로 알려진 브루스 리의 인기는 태권도 확산에 불을 지폈다. 1967년 TV 시리즈 ‘그린 호넷’에서 브루스 리는 태권도 액션을 선보이며 미국인들로 하여금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들게 했다. 브루스 리는 잇단 무술 영화 출연으로 할리우드의 인기물이 정점에 섰다. 브루스 리의 인기를 업고 동양 무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브루스 리는 중국 무술을



조시학이 펴낸 겨루기 교본.



2010년 방한한 남태희 원로.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준구·문대원·조시학 등 한국 태권도 사범들과 잦은 교류를 가지면서 발차기에 강점이 있는 태권도의 우수성에 매료됐다. 브루스 리가 태권도 스타로 활약하면서 할리우드 스타들도 앞다퉈 태권도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들의 영향으로 일반인의 동양 무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의 전체 무술 수련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1967년 미국 쿵푸 수련자가 2%인 3,000명에 불과했지만, 이듬해는 쿵푸 수련자가 17%인 2만 1,700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련생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1967년 가라테 수련생이 6만 2,000명으로 4만 3,000명의 태권도 수련생을 앞섰으나, 1968년부터 가라테 수련생이 쿵푸로 돌아서면서 태권도가 가장 많은 수련생을 확보하게 됐다. 1970년 태권도 수련생이 5만 6,500명, 1971년 7만 5,000명으로 전체 동양 무예 수련생의 50%를 점해 30%에 그친 가라테를 앞섰다. 1975년에 이르면 태권도가 유사 무술 가운데 65%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 기간 동양 무예 수련생은 1965년 8만 5,000명에서 1972년 16만 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당시 무술로서의 태권도의 우수성은 단연 발차기에 있었다. 앞서 진출했던 가라테와 쿵푸에 비해 스포츠 태권도로 변신을 꾀한 태권도는 다양한 발차기 기술을 앞세워 미국의 각종 무술 대회를 석권했다.

브루스 리도 처음에는 손기술을 위주였지만 태권도인들과의 교류로 다양한 발기술을 연마해 결국 자신만의 ‘절권도’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태권도의 독립 선언, 미국체육회(AAU) 가입

1972년 가라테가 먼저 AAU에 가입했다. 태권도가 ‘코리안 가라테’, 쿵푸는 ‘차이니스 가라테’로 고착화될 판이었다. 민경호 UC 버클리대 교수는 친분이 있던 데이비드 리빈즈가 AAU 회장이 되자, 1973년 10월 총회에서 태권도가 가라테에서 벗어나 독립된 종목으로 인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 교수는 세계 조직이 다르며 경기 규칙이 다름을 들었다. 또 미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대학이 가라테의 그것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태권도의 독립을 주장했다.

1974년 4월 리빈즈 회장 일행이 한국의 국기원을 방문해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리빈즈 회장은 한국에서 회견을 통해 “미국에서 곧 태권도협회가 결성돼 AAU 산하 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10월 총회에서 태권도가 AAU에 가입되면서 태권도는 미국체육회 정식 회원이 됐다.

태권도 AAU 가입은 태권도가 가라테의 한 유파로서 인식된 것에서 탈피해 독자적 무예로 인정받은 ‘독립’의 의미가 있다. ‘태권도’란 무예 명칭이 미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태권도는 이후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산하 단체가 돼 지위가 격상됐고, USOC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태권도’란 명칭이 미국 사회에서 보편적 의미로 널리 사용된 것은 14년이 지난 후였다. 1988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서 보여 준 태권도의 위용을 미국인들이 지켜본 뒤였다. 📖



1988년 US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가한 한국 국가대표팀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해인 1988년 10월 16일,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US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국기원에서 결단식을 가졌다.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 : 황춘성 대한태권도협회 전무 ▲ 코치 : 김세혁(동성고 교사, 1988 서울 올림픽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 박필순(대한유도대학 조교, 1988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팀 코치)

▲ 선수 : 하태경(플라이급), 장명삼(페더급), 정국현(웰터급), 김종석(헤비급·이상 남자), 이화진(핀급), 박선영(밴텀급), 이은영(라이트급), 김현희(미들급·이상 여자)

대표선수 면면은 화려했다. 올림픽 시범경기에 한국대표로 출전했던 선수 대부분이 포함된 호화 멤버였다. 대표팀은 사차 적응을 위해 시카고의 이무영 사범 도장에서 컨디션을 조절했다. 10월 30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7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했다.

대회를 마친 후 뉴욕과 캐나다 접경 지역을 관광한 한국 국가대표팀은 11월 5일 권덕근 사범 도장에서 몸을 풀고 시카고 대표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했다. 경기에 앞서 김세혁 코치가 뒤차기 격파 시범을 선보였다. 11월 10일에는 멕시코로 건너가 친선 경기를 또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1996년 사무실을 올림픽공원으로 이전

1996년 7월 18일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편익시설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날 이필곤 회장을 비롯해 엄운규 국기원 부원장, 박성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창신 문화체육부 차관보(현 KTA 회장), 최일홍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과 각 시도 태권도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사무실 이전 행사와 현판식을 가졌다.

KTA는 1962년 10월 서울 종로구 북창동 대한체육회 302호에 사무실을 처음 개설한 이후 1966년 7월 서울 종로구 무교동 19번지 대한체육회관으로 이전했다. 그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6층을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가 7년 만에 새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필곤 회장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태권도 3대 목표로 ▲ 태권도 올림픽 영구 종목화 ▲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태권도 생활체육화 ▲ 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KTA는 그해 9월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태권도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태권도계 염원인 태권도센터(가칭) 건립 방안과 경기 규칙 개정 방안 주제를 놓고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

정명숙, 금자탑 쌓고 사범의 길

“사범이 선수 생활보다 힘들어요”

글 박상욱 WTN 기자 사진 박상욱, 정명숙 제공



1997 홍콩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여성 최초로 3연패 위업을 달성한 정명숙(왼쪽에서 세 번째)이 시상대 맨 위에 섰다.

여성 태권도인 최초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에 태극 마크를 단 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중량급 간판선수로 성장했다. 화려한 스텝, 내리찍기 상단 공격은 상대를 벌벌 떨게 했다. 화려했던 선수 생활이었다. 그러나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좀처럼 지우기 힘들다. 은퇴 후 결혼으로 이어진 평범한 삶을 살며,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또 일선 도장에서

태권도 꿈나무를 지도하는 사범으로서 태권도인의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정명숙 사범(45)이다. “선수 생활보다 더 힘든 게 사범”이라는 그를 만나 보았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 시작

2001 전국 체육대회를 마지막으로 정명숙 사범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18년 만의 만남은 더 갑갑하게 다가왔다. 만나자마자 대뜸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라고 안부 인

사를 건넸다. 그는 “남편 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라고 기대 이하의 평이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비교적 늦은 공릉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태권도를 처음 접하고, 2학기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공릉중학교에는 특별 활동반이 있었는데,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수영을 택했다. 사춘기 때 체격이 커지며 특별활동으로 태권도를 택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체격이 너무 커져서 태권도 특별반에 들어갔어요. 운동에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재미도 있더군요. 2학기 때 같은 반의 친한 친구가 태권도 선수였는데, 그 친구 따라 선수 생활을 시작했죠.” 공릉중학교 태권도부에 들어가면서 평생 스승인 이재수 코치를 만났다. 그는 이 코치에 대해 “선생님은 독특한 훈련법으로 지도했어요. 제가 승부욕이 강한데, 선생님께서는 저의 승부욕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출전한 대회에서 메달을 따냈다. 메달을 목에 걸면서 태권도에 대한 재미도 붙고 흥미도 커졌다. 여기에 이 코치의 특별한 지도법이 더해져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루에 발차기를 1,000번 정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3분 3라운드를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마스크 세 개를 쓰고 3분 3라운드를 소화했어요. 안대 한 개만 쓰고 발차기를 했고, 집중력 강화를 위해 촛불 보는 연습도 했죠.”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께 “태권도를 그만두겠어요.”라고 말했을까?

태권도 선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고비가 왔다. 이때 어머니의 선택이 훗날 세계 선수권 3연패 위업의 바탕이 됐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잡고 이 선생님께 데리고 가서 한마디만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돌아서서 가셨죠. 그래서 이 선생님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극마크 달아

공릉중학교 졸업 후 혜성여고에 진학했다. “혜성여고 태권도부가 창단됐는데, 이 선생님께서 혜성여고 지도자로 가시며 ‘너를 국가대표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셔서 혜성여고로 진학했어요.”

이 코치의 독특한 훈련법은 계속됐다. 정명숙 사범은 “별을 보고 학교에 가고, 별을 보고 집에 왔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학교에서 집이 5분 거리였어요. 이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도장도 집 근처였죠. 그래서 학교에서 훈련이 끝나면, 다른 선수들은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 저는 선생님 도장에 들러 성인부에서 수련했어요. 성인부가 9시부터 10시

까지였는데, 성인부가 끝나면 10시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새벽 1~2시까지 했죠. 선생님께서 집에 가라고 소리쳤는데, 재미도 있었고 목표한 훈련을 채우기 전에 집에 가기 싫어 늦은 시간까지 훈련했습니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그에게 딱 맞아떨어졌다. 대회에 나갈 때마다 메달을 딸 만큼 기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말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됐다. 가슴에 첫 태극마크를 달고 나간 국제 무대가 1992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선수권 3연패 위업 달성

아시아 선수권 은메달은 큰 약이 되었다. 고교 3학년에 올라간 1993년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돼 뉴욕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분루를 삼켰던 첫 국제 대회의 아픔을 잊을 수 없었기에, 두 번째 국제 대회에서 기필코 우승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정명숙 사범은 “첫 국제 대회에서 2

1998 방콕 아시안 게임 때 정명숙(왼쪽)의 발차기 공격에선, 호쾌함이 엿보인다.



1998 호치민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정명숙(오른쪽)이 발차기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다.





정명숙(왼쪽에서 두 번째)은 제13회 방콕 아시안 게임 태권도 헤비급에서 금을 획득했다.

위에 오른 게 무척 아쉬웠죠. 그 감정을 떨치기 위해 다시 태극마크를 달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 대비해 훈련을 엄청 했습니다.”라고 그때를 떠올렸다.

그런데 세계 선수권 대회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는 수준이 달랐다. 그래서인지 고교생으로서 국가대표인 그가 금메달을 따낼 것이라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이 대회에서, 그는 마지막 날 경기를 치렀다. 한국이 종합 우승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 마음 편하게 뛸 수 있었다.

“솔직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2위에 머문 후 칼을 갈았습니다. 1993 세계 선수권 대회 때 베네수엘라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 인상이 험악했어요. 그 선수를 결승전에서나 만날 수 있어, 그 선수 경기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오가는 길에 그 선수와 눈이라도 마주쳐 눈싸움하면 지기 싫어 뿔이 지게 쳐다봤죠.”

결승전에서,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화려한 스텝과 얼굴 내려찍기로 상대를 공략해 자신의 경력에 세계 선수권 첫 금메달을 기록했다. 그의 스텝은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음악을 틀어 놓고 스텝 훈련을 했습니다. 3분이 넘는 음악을 연속해서 5회 틀어 놓고 스텝 훈련을 했죠.”라고 원동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춤에 대한

리듬은 없는데, 스텝에 대한 리듬은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세계 선수권 첫 금메달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자신감·책임감과 함께 부담감까지. 경희대학교에 진학한 후 출전한 1995 마닐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주변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그런 그에게 세계 선수권 2연패는 당연한 결과였다. 2연패 이후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장’이란 단어였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노장’이란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면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5~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노장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팀 선생님께서 제가 10년 이상 된 선수처럼 경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노장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지도를 잘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노장이란 말을 일찍 들었습니다.”

1997 홍콩 세계 선수권 대회는 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그렇지만 부담감은 대한민국 여자 태권도 최초의 세계 선수권 3연패의 금자탑을 쌓으려는 정 사범의 의지를 따라오지 못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절정의 기량을 발휘했다. 자신을 상징하는 화려한 스텝과 얼굴 내려찍기 기술로 상대를 압도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 선수권 3연패의 마침표를 찍었다.

“여자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3연패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매우 기뻐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태권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는 ‘감히 여자가 어딜 발을 들고 차냐며 반대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죠. 힘들 때 늘 위로해 주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됐지요. 아버지께서도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믿고 응원해 주셨는데, 3연패 달성 후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올림픽 무대 밟지 못한 아쉬움은 지금도 커

홍콩 세계 선수권 대회 이듬해인 1998년, 삼성물산(현 삼성 에스원)에 입단했다. 삼성물산 입단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삼성물산을 택한 이유에 대해, 정명숙 사범은 그때를 되돌아보며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곳에서도 제의했었지만, 삼성물산을 택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시절 1998 방콕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선사하는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주위의 기대치에 부응했다.

그러나 그는 실업팀에서 평생 회한이 되는 일을 만났다.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태권도는 비로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선수라면 누구나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은 꿈이 있고 욕망이 있다. 그 또한 다르지 않았다.

당시 올림픽 출전은 국가별 쿼터가 있었다. 남녀 각 4체급씩 총 8체급에서, 최대 4체급(남녀 2체급씩)에만 출전이 허용됐다. 체급 결정은 각국 태권도협회 몫이었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여자에서 -57kg급과 -67kg급을 택했다.

그는 선수 생활 내내 헤비급(+67kg)에서만 뛰었다. 올림픽 무대에 서려면 체중 감량이 필수적이었다. 올림픽 출전 의지가 컸던 그는

여느 때보다 더 치밀하고 혹독하게 훈련해 올림픽 국내 선발전 -67kg급에 나섰다.

그러나 신은 그에게 가혹했다. 올림픽 선발전 전날 처음 해 보는 체중 감량에 불안했던 그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경기 당일에는 찬물까지 마셔 탈이 났다.

“체중 감량을 해 본 적도 없어 선생님들께 여쭙보고 동료에게 물어보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는데,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시드니 올림픽 여자 -67kg급은 당시 팀 동료였던 이선희가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후 후회를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왜 선발전에 나갔을까?’, ‘KTA는 왜 +67kg급을 택하지 않았을까?’,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뒤늦게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들었죠. 그런데 선수라면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게 꿈이잖아요. 또 그랜드슬램 욕심도 컸죠.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면서 힘들었고 매우 피곤했어요. 지쳤던 듯합니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 그는 은퇴를 결심했다. 2001년 상반기까지 삼성물산에 있다가 전국 체전을 마지막으로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뒤로한 채 정든 코트를 떠났다.

결혼 후 5년 간 태권도 잊어

은퇴 후 곧바로 결혼했다. 경희대학교 1994학번 동기였던 장요중 씨와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정명숙 사범은 “남편이 편안하고 자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가 힘들고 지칠 때, 남편은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다.

“동기들끼리 친해 자주 모임을 가졌죠. 학창 시절부터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달래 줬어요. 친구로 만나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오래되지 않아 첫 아이를

출산했죠. 올림픽에 대한 아쉬움이 컸는지 태권도를 잊고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첫 아이(준석·17)를 출산하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냈다.

“결혼 후 나이가 있어 아이를 빨리 낳기로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니, 정말 정신없었죠. ‘엄마 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할 수 있을까?’란 물음을 던져 보았는데, 선수 시절 성실성과 책임감 등을 떠올리며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범으로서 새로운 길 걸어

2009년, 정명숙 사범은 도장을 개관했다. 도장 운영 경험은 없었지만 성실함으로 부족한 경험을 채웠다. 그는 수련생에게 직접 동작 하나하나를 시범을 보이며 가르쳤다. 오전에는 어머니 교실까지 운영해 주변의 우려를 기우로 돌릴 정도로, 도장 운영이 잘됐다.

그는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정통 태권도였다. 정통 태권도로 아이들을 가르쳐 태권도의 진면목을 느끼게 하는 게 사범의 소임이라는 신념에서,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고 일일이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도장을 단순히 놀이 공간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맡기겠다고 찾아온 학부모들은 돌려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확고한 의지로 도장 운영은 성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통 태권도와 놀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도 했다. 그는 ‘1시간 수업에서, 50분을 정통 태권도로 수업하고 나머지 10분을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주자’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무리하면서까지 직접 시범을 보이고 지도했던 게 무릎 부상으로 이어져 같은 부위를 네 차례 수술했다. 결국 2014년 도장을 접고 휴식기에 들어갔다.

“사범이 선수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책임감이 더 커요. 사범 생활이 힘들어서 선수 시절

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제자들이 태권도를 배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태권도 수련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는 온전치 않은 몸이지만, 지난해 남편 도장에서 사범으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후배들에게 해 줄 말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후배들이 태권도에 충실한 것도 좋으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제가 태권도만 하다 결혼하고 쉬는 동안 후회했던 일 중 하나가 다양한 경험을 해 보지 못한 거였어요. 태권도만 한 사람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죠. 후배들이 태권도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흑독한 수련을 견뎌 낸 최고수 황인무

치명적 실전 전통 무예 ‘옛법 택견’

글·사진 이길우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백범 김구 선생은 마구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과 정신이 혼돈 상태에 빠졌다. 그때 홀연히 한 줄기 빛이 백범의 마음을 밝혔다. 자신의 스승인 고능선 선생(1842~1922)이 항상 읊으시던 시가 떠오른 것이다.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이 그다지 대단할 것이 없다 /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야 장부라 할 수 있다.” 마음이 편해졌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내린 일제에 복수하기 위해, 그는 의병 부대를 찾아가 합류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여관에서 백범은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 헌병을 발견했다. 그가 입은 흰 두루마기 밑으로 칼집이 보였다.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 자객 중 한 명이라고 백범은 판단,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일본인이 식사를 마치고 문기둥에 기대어 방안을 바라보며 함께 온 젊은이가 밥값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백범은 몸을 벌떡 일으켜 “이 놈!”이라는 큰 고함과 함께 발길질로 내질렀다. 그 일본인은 한 걸이나 되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백범은 뛰어내려 목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 일본인은 만만하지 않았다. 즉시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나섰

다. 백범을 떨어 버리고 민첩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들었다. 그 칼을 높이 들고 백범에게 달려들었다. 맨손 대 칼. 새벽 달빛이 칼날에 반사돼 백범의 시야를 가렸다. 백범은 당황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내려치는 칼끝을 살짝 몸을 비틀어 피한 뒤, 일본인의 옆구리를 힘차게 오른발로 내질렀다. 일본인은 “헉”하며 고꾸라졌고, 백범은 칼 잡은 손의 손목을 힘껏 밟았다. 칼이 손에서 분리됐다.

백범은 그 일본인의 칼을 집어 들고, 칼을 휘둘렀다. 상황 끝. 일본인에게서 나온 피가 마당을 적셨다. 백범은 숨이 끊어진 일본인의 피를 한 움큼 손으로 담아 마시고, 그 피를 얼굴에 칠했다.

택견을 수련했던 백범, 칼 든 일본 헌병을 맨손으로 제압

백범이 직접 쓴 『백범일지』에 나오는 일본 헌병 살해 장면이다. 칼을 든 일본인 자객을 맨몸으로 살해할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백범은 분명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을 것이다. 평소 엄청난 무예 수련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동작이다. 특히 정수리를 향해 내려오는 칼날을 비껴 피하는 동시에, 발길질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민첩함과 파괴력을 지닌 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공격 수는 바로 발길질이였다.

아마도 백범은 평소 몸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복이 위기 상황에 저절로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만약 백범이 그런 수련 없이 칼을 든 일본인을 오직 의기만으로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난픽션이 아닌 픽션일 것이다. 백범의 일본인 살해 과정은 정말로 극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선땡'을 날리고, 반격하는 적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그 피까지...

과연 무엇이 백범을 그리 강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백범은 택견의 고수였다. 실제 택견의 초대 인간문화재인 송덕기(1893~1987)는 생전에 백범이 택견의 고수였다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백범은 『백범일지』에서 택견을 수련한 이야기는 쓰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활달하고 개구쟁이였다고는 서술했다. 아마도 과거를 준비하는 문과 중심의 사회였기에, 굳이 자신의 몸 공부에 대해선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보부상들의 안전을 지키던 '옛법 택견', 스포츠 택견에서는 반칙 기술

백범의 택견은 당시 전국을 누비던 보부상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익힌 택견이었다. 물론 지금의 스포츠형 택견이 아니었다. 생사를 겨루는 택견이었다. 그 택견을 '옛법 택견'이라고 부른다. 화려한 기술을 생략하고 직접 상대를 눕히기 위한 공격과 수비가 전개된다. 황인무 씨(41)는 옛법 택견의 고수이자 지도자이다. 칼을 들고 죽인다고 덤비는 일본인 경찰을 무기 없이 맨몸으로 때려잡은 백범의 기상을 잇는 강한 택견이다. 정말 옛법 택견의 공격 수는 치명적일까? 그 기술을 보면 엿볼 수 있다.

먼저 손 기술. '코침주기'는 손바닥으로 얼굴 정면을 내려찍는다. 손바닥으로 내려찍으니 공격 부위가 넓다. 게다가 목표는 상대의 코. 코피가 날 뿐 아니라 코뼈를 날려 버린다.

'낙함'은 손바닥으로 턱을 내려찍는다. 턱을 두개골에서 분리시킨다. '턱걸이'는 손바닥으로 턱을 쳐올린다. 강력하다. '줄띠잡이'는 손가락으로 상대방 목줄을 움켜잡는다. 강한 손가락 힘으로 목줄에 타격을 준다. 잔인하다. '활개뿌리기'는 손을 편 채 손등으로 상대방 얼굴을 후려친다. 손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마치 채찍 휘두르듯 친다.

발기술은 좀 더 살벌하다. '곧은 발길질'은 발가락을 구부린 채 상대의 복부를 마치 창으로 찌르듯 직선으로 내지르는 기술이다. 송덕기의 스승이자 조선말 전설적 택견꾼인 임호는 이 발길질을 제대로 하면 상대의 내장이 터진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일반적 발질은 발가락을 위로 제치는데 반해 안으로 구부려 내지른다. 이 발길질을 위해 발가락을 굽힌 채 걸어 다니는 수련을 했다고 한다. 마치 현대 발레리나처럼 가볍고도 날렵한 몸짓이 연상된다. '꿈치찍기'는 허벅지를 뒤꿈치로 감

옛법 택견의 전승자 황인무가 강력한 손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아 공격하는 것이고, '깎음다리'는 무릎을 쓸
어내리듯 내리찍어 관절을 절단 내는 기술이
다. 허벅지를 밟고 뛰어올라 상대의 머리를
팔꿈치로 내리찍는 기술과 머리 위까지 밟고
올라 뛰어넘으며 두 발로 공격하는 '두발당
상'(위 사진·연속 동작)도 있다. 상대방은 곧
바로 혼절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두 손을 빠르게 회전하며 힘 없이 손날 공격
하는 '도끼질'은 상대의 안면과 어깨에 반복
적 타격을 가해 허물어뜨린다. 마치 장도리
로 못을 내려치듯이 주먹을 짧고 빠르게 내
지르는 '장못치기' 역시 옛법 택견의 필살기
이다. 이런 기술들은 지금의 택견 경기에서
는 하면 안 되는 반칙 기술들이다.

15년간 손을 단련한 황인무 고수, 택견 무술 영화를 꿈꿔

송덕기의 제자로 결련택견협회 회장인 도기
현 씨로부터 옛법 택견을 전수받은 황 씨는 외
모는 평범하다. 어릴 때 몸이 매우 아팠다. 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병인 무혈괴사증
을 앓았다. 왼쪽과 오른쪽 다리의 길이가 무려
7cm나 차이가 났다. 두 다리를 모두 깎스한 채
6개월을 누워 지냈다. 일곱 살 때였다. 마음껏
뛰노는 또래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다. 하지만
부모의 정성으로 기적적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2학년 운동회 때 처음 달리기를 했
다. 놀랍게도 1등을 했다. 처음 느껴보는 성취
감이었다. 마치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





공처럼 다리 보호대를 하고 뛰면서 점차 다리 보호대가 분리되고, 친구들을 처음 앞질러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과 흡사했다. 이후 운동이 그저 좋았다. 중학교에 진학해선 레슬링부나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극력 반대했다. 질병의 재발을 걱정한 탓이다. 병원에서는 다리를 무리하면 재발된다고 이야기했다. 황인무는 몰래 동네 복싱 체육관에 다녔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어머니에게 들켰다. 사흘간 밥도 안 먹으며 즐겼다. 어린 나이에 처절한 단식투쟁.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지니고 있던 재능은 곧바로 나타났다. 고교 2년 때 도내 복싱 신인 선수권대회에 나가 우승했다. 하지만 복싱은 감량의 고통이 심했다.

우연히 택견을 봤다. 배우고 싶었다. 수소문해서 도장을 찾아가 택견을 배우기 시작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택견 지도자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액션 영화

배우의 길도 모색했다. 청소년기에 자신을 흥분시켰던 이소룡, 성룡, 장 클로드 반담처럼 무술을 멋진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독립영화에도 출연했고, ‘연평해전’ ‘하루’ 같은 상업영화도 출연했다.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로 연극 무대의 주연으로도 활약했다.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무술을 디자인하고, 직접 연기를 해서 몇 편의 단편 영화도 제작했다. 지금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결련 택견 도장에서 옛법 택견을 지도한다.

요즘 대세인 유튜브를 이용한 옛법 택견 동영상도 직접 제작해서 올린다. 유럽 등에 보름씩 가서 현지인에게 택견을 세미나 형식을 통해 전파한다. 최근엔 호주에 다녀왔다.

“택견은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성행하고 전수된 우리 무예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서기 위해선 현대적 감각의 몸짓이 가미돼야 합니다.”

황 씨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합쳐서 4시간의 개인운동을 한다. 그 가운데 오전은 손 단련 운동을 한다. 사실 그의 두 손은 무서운 무기이다. 손등과 손바닥, 팔뚝 등 손 전체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강하다. 일반인의 두 배 정도 손이 두껍다. 그는 손등을 내리쳐 자동차 앞 유리를 깬다. 자동차 앞 유리는 일반 판유리 사이에 강한 인장 강도를 지닌 합성수지 필름을 넣어 가공한 특수유리다. 황 씨는 또 손등으로 대리석을 띄어 자르듯 절단한다. 1.5cm 두께의 대리석 3개를 겹친 채 격파가 가능하다.

황 씨는 지난 15년간 손을 단련해 왔다. 생나무에 손등과 손날, 손바닥과 팔뚝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500번씩 부딪혔다. 두 손을 모두 하면 5,000번. 살갗이 터지고 아물고를 반복했다. 처음엔 2시간 30분 걸리던 수련 시간이 지금은 6,000번 부딪치는데도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격파는 결코 옛법 택견의 수련 과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수련일 뿐입니다.”

그는 한민족의 택견을 세계적 무술로 만들기 위한 택견 무술 영화 제작을 꿈꾼다. 마치 이소룡과 성룡이 중국 무술을, 토니 자가 무예 타이틀을 세계적 무술로 전파했듯이. 그리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노래가 한류의 선봉이지만, 한민족 고유의 무예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것이다. 백범의 호쾌하고 거침없는 발길질을 재현한다. 가슴이 “펑!” 뚫린다. 📢

손등으로 대리석을 격파하는 황인무 교수



“종가’의 명예를 떨쳐라” ... 요르단행 청소년 국가대표 뽑혀

창녕 = 글 류호경 사진 양택진

호기롭다. 덩직하고 믿음직스럽다. 아시아를 제패할 30인의 청소년 국가대표가 결정됐다. 태권 유망주들의 함성과 환희가 창녕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오는 7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에 도전장을 내민다. “종가’의 명예를 떨쳐라” 태극 마크를 새기고 위상을 떨칠 미래 주역들의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물오른 울산 스포츠과학고, 크게 웃다

지난 2월 하순, 경상남도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가 개최되었다. 겨루기는 남녀 20체급, 품새는 5개 부문, 총 30명의 청소년 국가대표가 선발되었다. 이들은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그리고 제5회 아시아 청소년 품새 선수권에 각각 출전한다.

겨루기에선,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3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활약이 두드러졌다. 직전에 열린 제14회 제주 평화기에서, 여고부 3연패와 남고부 준우승을 차지한 기세가 그대로 이어졌다. 황정욱(남자 -78kg급), 이예린(여자 -55kg급), 남민서(-59kg급)가 삼두마차를 이뤄 상승세를 이끌었다.

황정욱은 결승전에서 김혁준(남녕고)에게 몸통 공격을 집중시키며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였다. 점수 차 승 없이 3회전까지 경기가 진행돼 27:5로 크게 이겼다. 이예린은 결승전에서 강민서(경복체육중)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3회전에서, 얼굴



3명의 대표를 배출한 정영준 울산 스포츠과학고 코치가 환호하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돌려차기로 역전에 성공하고 몸통 득점으로 추가점을 올리며 정상에 올랐다.

남민서는 완벽한 설욕전을 벌였다. 지난해 청소년 국가대표 최종대회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긴 박주아(영광고)와 1년 만에 맞대결을 펼쳤다. 원발의 남민서, 그리고 회전 공격에 다재다능한 박주아의 재격돌에 이목이 집중됐다. 1회전에서, 주특기인 원발로 선취점을 획득한 남민서는 2회전까지 11:2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원발로 공격해 오는 박주아의 몸통을 쉽게 받아쳤다. 박주아의 공격 활로가 차단됐다. 3회전에서, 승부에 쐐기를 박는 결정타가 나왔다. 박주아가 스텝이 엉켜 주춤거리

자, 남민서가 원발 이중 동작으로 안면을 강타했다. 박주아의 코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이후에는 남민서가 경기를 장악하며 21:2로 앞선 상황에서 기권을 받아 냈다. 모두 3명의 청소년 국가대표를 배출한 정영준 울산 스포츠과학고 코치는 “선수들에게 명문 팀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을 롤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늘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뚝뚝 뭉쳐 화합을 이뤘다. 훈련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전지훈련의 폭을 넓히고 지난 동계 훈련에서는 강한 근력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했다. 선수들에게 공(功)을 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민서(왼쪽)는 여자 -59kg급 1위로 암만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사당중, '쿠데타'를 일으키다

청소년 국가대표 최종대회에서, 중학생이 1위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이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중학 3년생~고교 2년생 참가자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골격 등 신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고교 선수들이 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당중학교는 한 체급도 아닌 남자부에서만 두 체급 국가대표를 선발시키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주인공은 신남초등학교 출신의 3학년 박태준과 고교 진학을 앞둔 이찬영이었다.

최경량급인 남자 -45kg급 결승전에서, 박태준은 류진(오정중)을 우세승으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우세승은 골든 라운드에서 유효 타격과 감점이 동일할 경우 주·부심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최후 판정이다.

서울체육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이찬영은 우승 후보로 꼽힌 서정민(한성고)과 이인규(영천고)를 연파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찬영은 위기 순간마다 침착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치며 역전승을 거듭했다. 서정민과 벌인 준결승전과 이인규와 맞선 결승전에서, 3회전 종료를 앞두고 판세를 뒤집으며 '청소년호'에 승선했다.

이밖에도 남자 -59kg급 유희서(전북체육중), 남자 +78kg급 손태환(전주 양지중), 여자 -42kg급 오서린(칠곡중), -44kg급 강미르(성주여중), -46kg급 이은지(상무중)가 중학생 신분으로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아시아를 넘어라! ... 요르단 암만으로 'GO'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를 이룬 종목 중 하나다. 특히, 아시

아 지역에는 태권도 강국이 즐비하다. 이란, 중국,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이 종가인 한국을 넘보고 있다. 2017년 카자흐스탄 아티라우에서 개최된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를 보더라도 여자부 우승은 금메달 6개를 휩쓴 이란이 가져갔다. 당시 한국은 여자부 10체급 중 1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데 그쳤다. 이처럼 매년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로 썩다.

그러나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기대주 강미르(성주여중)가 선봉에 선다. 강미르는 지난해 함마메트 세계 청소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로,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이다. 지난 2년간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뿐만 아니라 카트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 대회 경험도 풍부하다.

여자부 -59kg급 남민서와 -63kg급 서탄야(대전체육고)도 처음 청소년 국제 대회에 출전하긴 해도 확실한 득점원을 갖춘 발군의 기량으로 기대를 걸기에 충분한 재목이다. 강미르와 함께 3년 연속 대표팀에 합류한 유은진(시온고) 역시 메달 후보 0순위다.

남자부에선, 지난해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한 -51kg급 임성빈(한성고), -63kg급 진호준(안중고), -73kg급 이시원(경상공고)이 중심에 선다. 임성빈은 타고난 신체 조건으로 지난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 3위를 차지하는 등 일찌감치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진호준 역시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최종 선발전에 출전할 만큼 이미 또래의 기량을 넘은 선수로 평가받는다. 지난 2월

제주 평화기 금메달에 이어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힌 이시원은 긴 다리로 얼굴 공격에 능한 선수다.

품새 부문도 지난 대회에 이

이찬영(오른쪽)은 남자 -55kg급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어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여자 개인전 1위로 태극 마크를 새긴 유민영(동인천여중)은 지난해 타이베이(臺北) 세계 품새 선수권 금메달리스트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한다면 1위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남자 개인전에는 박진웅(의정부 광동고)이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한다.

혼성 복식전과 남녀 단체전은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의 전략적 선발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인전 1위를 차지한 선수가 혼성 복식전에 참가하지 않고, 최종대회서 부문을 구별해 같은 소속 팀 선수가 대표로 선발됐다. 때문에 본무대에서 완벽한 호흡을 이루리라 기대된다.

이제 주인공은 가려졌다. 2016 히우(리우) 올림픽에서 자국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요르단서, 미래 주역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가자, 요르단 암만으로!"

■ 청소년 국가대표 명단

□ **겨루기 남자** ▲ -45kg급 박태준(사당중) ▲ -48kg급 최현식(충북체고) ▲ -51kg급 임성빈(한성고) ▲ -55kg급 이찬영(사당중) ▲ -59kg급 유희서(전북체중) ▲ -63kg급 진호준(안중고) ▲ -68kg급 최승권(강원체고) ▲ -73kg급 이시원(경상공고) ▲ -78kg급 황정욱(울산 스포츠과학고) ▲ +78kg급 손태환(전주 양지중)

□ **겨루기 여자** ▲ -42kg급 오서린(칠곡중) ▲ -44kg급 강미르(성주여중) ▲ -46kg급 이은지(상무중) ▲ -49kg급 1위 유은진(시온고) ▲ -52kg급 김솔라(대구 보건고) ▲ -55kg급 이예린(울산 스포츠과학고) ▲ -59kg급 남민서(울산 스포츠과학고) ▲ -63kg급 서탄야(대전체고) ▲ -68kg급 진가연(성안고) ▲ +68kg급 백선경(서울체고)

□ **품새** ▲ 남자 개인전 박진웅(의정부 광동고) ▲ 여자 개인전 유민영(동인천여중) ▲ 혼성 복식전 이다혜, 신우섭(21C 한국 태권도전문도장) ▲ 남자 단체전 이정원, 한주승, 이승현(하늬바람 태권도장) ▲ 여자 단체전 김은해, 이재은, 문지선(백호태권도)



겨루기와 더불어 지적장애·운동장애 품새 경기에 벅찬 감동

글·사진 최진우 국제태권도신문 편집인 겸 선임 기자

태권도의 미래 가치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가 창설 10주년을 맞이해 고대 신들의 휴양지로 불리는 터키 안탈리아 벨렉에 자리한 마르티름 파인비치 리조트에서 지난 2월 4~6일 열렸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세계 랭킹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G10 무대라는 점 때문에, 역대 최다인 69개국에서 역시 역대 최다인 757명이 참가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각국의 장애인 태권도 선수 발굴과 육성이 본격화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낸 수치로, 아울러 세계태권도연맹(WT·총재 조정원)이 2014년부터 도입한 장애인 품새 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2009년 창설된 이 대회는 2013년 제4회로 잔 대회 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패럴림픽 종목 진입 자격 요건인 25개국을 충족하며 발판을 마련했다. WT는 2014 모스크바 대회부터는 지적장애와 운동장애 품새 종목을 신설했다.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IPC 규정에 따른 등급 분류가 진행되면서 패럴림픽 후보 종목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IPC 집행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2015년 태권도를 2020 도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누가 영광의 주인공이 됐나?

남자 +75kg(K41)에선, 스파르타크 가자예프(러시아)가 우승했다. 결승전에서, 가자예프는 찬디프 싱(인도)에게 오른발 돌려차기



남자 -61kg(K41) 결승전에서, 김황태(왼쪽)가 왼발로 세계 랭킹 1위 블라디슬라프 히치팔루시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로 몸통 공격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1라운드 11:8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2회전에서도 오른발 공격으로만 득점을 올리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75kg(K42)에선, 홈코트의 메흐메트 사미 사라키가 정상을 밟았다. 결승전에서, 아흐매드 나리마니(이란)와 만난 사락은 주무기인 오른발 돌려차기를 앞세워 3라운드 점수차 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49kg(K43)에선, 세계 랭킹 1위인 우크라이나에 빅토리아 마르추크(우크라이나)가

우승하며 대회 3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마르추크는 세계 랭킹 2위인 세르비아의 다니엘라 조바노비치(세르비아)를 맞아 힘과 기술 면에서 월등한 기량 차이를 보이며 3라운드 점수차 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여자 -49kg(K44)에선, 크완수다 푸앙끼스차(태국)가 장애인 태권도 입문 1년 만에 세계 랭킹 1위인 엔크투야 쿠렐바타르(몽고)를 반칙승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우승했다. 1회전을 0:0 탐색전으로 마친 푸앙끼스차는 2라운드 시작 3초 만에 쿠렐바타르에게 열

굴을 맞고 다쳐 행운의 반칙승을 거뒀다. 푸 앙끼스차는 100점을 획득하며 단숨에 세계 랭킹 16위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러시아는 남자부 5연패를, 터키는 여자부 2연패를 각각 달성하면서 다시금 장애인 태권도 세계 정상임을 뽐냈다. 러시아는 남자 +75kg(K41) 카자예프, -61kg(K41) 블라디슬라프 히치팔루시, -75kg(K41) 발레리 바진, -61kg(K42) 예브제니 알리피렌코 등 금메달을 획득한 4인방을 내세워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터키는 여자 +58kg(K43) 아이세 두두 카라타이가 금메달을, 여자 +58kg(K41) 아이세 이시크가 각기 은메달을 차지한 데 힘입어 종합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대회 남자 MVP는 -61kg(K43) 은메달리스트 앤서니 카펠로(캐나다)가, 여자 MVP는 -58kg(K44) 리위제(중국)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지도자엔 앤드류 디어(영국)와 메흐메트 압둘라예프(러시아)가 선정됐다.

한편 지적장애(P20) 품새 부문에선 러시아가 우승을, 크로아티아가 준우승을, 모로코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운동장애(P30) 품새 부문에선 터키가 우승을, 영국이 준우승을, 칠레가 3위를 각기 기록했다.

‘종가’ 한국, 장애인 태권도는 어느 정도?... 최초 은 획득

장애인 태권도 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종가’로서 태권도가 국기(國技)이지만, 장애인 태권도는 유관 단체와 정부의 소외와 배척 속에, 패럴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발표된 2015년에도 공식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을 꾸릴 수 없었다. 이전엔 패럴림픽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데플림픽(농아인 올림픽)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유형 국가대표 육성에만 지원 받았고, 패럴림픽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상지장애) 유형은 2016년에서야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수 발굴과 육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자원을 찾아서 국가대표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WT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국가대표팀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KTAD·회장 장용갑)가 2017년부터 조직 정비에 나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태권도 선수 발굴 및 육성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는 새로운 역

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동안 세계 선수권 대회에 2009년 1명, 2014년 1명, 2015년 2명의 선수를 각각 참가시켰다. 이에 비교하면, 2017년 제7회 대회에 4명의 선수가 참가한 데에선, 종가 장애인 태권도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엿보인다. 당시 이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 +75kg(K42) 김현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1회 대회에서 남자 -61kg(K44) 한국현이 동메달을 따낸 뒤 8년 만의 메달이었다.

올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 -61kg(K41) 김항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애인 태권도 출범 10년 만에 태권도 종가인 한국이 수확한 첫 은메달이었다. 2017년 발굴된 김항태가 KTAD의 후보선수(상비군)와 국가대표 프로그램을 거쳐 세계 무대에 서까지 활짝 꽃피운 기량을 뽐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성적 향상이 이루어진 모양새다. 그렇지만 한국 장애인 태권도는 여전히 재정 자립도와 선수 기반이 약해 러시아·터키·몽골 등이 상위권을 점하고 있는데 비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올림픽 랭킹 포인트 획득을 위해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한다. 반면 한국은 예산 부족으로 국제 무대 참가 빈도가 현저히 낮아, 선수가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점 또한 큰 문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남자 -61kg(K41) 김항태, -61kg(K42) 나형윤, -61kg(K44) 한국현, -75kg(K44) 주정훈 등 4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그러나 김항태가 은메달을 따는 데 그쳤다. 주정훈은 16강에 머물렀고, 나형윤과 한국현은 첫 경기에서 탈락하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 내년 4월 이전에 열리는 아시아대륙 패럴림픽 선발전에서 체급별 1위에 오르지 못하는 한, 태권도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되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종가에선 단 한 명도 참가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



남자 -61kg(K44) 우승을 차지한 몽골의 볼로르-에르데네 간바트가 감격에 겨워 흐느끼며 국기를 들고 코트를 돌고 있다.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이다빈

반전의 삼파전(三巴戰), 결론은 이다빈이었다

글 류호경 사진 양택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답다!”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구동성 감탄사가 쏟아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이득고 승부를 가리는 단 1분의 골든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젓 먹던 힘까지 쏟아 낸 원발 돌려차기가 상대 몸통에 적중되는 순간, 이다빈(23·서울시청)은 인생 최고의 환희를 감출 수 없었다. 『태권도』는 기해년(己亥年) 첫 ‘PLAYER OF THE MONTH’로 이다빈을 주저 없이 선정했다.

오헤리-이다빈-명미나 격돌하다

지난달 2월 12일, 2019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열린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 군민체육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태권도 종주국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73kg급은 3명으로 압축됐다. 2016 히우(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헤리(31·춘천시청), 아시안 게임 2회 연속 챔피언 이다빈, 이에 맞서는 기대주 명미나(20·경희대)였다.

손꼽아 기다리던 삼파전(三巴戰)은 예상치 못한 오헤리의 예선 탈락으로 술렁거렸다. 오헤리는 8강전에서 이다빈의 서울시청 동료인 신현선에게 덜미를 잡혔다. 아직 몸이 안 풀린 탓일까? 움직임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이다빈과 명미나는 승자 결승전에 진출, 당연히 패배가 전무한 이다빈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예상은 보란 듯이 뒤집혔다. 2회전에서 명미나가 과감한 원발 내려찍기로 결정타를 날렸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기울면서



이다빈이 2019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여자 -73kg급에서 우승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18:11로 경기가 끝났다. 결국 이다빈과 오헤리는 패자 부활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다빈은 충격에 빠졌다.

패배는 그렇다고 하지만 경기력이 무너진 상황이었다. 눈물 때문인지 눈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설상가상으로 패자조 결승 상대는 오헤리로 결정되었다.

이다빈은 “경기에서 만나 한 번도 이겨 보지 못했던 (오)헤리 언니였다. 늘 까다롭고 부담이 되는 상대다. 그래서 대표 선발전 준비 과정에서 헤리 언니에 몰두했었다. 이길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경기가 잘 풀려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제 충분히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던 명미나와 벌이는 최종 결승전만 남았다. 패자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두 번을 연속으로 이겨야 했다. 부담감도 두 배가 됐다.

이다빈은 1라운드에서 첫 득점을 회전 공격

으로, 2라운드에선 돌려차기 안면 공격을 득점으로 인정받아 승자 결승전 패배를 설욕했다. 곧바로 최종 재결승전이 시작됐고, 2라운드까지는 석 점 차로 리드를 빼앗겼다. 명미나를 응원하는 경희대 선수단의 함성은 창녕 군민체육관을 집어삼킬 듯했다.

하지만 경기는 또다시 뒤집혔다. 이다빈이 몸통 돌려차기 등으로 순식간에 6점을 획득했고, 종료 단 6초를 남겨 놓고 3점을 앞서며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었다. 실책성 뒤차기가 나오기 전까지 얘기다.

주심의 “계속” 시그널과 함께 명미나는 이다빈의 얼굴을 향해 발을 뻗었는데, 발놀림으로 충분히 점수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이다빈은 뒤차기를 시도하다 그만 동점을 허용했다. 실책성 플레이였다. 16:16, 이제 단 1분의 골든 라운드만 남겨 두게 되었다.

연장전이 시작되고, 이다빈은 공격하다 ‘잡는 행위’로 감점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후 천금 같은 원발 몸통 돌려차기로 2점을 획득했다. 이창건 서울시청 코치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었고, 이다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격한 세리머니로 첫 세계 선수권 출전의 기쁨을 만끽했다.

울산발 차세대 기대주에서 종주국 간판선수로

이다빈이 처음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된 건 2014년이다. 울산 효정고등학교 3학년 시절 -62kg급이었던 이다빈은 압도적 피지컬(Physical)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동기생

김다휘(인천광역시 동구청)와 나란히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주가가 연일 치솟았다. 이 둘 때문에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체육대학교로 진학한 이다빈은 체급을 올려 여러 차례 국제 대회에 출전했다. 2016 마닐라 아시아선수권에서는 중국 헤비급의

고 결국 아랍에미리트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다. 때문에, 7만 달러(1,100만여 원)의 상금이 걸린 그랜드슬램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팔꿈치 통증은 상상 이상이었다.

산 효정으로 진학하며 2년 연속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미 시니어 무대를 장악할 정도로, 도래에선 유독 눈에 띄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당시에도 걸출한 선배들 앞에서도 주눅 드는 법이 없었다.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경



이다빈이 2019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여자 -73kg급 우승 향방을 결정짓는 골든 포인트 원발 돌려차기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다빈은?

생년월일	1996년 12월 7일
출생지	울산광역시
신장 체중	177cm 71kg
학력	옥동중-효정고-한국체대
소속	서울시청
입문	14세
주요 성적	2013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63kg급 금메달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62kg급 금메달 2016 마닐라 아시아 선수권 -73kg급 금메달 2017 타이베이(臺北) 하계 유니버시아드 -73kg급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67kg급 금메달 2018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III +67kg급 금메달 2019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73kg급 우승

대들보 정수인을 잡아내며 우승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2회 연속 금메달 획득을 완성했다. 2018 아시안 게임 직전에 진통제를 맞으며 훈련할 정도로, 몸 상태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1위에 올랐다. 당시 여자부 금메달은 이다빈이 유일했다. 여세를 몰아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에서는 숙적 영국의 비안카 워크덴을 압도,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67kg급 판도에 뛰어들었다. 당시 이다빈의 얼굴 돌려차기에, 적지 않은 극찬이 쏟아졌다. 늘 좋지만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첫 경기서 내려차기를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

그런 이다빈에게 '올림픽'은 더없이 좋은 동기부여였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끝내 결과로 보답 받을 수 있었다. 2019년 2월 기준, 세계태권도연맹(WT) +67kg 올림픽 랭킹 6위(262.53점)인 이다빈에게 목표까지 남은 건 단 한 계단이다. 이다빈은 "세계 선수권 국가대표로 선발된 적은 처음이라 설렌다. 간절하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준비했고,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놓치고 싶지 않다. 랭킹에서 앞선 선수를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인지 120점이 걸린 세계 선수권이 더 중요해졌다. 입상하게 되면 올림픽행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맨체스터에서 모든 걸 결정짓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열네 살 때 태권도를 시작한 이다빈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불과 2년 만에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올

기력이었다. "무서운 것도 모르고 덤볐다."라는 말이 그때를 뒷받침한다. 최근 이다빈은 서울시청에 새 동지를 틀었다. 팀 역사상 최고 연봉에 3년 계약을 마쳤다. 이다빈은 서울시청을 "마음이 편한 곳"이라고 표현했다. 또 "올림픽 금메달로 팀 이미지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순박한 미소의 이다빈은 오늘도 진천 선수촌을 거침없이 내달린다.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하다. 이제 곧 이다빈의 무대가 막이 오른다.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표는 한결같다. '올림픽.' 다가오는 5월 세계 선수권까지 조금의 방심도 없이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최고의 경기를 국민에게 선사하고 싶다." 당찬 각오다. 📢

UTA,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어 간다

울산 = 글·사진 박상욱

‘젊은 협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어 가는 협회’,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UTA·회장 차도철)를 표현하는 한마디다. UTA의 뿌리는 1965년 경상남도 울산시 지회에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회원과 집행부의 희생으로 극복하고 허철 전 회장이 활성화를 이끌어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광역시 승격 이후 발전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고, 김종관 전 회장-김화영 전 전무이사 체제에서 만개했다. 초대 통합 수장으로 현 차도철 회장이 선출된 뒤 제2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젊어진 협회를 만들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어 가고 있는 UTA를 찾아가 보았다.



올해 초 UTA는 일선 도장 관장과 함께 정성을 모아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기부했다. UTA 제공

허철 전 회장, 태권도 활성화 기틀 다져

1965년 경상남도 울산시 지회로 첫발을 내디딘 UTA가 설립될 때 총무를 맡았던 차도철 UTA 회장은 그 시절을 “매우 어려웠다.”라고 회상했다. 차 회장은 이어 “그때는 어려워서 단체장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협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풍부해야 했는데, 일선 도장이 적고 수익이 없어 회장을 모시려 해도 애로 사항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어려웠던 시기를 회원들의 희생으로 잘 극복한 UTA는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허철 회장(4~6대. 재임 기간 1972년 2월~1983년 7월) 시절 울산 지역 태권도는 크게 활성화됐다. 그 시절을 함께했던 지역 태권도인들은 “허 전 회장 재임 동안 UTA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라고 입을 모은다.

차 회장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허철 회장님이 오시면서 울산 지역 태권도가 크게 활성화됐다. 그때가 발전이 시작되는 출발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절 UTA는 경남 지역의 태권도 강자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차 회장은 “도장 수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무엇보다 선수층이 얇았지만, 기량이 뛰어난 우수한 선수들이 많아 경남도민 체전에 나가면 태권도만큼은 꼭 종합 우승했다.”라고 회상했다. 차 회장은 이어 “전국 체전 경남 대표로 출전하면 고향에 꼭 메달을 선물했다. 특히나 울산 출신인 최영길 대한태권도협회 고문 같은 분은 전국 체전에 나가시면 꼭 금메달을 따 왔다.”라고 덧붙였다. 1997년 7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며, 경상남도 울산 지회가 아닌 UTA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장 수도 늘어나 자연스레 우수

선수도 시나브로 많아졌다. 차 회장은 “도장 수가 늘어나 우수 선수 발굴 육성이 용이해졌다. 특히 현대자동차에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국 체전이나 전국 대회에 나가면 좋은 성적을 냈다. 현대자동차 팀에 있었던 선수들은 지금 각 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차 회장은 “현대자동차 팀은 현재 실업팀 개념이라기보다는 동호인 모임이었는데, 전국의 우수한 선수를 울산으로 영입했다. 김종관 전 회장(18~20대)이 감독으로 조련사 역할을 해 전국 체전을 비롯한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덧붙였다.

UTA, 비상의 나래 펴다

UTA는 허 전 회장 재임 시절 이론 태권도 활

성화를 토대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광역 시 승격 이후 최고 협회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왔다. 역대 회장들은 목표를 향해 UTA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기도 했다. 여기에 회원의 희생, 집행부와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이 더해졌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전통이 세워지면서, UTA는 부흥기를 맞이했다.

UTA가 본격적으로 비상 of 나래를 편 출발점은 김종관 전 회장이 수장으로 자리한 때다. 여기에 살림꾼 김화영 전 전무이사 가세한 이른바 '김종관-김화영 투 톱 체제'가 구축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차 회장도 전 집행부를 높게 평가했다. 차 회장은 "헌신과 열정으로 많은 것을 일구고 물러났다. 지금도 이분들은 우리 협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고마워했다. 이어 차 회장은 "전 집행부에 계셨던 김 전 회장과 김 전 전무 시절 어느 시도 협회에도 뒤지지 않은 UTA였다."라고 자랑했다.

이 시절 도장 수가 늘어난 점은 발전의 지표였다. 거기에 우수 선수를 대거 발굴하고 육성해 전국 무대를 누빈 점은 UTA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발전 지표다. 특히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한 점은 타 시도 협회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UTA만의 장점이자 특징이 되었다. 김 전 전무가 기획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UTA는 매년 소년 체전과 전국 체전에서 상위 입상하고 연령별 전국 대회에서도 많은 입상자를 배출했다.

김 전 전무는 당시에 대해 "울산광역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가 태권도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태권도 종목에서만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힘들었다.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체육회를 찾아가 꿈

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설명한 덕분에, 어렵게 기획이 받아들여져 운영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도장 발전이 우수 선수 발굴과 협회 발전으로 직결된다는 김-김 투 톱 체제의 주장에 공감한 회원과 집행부는 도장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도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 심사 시행이 변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UTA는 심사 시행에 불합리한 요소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 공들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UTA는 국기원이 태권도 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처음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시도 협회의 승품·단심사 시행 실태를 조사·평가했을 때 모범 단체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차 회장 체제 출범 직후 심사 제도에 변화

김-김 투 톱 체제 이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가 돼 출범한 UTA 초대 통합 수장으로 차 회장이 취임했다. 차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도전·화합·도약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경기력 향상, 위계질서 확립, 도장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선수 발굴과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차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회원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UTA가 있게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어 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기 위해 차 회장은 젊은 피를 수혈했다. 손효봉 현 전무이사를 선임해 자신과 함께 UTA를 이끄는 체제를 만들었다. 손 전무는 선임된 직후 UTA를 젊게 만들었다. 손 전무는 "역대 집행부가 많은 고생을 했다. 특히 직전 회장님과 전무님께서 UTA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역대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고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젊어진 UTA 집행부는 출범 직후 심사제도 개선에 나섰다. UTA는 심사 채점에 변화를 줬는데, 차 회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수렴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 채점 변화에 대해 차 회장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승품·단심사 때 한 코트에 세 명의 심사위원이 긴 책상에 붙어서 채점하는 방식을 바꿔 개인 책상으로 교체해 옆에 붙어 앉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사위원에게 UTA가 만들어 준 도복을 입게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UTA 내 도장 수는 270여 개다. 과거와 비교해 도장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감소에 따른 수련 인구의 감소에다가 국가 경제 악화가 맞물려 일선 도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차 회장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장 관

지난해 3월 UTA 태권도 시범단 창단식 직후 기념 촬영 모습이다. UTA 제공



지난해 열린 제99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메달 집계 2위에 입상한 울산광역시 태권도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UTA 제공





UTA 집무실에서 UTA 현황을 설명하는 차도철 회장

장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게 했다. 도장 경영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곧바로 도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어도 일선 관장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UTA는 지난해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했다. 시범단 창단 배경에는 도장 활성화가 있다. 태권도 시범단은 울산광역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해 시범 공연을 하고,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다. 차 회장은 “태권도 시범으로 태권도 이미지를 높이고 수련 의욕도 끌어올릴 수 있어 시범단을 창단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내 실업팀 창단이 목표

UTA 집행부가 도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이유 중 하나는 도장 활성화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광역시 내 학교 태권도팀은 초·중·고 합쳐서

10개(초등학교 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뿐으로, 대학팀과 실업팀은 아예 없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소년 체전과 전국 체전에서 상위 입상하고 전국 무대에서 많은 입상자를 배출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UTA 집행부는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근본은 도장이라고 확신한다. 이 때문에 도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차 회장은 올해 중점 사업의 하나로 실업팀 창단을 꼽았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실업팀 창단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게 현 집행부의 의지다. 차 회장은 “우리 협회가 전국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체전에서 메달 집계 2위를 할 정도로 육성 프로그램 결과가 좋았다. 그런 데도 우수 선수들이 대학팀과 실업팀이 없어 외지로 나가고 있다. 대학팀과 실업팀 창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울산광역시 내에 대학이 두 개 있

는데, 두 대학 모두 스포츠 종목이 몇 개 안 될뿐더러 아예 태권도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실업팀 창단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해 이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연내 실업팀 창단이 가능할 듯싶다.”라고 밝혔다.

올해 또 다른 중점 사업으로, 차 회장은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꼽았다. 이에 집행부는 협회 문턱을 낮추었다. 차 회장은 “협회 문턱을 낮춰 회원분들 누구라도 언제든지 쉽게 방문해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소개했다.

차 회장은 “UTA의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들 간 화합과 소통으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UTA가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고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

행복한 변화 추구하며 회원 중심 협회 운영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발자취와 현황

충청남도태권도협회(CTA)는 1962년 8월 대전에 있는 청도관 충청남도 본관에서 한차고·조규장·노일환·고인환·강정구·이원구·김영웅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태수도협회(大韓跆拳道協會) 충청남도 지부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초창기 충남 태권도는 한차고 청도관 관장, 조규장 송무관 관장, 고인환 지도관 관장 등을 중심으로 토대를 닦았다. 1962년 충청남도체육회에 경기단체 가맹 등록을 했다. 1989년 3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되면서, 보령시로 사무국을 이전했다. 그 후 2016년 9월 통합 CTA를 창립하고 나동식 초대 회장이 취임했다.

현재 충남 태권도팀으로는 초등부 3개 팀, 중학부 12개 팀, 고교부 9개 팀, 대학부 6개 팀과 충남도청 실업팀이 있다. 회원 도장은 436개소이다. 승품·단 심사는 응심자의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나눠 매년 총 22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정 품새는 응심자가 직접 체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정과 정책

CTA는 3년 전부터 '행복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7년 2월, 서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충남 도내 태권도 지도자 4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국기원 승품·단 심사 직무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근 CTA 사무국장은 심사 접수 절차, 심사 추천



전국체전에서, CTA 임직원들이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

방법, 심사 추천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불법 ID 사용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시군 지부는 CTA 도장 단체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필한 도장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시도 협회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정은 2018년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됐다. 이해 4월에 열린 전체 이사회에서,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타인의 ID를 대여 사용하는 지도자 등 규정을 위반한 지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충남 도내에서 수년 동안 무등록 도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지도한 수련생을 타인의 ID를 빌려 심사에 응시하도록 한 자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CTA는 "충남 도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국기원 태권도 심사 규정 제19조(심사 추천) '태권도 사범은 사제 간의 예의 질서 등을 계승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지도한 자를 심사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자들은 수년 동안 규정을 위반했다. 심사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자들을 고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8월에는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법무법인 변호사, 경찰관 출신, 언론인, 체육인 등으로 구성했다. 김 사무국장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는 태권도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부정 승품·단 심사 시행 행위, 무등록 지도자 ID 불법 사용 행위, 허위 학력 과대 광고 행위, 심사장 질서 문란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와 도장 및 심사 비리 척결을 위하여 조사 및 징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CTA는 개혁과 민주화를 한다는 명분 아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자는 태권도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강력 대응은 2016년 12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직위 사칭과 자격 도용 사문서 작성 등 네 가지 피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김 사무국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탄력을 받았다. CTA는 지난해 일선 회원 도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MBC와 함께 공익 캠페인을 제작해 새 학기 3월 한 달 동안 공중파 매체에서 하루 3회 이상 방송해 충남 태권도 이미지를 변화시키며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또 대전 MBC와 함께 '충청의 힘 세계 속의 국기 태권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회 연속 대전 MBC배 서천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2018년 8월 3회 대회에는 12개국 1,800여 명이 참가해 중부권 최고의 태권도 대회로 성장했다.

나동식 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회원 중

심의 바른 행정'을 다짐했다. 나 회장은 "대전 MBC배 국제 오픈대회를 더욱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투명하고 바른 행정, 회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TA는 앞으로 회원 도장 경영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 MBC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애국심'을 주제로 광고를 제작해 새 학기에 맞춰 1일 5회 이상 공익 광고를 방송한다. 또 시군 지부 회장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네팔 히말라야를 직접 방문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김 사무국장은 "충남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해 국내외 태권도 공연을 통해 충남 태권도 홍보 활동과 일선 도장 경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일선 도장에 탁상용 다이어

리, 업무용 수첩, 도장 현판 등을 제작 지원하고 ▲ 매년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의 밤 행사를 열어 우수 회원, 원로, 임원, 배우자 등의 사기를 진작해 회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회원과 소통하며 현안 해결

CTA는 충남 태권도 발전과 일선 회원 도장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이어 가고 있다. 2017년 3월 예산에서,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 회원들과 학교 팀 코치들과 소통한 건 그 좋은 예다. 이 자리에서, 나 회장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가 자리한 홍성·예산 지역 관장들과 학교 팀 코치들을 만나서 반갑다. 그동안 충남 태권도계는 회원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 회장을 관장들

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라 말했다. 나 회장은 이어 "우리 충남은 10년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여 태권도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는데, 지난 4년 임기 동안 대전 MBC와 함께 손잡고 일선 도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고 전국 태권도 페스티벌대회를 창설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운영하면서,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 등록 도



2018 대전 MBC배 서천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 개최식 모습이다.

장에 현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CTA는 회원에게 소속감과 사명감 및 자긍심을 심어 주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다른 시도 협회에서도 호응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월에는 회원과 교감을 이루며 충남 태권도 최고고단자회가 창립 총회를 갖고 지용태 씨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경우 창립 준비위원회 간사는 경과 보고에서 "CTA는 나동식 회장을 중심으로 많은 번영과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를 제대로 수련하지 않은 자들이 충남 태권도 질서를 흐려 놓고 있다.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술선수범하여 후배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무도인으로서 구심점 역을 하기 위하여 최고고단자회를 창립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용태 초대 회장은 "무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충남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모임으로, 회원 자격은 최고 무력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충남 도내 8~9단 사범이면 된다."라고 말했다.

2019년 1월에는 충남 태권도계의 숙원 사업이 실현됐다. 보령시청 실업팀이 해체된 이후 20년 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속

된 실업팀인 충남도청 여자 선수단이 창단됐다. 여자 실업팀 창단은 김 사무국장의 노력이 컸다. 제 38대 충남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김영근 사무국장이 양승조 도지사에게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설명하고 태권도 행사에 초대하는 등 남다른 노력으로 도청 여자 실업팀이 창단되고, 도립 태권도시범단도 창단됨으로써 충남 태권도 위상

이 높아졌다.

충남도청 여자 실업팀은 공모를 통해 남학현 감독을 선임하고, 장애인 선수 2명과 비장애인 선수 6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충남도청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꾸린 만큼 장애인대회와 비장애인대회에 모두 참가할 계획이다. 물론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충남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대회와 행사

충남 태권도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약체로 분류돼 왔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데다 관리단체를 겪으면서 우수한 선수 육성과 강화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었다. 주로 하위권에 머물던 충남은 2016년부터 약진했다. 서산 한서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뒀다.

김 사무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 2, 은 1, 동 7개를 각각 획득해 종합 4위에 올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고등부와 대학부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그때의 감격을 되새겼다.

CTA는 이 체전을 통해 회원 간의 결속과 단합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0여 명의 회원들은 파란색 단체복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의전과 봉사를 충실히 수행했다. 체전이 끝난 후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임직원들이 신발을 벗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등 모범을 보였다. 나 회장은 “충남은 이제 태권도 변방이 아니다. 약진하는 충남 태권도의 위상을 보여 주겠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5월, 충남 태권도계에 경사가 났다. 충북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소년체전에서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했다. 충남은 대전광역시와 강원도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초등부에서 금 2개를, 중등부에서 금 3개를 각각 획득했는데, 천안시·금산군·당진시·홍성군 등 고른 지역에서 금메달 입상자를 배출했다.

총감독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었던 김 사무국장은 당시 “1988년 대전광역시와 분리 전에 참가한 제17회 소년체전에서 종합 준우승을 한 후 30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소년체전 47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종합 1위의 영광을 안았다.”라고 기뻐했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그동안 CTA는 ‘학교 체육이 살아야 충남 태권도 경기력이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도내 대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전자호구와 헤드기어를 채택하여 운영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켰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CTA는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남 체육회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표선수 선발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했다. 특히 시군 지회와 임원, 그리고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를 만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도내 우수 선수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우수 선수를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

이런 가운데, 2018년 8월 충남 서천에서 제3회 대전 MBC배 서천 국제 오픈대회가 나

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집행부의 다짐

CTA는 나동식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6명과 이사 14명 등 총 21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또 대회와 행사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술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CTA는 올해 ‘칭찬합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회원 정례화를 통해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충남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공정한 태권도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해서 신뢰받는 집행부와 사무국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우수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도 힘쓰고 있다. 충남 스포츠과학

센터의 협조를 받아 과학적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충남도청 여자 실업팀과 연계해 선수 육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 사무국장은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선수 관리에 힘쓰고, 도내 학교 팀에 전자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학교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선 “중고등학교 우수 코치를 충청남도 교육청 순회 코치로 임용해 시군 태권도 경기력 향상은 물론 태권도 인력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CTA는 해마다 기술전문위원회 및 임직원 워크숍을 갖고 직무 연찬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으로 깨끗한 경기장과 심사장 문화 창출에 힘쓰고 있다. ●



나동식 CTA 회장(가운데)과 지역 일선 도장 관장들이 대회의 장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했다. 맨 왼쪽 끝이 김영근 사무국장이다.

흘간 펼쳐졌다. CTA와 서천군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 대회엔, 해외 12개국 선수단 70여 명을 포함해 국내외 선수 및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했다. 해외 선수들이 많이 참가해 전문 통역사를 4명이나 배치했고, 겨루기·품새·경연 결승전은 대전 MBC가 중계 방송했다. CTA는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 해외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중부권 최고의 국제대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8년 12월 15일 충남 논산 더 행복한 웨딩홀에서, 2018 충청남도 태권도인의 밤 및 자랑스러운 충청남도 태권도인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충남 도내와 재경 태권도 원로 및 지도자가 참석해 자랑스러운 충청남도 태권도인상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임원과 지도자를 내조한 배우자를 선정해 특별상을 수여하고 태권도 원로에게 공로상을 시상하며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증정함으

글 최규섭 사진 KTA DB, 태권도신문 제공

“내가 한국 품새 최고다”

KTA, 2019 품새 최강전 첫선...
2월 20일 예심 펼쳐져

“누가 나를 능가할쏘냐? 품새라면 내가 으뜸이다.”

태권도 품새 최고수를 다투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재미있는 태권도의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마련한 야망의 무대였다. 앞으로 태권도 대회들의 새로운 전형이 되리라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창설한 2019 KTA 품새 최강전으로, 지난 3월 9일(토) 올림픽공원(서울 송파구) K-아트홀에서 그 화려한 막이 올라갔다.

이 대회는 KTA가 주최·주관했고, SPOTV가 주관 방송사로 나섰으며, 아디다스와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했다. KTA는 본무대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기원에서 예심을 열어 결선에 진출할 복식전(2명) 10

개 팀과 단체전(3명) 10개 팀 등 총 20개 팀을 뽑았다.

KTA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크게 호응받았던 품새의 인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해 내놓았다. 그런 만큼 ‘재미있는 태권도’, ‘팬과 호흡을 함께하는 태권도’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여러 특색 있는 무대로 꾸며 첫선을 보였다. 물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징들로, 새로움을 쫓는 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깊은 인상을 줬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상금이다. 총 1,800만 원의 상금을 내걸으로써 품새 최강위를 꿈꾸는, 내로라하는 선수들의 욕망과 열망을 부추겼다. 복식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자유 품새만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 ▲ 부문별 1위는 500만 원 ▲ 2위는 300만 원 ▲ 3위(이상 각 1팀)는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받았다.

두 번째도 이목을 모았다. 한마당이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곳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체육관이 아니라 공연 무대, 곧 올림픽공원에 자리한 K-아트홀이었다. 태권도가 공연장에서 열리는 첫 시도라 할 만했다. 팬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저마다 열연을 펼치는 선수들의 땀과 호흡을 느낄 수 있어 그만큼 쉽게 일체감을 이룰 수 있었다.

팬 친화적 무대로 꾸미기 위해 도입한 관중심사제도 흥미를 자아낸 요소였다. 30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15명이 현장 관중으로 이뤄졌다. 유료 입장제도 이색적 대목으로, 팬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데 폭발적이었다. 입장권이 2만 원(균일가)에 달했는데도, 전 좌석이 대회 개막 보름 전에 매진됐을 정도였다. 1961년 창립된 KTA(당시 대한태수도협회)는 지금까지 무수한 대회를 열면서도 단 한 번도 입장료를 받은 적이 없다(국내 대회 기준).

위와 같은 독특한 대회 방식 덕분에, 본선 진출 팀을 가리는 예심부터 불꽃 튀는 각축전이 벌어졌다. 복식전 26개 팀과 단체전 27개 팀이 출전한 예심에서, ▲ 윤규성(서울 아이티고등학교)-곽여원(강화군청)을 비롯한 10개 팀이 복식전 2.6:1 관문을 ▲ 한영훈-류현식-권영인(이상 태권한류)을 위시한 10개 팀이 단체전 2.7:1 관문을 각기 뚫고 결선에 나갔다.

한편 한국 태권도의 밝은 앞날을 개척하는데엔 미디어와 상생이 필요하다고 본 KTA는 기획 단계부터 SPOTV와 이 대회를 함께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주관 방송사로 나선 SPOTV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회를 생중계했다. 또 하루 뒤 10일엔 오후 4시부터 SPOTV 2에서 본 방송으로 편성해 방영했



지난 2월 20일 국기원에서 열린 2019 KTA 품새 최강전 예심은 열연의 연속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다. 네이버도 생중계했다.

■ 결선 진출팀(결선 대전 번호순)

▲ 복식전 = 이규진 장한솔(SOO 태권도) 박지원 최동아(경희대학교 C) 김민영 원지원(왕호도장·백호도장) 전명원 이봄이(블랙집 태권도 A) 이택기 윤은혜(YJY) 이창식 이지영(YJY·미르메) 신민철 장한별(미르메) 윤규성 곽여원(서울 아이티고등학교·강화군청) 조은상 김유진(가천대학교 D) 이종화 박재은(가천대학교 B)

▲ 단체전 = 최보근 최병현 홍승표(왕호도장) 한영훈 류현식 권영인(태권한류) 이재준 안정현 장한별(미르메 E) 박하늘 장윤환 김경록(백석대학교 E) 안상준 김지우 정민기(백석대학교 A) 장영근 최재영 권재영(미르메 B) 임승진 강민서 강완진(경희대학교 A) 김기현 김한울 임승찬(경희대 송라 태권도 B) 배종범 이후용 송민규(조선대학교) 이찬민 민승기 최한나(참피온체육관) 이재혁 김창수 배세은(황스 태권도장·번외)

“의식 전환이 발전을 담보한다”

최창신 회장, 고양시 승격 제27주년 기념 강연서 역설

“의식의 변화는 담보와 정체를 깨뜨리고 발전의 싹이 돋아날 수 있는 토양이다. 의식이 바뀔 때, 자기 계발이 이뤄짐은 물론 나아가 조직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묘방으로 의식의 전환을



역설했다. 안일하게 현실에 젖어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는 의식으로 도전의 길에 나설 때, 스스로 개척한 밝은 앞날을 그만큼 더욱 달콤하게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일 열린 고양시 승격 제27주년 기념 강연에서, 최 회장은 우리 나이 일흔다섯을 무색하게 하는 노익장의 열정이 듬뿍 묻어나는 열변을 토했다. 역사적 사실에서 논지의 타당성을 끌어내고 해학이 깃든 재기 넘치는 달변으로, 고양시 문예회관에 모인 300여 명의 고양시청 직원의 이목은 물론 마음마저 사로잡았다. 그뿐만 아니다. ‘잠자는 도시가 아닌 깨어 있는 도시로’를 표제로 내건 이번 기념행사에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주제와 내용으로, 설득력을 더하며 청중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서론에서 “공무원이 우선 바뀌어야 고양시가 발전한다.”라고 주장한 최 회장은 본론에서 이를 실천할 자세로 세 가지를 들었다.

가장 먼저 “공무원은 업관 행동을 삼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이 지닌 능력 이상의 명리를 탐하고 집착할 때,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차적

으로 자신이 죽고, 이어 친구와 동료도 죽으며, 결국 조직과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망할 지경까지 이르기 마련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역사적 실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높였다. 임진왜란(1592~1597년) 때 용인 전투와 병자호란(1636년) 때 쌍령 전투에서 당한 참패의 치욕은 사리만을 좇은 업관 벼슬아치들이 부른 당연한 결말이었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시간을 잘 활용해 어학 공부에 힘쓰라.”라고 권했다. 갈수록 지구촌이 한 가족처럼 돼 가는 현실을 깨닫고 이에 발맞춰 여러 나라의 말을 익힘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말라고 일깨웠다.

마지막으로, “우리말을 사랑하고 제대로 쓰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모두가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현실의 언어 상태를 보면 참담한 심정이다. 말로는 ‘한글은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실생활에서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함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늘 국어사전

을 곁에 두고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연의 끝머리에서, 최 회장은 고양시가 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스토리텔링을 내포한 박물관·유적지·기념물을 조성해 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냄도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한 시간여에 걸친 강연이 끝나자, 숨죽이고 최 회장의 주장을 경청하던 청중 모두가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최재춘 KTA 새 상근임원, ‘소신’과 ‘소통’ 행보

첫날 상견례 갖고 잇달아 의욕적 발걸음 옮겨

“소신을 갖고 시도 협회 및 산하 연맹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춰 온



힘을 다하겠다.”

‘최창신 체제’의 제3대 상근임원으로 발탁된 최재춘 전 대학태권도연맹 회장(60·사진)은 ‘소신’과 ‘의사소통’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적극 행보에 들어갔다.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이 오랜 고심 끝에 낙점한 최 신임 상근임원은 선임된 첫날(2월 14일) 오후 곧바로 KTA 회의실에서 사무처 전 직원과 상견례를 갖고 의욕적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 상근임원은 이어 이튿날부터 제14회 제주 평화기 대회(2월 15~21일)가 열린 한라체육관(겨루기)과 한림체육관(품새)을 잇달아 찾아 대회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를 직접 살피는 한편 대회위원회 위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로써 상근임원 자리는 7개월 2일 만에 새 주인공을 맞아 활기를 띠었다. 최창신 회장은 그동안 친정(親政) 체제에서 뛰어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KTA를 이끌어 왔다. 최 회장은 KTA 수장으로 취임한 2016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7월 12까지 상근이사(오일남) 또는 상근임원(최권열) 체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근이사 또는 상근임원 제도가 기대했던 만큼 시도 협회·산하 연맹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태권도계·태권도인과 불협화음을 낸다고 본 최 회장은 이후 고민을 거듭하면서 선임을 미뤄 왔었다. 이에 따라 이 자리는 그동안 빈자리로 남아 있었다. 최 회장이 다시 상근임원직을 부활시킨 데엔 내외적으로 변화 요인이 작용했음이 엿보인다.

먼저 외부적으로, 많은 시도 협회와 산하 연

맹의 요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회장과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원활한 의사 전달과 소통의 매개체가 될 상근임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28일에 열린 2019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여러 대의원이 같은 요구를 표출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최 회장이 시기적으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데서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7개월여 손수 최일선에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율적 행정이 이뤄지며 상근임원을 받아들일 만한 기틀이 다져졌다고 판단해 취한 결단이었음이 내비쳐진다.

한편 최 상근임원은 25년간 교육계에 몸담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 냈다. 또 KTA 이사, 충청남도협회 회장, 한국대학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태권도 발전에 제 몫을 다해 왔다. “추진력 있고 결단성을 갖췄을뿐더러 행정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다.

한편 최 회장은 같은 날 유수철 전 KTA 겨루기 대회위원회 질서분과위원장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회위원회가 한국 태권도계 응비의 일익을 맡아 달라”

최창신 회장, 대회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부

“대회위원회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의 근간이다.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 태권도계를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키는 데 선봉장 역할을



다해 달라.”

최창신 KTA 회장이 대회위원회의 가치와 소임을 역설했다. 올 한 해 각종 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대회위원회의 주축을 이룰 본부장·위원장·부위원장에게 이같이 격려하며 아울러 간곡하게 당부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2019년도 KTA 각종위원회 위원(부위원장 이상) 임명장 수여식서,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는 뿌리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국 태권도의 밝은 앞날을 밝힐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먼저 종전의 기술심의위원회를 왜 대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까닭부터 설명했다. “이름과 걸맞지 않은 소임으로 정당성을 잃음으로써 모든 위원이 자신이 맡은 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한

최 회장은 “조직 명칭과 업무가 부합할 때, 자신의 소임을 충분히 인지함으로써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맥락에서, 동기 부여를 위한 처방전으로 대회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병

의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제까지 투입했다. 그런 만큼 이제 여러분은 정확하고 바르며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취임(2016년 11월) 이래 줄곧 새로운 경기장 문화의 정착을 주창하고 애쓰고 있는 최 회장은 대회위원회가 그 과업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최 회장은 “종주국 위상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분이 선봉에서 달라. 우리나라 태권도계가 바르게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인이 높게 평가할 만한 새 경기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의 하나로 경기장 질서 확립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앞서 자신부터 경기장 질서를 지키려 힘써야 한다. 내남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능할 듯싶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 2019년도 각종 위원회 명단

(분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대회위원회	경기	겨루기	장명수	함동천 이정산 김정윤
		품새	최종식	김영석 정홍구 김민선
	심판	겨루기	천우필	김석중 황철규 임택동 유삼형 박영호 전성호
		품새	박상수	정용원 오방균 최정란 이마옥 임성빈
	기록	겨루기	신충현	조승희 이병주
		품새	최승옥	정효심 송광현 안용철
	질서 대책	겨루기	최정도	노재관 김삼철
		품새	노현래	임락준 허만오
	영상 감독	겨루기	김갑수	박문식 김소영 강찬구
	경기력 향상	겨루기	이영선	유미숙 윤희섭
품새		허의식	이기철 전난희	
스포츠공정			유수철	이호열 이기덕
공인			최진우	황종학 이용운
도장 관리			손성도	박영일 남중진
심사 관리			최성주	김성기 차동술
실버			김용휘	김진위 김경수 김영수
생활체육			김창호	정영모 김무인 최상구

태권도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각자가 본분을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이를 현실화하는 데 온 힘을 쏟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회장은 “여러분이 충만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국 태권도가 비상한 나라를 펼 수 있도록 선봉에서 활약해 달라. 회장으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뒤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겠다.”라는 말로 인사 말을 끝맺었다.

KTA, 숨 가쁜 행보 끝내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

2019 대의원총회 비롯해 네 차례 회의 순탄하게 마쳐

상임 이사회(1월 14일)→ 결산 이사회(1월 18일)→ 정기 대의원총회(1월 28일)→ 상임 이사회(1월 31일).

숨 가쁜 행보다. 좀처럼 숨을 돌릴 수 없는 발걸음이다. 이제야 비로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그해 1월은 몹시 바빴다. 어수선한 기분까지 자아냈던 한 달이었다. 그래도 시간은 갔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2019년 1월을 무사히(?) 마쳤다. “바쁘게 짊은 방아에도 손 놀 틈이 있다.”라는 우리네 속담마저 무색하게 했던 기해년 첫 달은 그렇게 갔다. “바쁜 살림에 늙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오히려 훨씬 실감 나게 마음에 와닿

았을 듯한 KTA다.

어쩌면 숙명일지 모른다. 해마다 이맘때면 으레 맞닥뜨려야 하는 연례행사기 때문이다. 그래도 새삼스럽다. 요맘때가 되면 마음을 줄이고 물 흐르듯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흐르기만을 바란다. KTA 사무처 전 직원의 솔직한 심정이다.

잔인했던(?) 1월을 보낸 그들은 2월을 기대에 젖어 맞이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이자 근간인 씨 뿌리기를 무난하게 마쳤으니, 은근히 풍성한 가을걷이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2019 정기 대의원총회를 비롯해 2018 결산 이사회와 두 차례(2019년 1·2차) 상임 이사회까지 별다른 잡음 없이 치렀으니 그럴 만하다.

속을 썩인 회의가 단 하나도 없었다. 네 번의 회의 모두 1시간 안팎에 끝났다. 전 태권도인의 시선이 몰린, KTA 사무처 직원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의원총회도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럴 때도 있구나!”라는 감탄의 말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

을 정도였다. 모든 회의에서, 사무처가 올린 안이 그대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수지 결산(103억 6,300만여 원·일반 회계) 승인과 ▲ 2019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88억 1,500만여 원) 보고 ▲ 이사 선임 보고 모두 큰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승인됐다. 신임 이사로 선임된 네 명(윤오남 광주광역시체육회 이사,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김무천 전 KTA 사무국장, 조한우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도 원안 그대로 추진됐다.

▲ 정관 개정도 거침없는 수순의 양상이 이어졌다.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규정 개정에 따른 KTA 정관 개정엔 전혀 토를 달지 않았다. 이번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회장 선거 절차 구체적 명시를 위한 조항 신설 △ 체육회 인준 대상 임원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정 △ 임원 결격 사유 추가 등이다.

▲ 감사 선출도 마찬가지로 모양새였다. 현 감



사[최진규(행정)·조성운(회계)]를 재선임했다. 신체제 임기는 앞으로 2년(정기 대의원 총회 기준)이다.

1월의 마지막 날에 열린 2019년도 제2차 상임 이사회(올림픽파크텔 아라리)에선, ▲올 국가대표 강화 훈련 지도자 확정 건이 KTA 경기력향상위원회 안 그대로 수용됐다. 또 ▲윤오남 이사를 상임 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안도 받아들였다. 이번 추가 선임 안은 2018년도 결산 이사회가 상임 이사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촉한 데 따라서였다.

■ 2019년도 국가대표 강화 훈련 지도자

▲ 지도자(코치) = 이창건 왕광연 신재현 이석훈 신경현(여) 최진미(여) ▲ 의무 트레이너 김동휘 나연희(여) ▲ 전담팀 = 김형수



2019년도 판관 교육, 열기 속에 사흘간 열려

‘올 한 해 공정한 판정으로 후회 없는 판관이 되리라.’ 굳게 다짐한 마음가짐이 배어 나옴을 쉽게 엿볼 수 있는 무대였다. 그만큼 진지한 학습 의욕과 열의로 가득 찬 교육이 펼쳐졌다. 235명이 내뿜는 열기는 사흘 동안 식을 줄 몰랐다. 동장군이 감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실시한 2019년도 상임 심판 및 영상 판독 위원 교육이 뜨거운 호흡으로 무대가 펼쳐진 무주 태권도원의 추위를 녹였다. 지난 1월 27~29일 진행된 이번 교육엔, ▲ 겨루기 108

명 ▲ 품새 102명 등 모두 210명의 상임 심판이 참가했다. 또 ▲ 영상 판독 위원 25명이 호흡을 함께함으로써 더욱 열기를 높였다.

2019년 벌어질 각종 대회에서, 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할 심판을 대상으로 한 만큼, KTA는 교육 내용 및 진행 방식에 만전을 기하려고 세심한 신경을 썼다. 이론과 실기로 나눠 교육한 뒤 각 부문별 시험으로 교육의 전수와 습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타진했다. 그리고 전체 및 분임 토의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애썼다.

먼저 ▲ 겨루기는 첫날엔 변경된 경기 규칙을 교육한 뒤 조별 분임 토의 및 발표가, 둘째 날엔 심판 수신호 및 주심 실기에 이어 주·부심 실기시험과 부심 채점 실기시험이, 셋째 날엔 이론시험에 이어 면접이 각각 진행됐다.

▲ 품새는 첫날엔 바뀐 경기 규칙 소개→자유 품새 및 기본 동작 교육→ 개별 운동 순으로, 둘째 날엔 실기(기본 동작·유급자·유단자)→스코어링 실기(공인 품새·자유 품새)→스코어링 실기시험→이론시험 순으로, 셋째 날엔 실기시험 및 면접이 각기 실시됐다.

▲ 영상 판독은 첫날엔 겨루기 경기 규칙 12가, 둘째 날엔 영상 판독 개요 및 사례 교육→실기 교육→실기시험 순으로, 셋째 날엔 이론시험이 각각 이뤄졌다.

KTA는 마지막 날 대강당에서 퇴소식을 가짐으로써 사흘 동안의 열띤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이 끝난 뒤, 강사와 교육생들은 함께 어우러져 기념 촬영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

창원시태권도협회 회장에 한인환 후보 당선

경남 = 백성경

경남 창원시 태권도협회장에 한인환(63·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2월 27일 창원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12표를 얻은 한인환 후보가 88표에 그친 박충구 후보를 눌렀다(무효1표). 이번 선거는 관내 등록 도장 284명의 선거인(창원:성산구·의창구 140명, 마산:회원구·합포구 91명, 진해:진해구 53명) 가운데 201명의 직접 투표로 실시됐다.



지도자들의 관심 속에 추진된 통합창원시 협회설립추진위는 지난 2개월 동안 창원시 지역 각 도장 관장들의 추진 서명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구성한 뒤 창원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선거공고를 했었다. 한 당선자는 창원시체육회에 임원 인준 절차를 거쳐 창원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한 당선자는 경남대를 졸업한 뒤 창원대 경영대학원석사, 국제라이온스355-C지구 강사, (주)한동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투명한 운영으로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협회 ▲회원 복지 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투자 ▲꿈나무 육성 및 인프라 확장 ▲태권도인의 화합, 소통, 단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 임명장 수여

울산 = 강정덕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는 2월 22일 협회전용도장에서 2019 기술전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기술전문위원회는 강정덕 기획위원장 등 12개 분과 106명이다. 차도철 회장은 “115만여 울산시민의 건강과 태권도발전을 위해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술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기술전문위 위원장 명단

의장: 박화순, 부의장: 신대선, 양재호, 배성민, 경기: 정은모, 심사: 박민준, 기록: 정영권, 겨루기심판: 김종대, 품새심판: 양진원, 도장관리: 임상형, 교육: 강병일, 경기력향상: 박승원, 질서의전: 송용섭, 홍보: 정근욱, 사범복지: 김해욱, 기획: 강정덕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2019년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강습회 개최

울산 = 강정덕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UTA)는 지난 2월 27일 UTA 전용 도장에서 2019년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선, 경기 규칙 교육에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 아동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폐 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함께 실시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도장 경영에 도움이 되는 알찬 배움의 시간이었다. 기회만 되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알립니다

『태권도』가 신선한 시각을 찾습니다

널리 구하러 합니다. 숫구치는 청춘의 정열을 불사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태권도』가 젊고 생생한 시각을 갖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어 주려 합니다. 제2기 대학생 명예 기자 초대, 곧 비상을 꿈꾸는 『태권도』의 또 다른 날갯짓입니다.

지난해 봄 7년 4개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크게 기지개를 켜 『태권도』는 대학생 명예 기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며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생 기발랄한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대학가 태권도계의 풍속도는 신선한 자극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 '충격'을 다시 맛보고 싶은 열망을 제어하기 가 힘듭니다. 제2기 대학생 명예 기사를 찾고 구하러는 까닭입니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한국 태권도 발전의 작은 밑알이 되는 데 함께하기 바랍니다. 청춘의 끓는 피와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태권도』가 초대하는 한마당에 뛰어들어 한껏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뽐낼 수 있도록 하세요. 장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모집 요강

모집 기간 2019년 3월 31일까지
모집 부문 취재, 영상
모집 인원 00명(영상 분야 포함)
응모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접수처 www.ktapr@naver.com
문의처 KTA 전락사업부(02-420-4271)
활동 기간 2020년 2월까지

2019년도 KTA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겨루기. 2019년 2월 11~12일. 창녕 군민체육관)

▲ 남자부 △ -54kg급 = ① 배준서(강화군청) ② 이민영(인천체고) ③ 석하빈(충남체고) △ -58kg급 = ① 장준(홍성고) ② 김태훈(수원시청) ③ 박종현(성남시청) △ -63kg급 = ① 김민혁(강화군청) ② 서재하(용인대) ③ 김태용(경희대) △ -68kg급 = ①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 ② 박지민(용인대) ③ 김경덕(계명대) △ -74kg급 = ① 김지석(한국체대) ② 김영석(강화군청) ③ 원종훈(한국가스공사) △ -80kg급 = ① 박우혁(강원체고) ② 남궁환(한국체대) ③ 이화준(성남시청) △ -87kg급 = ① 이선기(전주시청) ② 변길영(동아대) ③ 전재경(전천군청) △ +87kg급 = ① 인교돈(한국가스공사) ② 박윤근(한국가스공사) ③ 배윤민(한국체대)

▲ 여자부 △ -46kg급 = ① 심재영(고양시청) ② 최수영(경희대) ③ 강보라(성주여고) △ -49kg급 = ① 박혜진(조선대) ② 조혜진(영천시청) ③ 김소희(한국가스공사) △ -53kg급 = ① 임금별(한국체대) ② 김민정(한국가스공사) ③ 안유란(경희대) △ -57kg급 = ① 이아름(고양시청) ② 김유진(서울체고) ③ 임소라(수성구청) △ -62kg급 = ① 김다영(인천광역시 동구청) ② 김소희(삼성 에스원) ③ 서지은(한국가스공사) △ -67kg급 = ① 김잔디(삼성 에스원) ② 조희경(계명대) ③ 한현정(용인대) △ -73kg급 = ① 이다빈(서울시청) ② 명미나(경희대) ③ 오혜리(춘천시청) △ +73kg급 = ① 안새봄(춘천시청) ② 윤도희(한국체대) ③ 김빛나(인천광역시 동구청)

제14회 제주 평화기 대회

(겨루기. 2019년 2월 15~21일. 제주 한라체육관)

▲ 남고부 △ 핀급 = ① 김진호(청주공업고) ② 박용빈(강원사대부고) ③ 정지원(전남체고), 박상욱(부산체고) △ 플라이급 = ① 윤정호(전북체고) ② 박강희(홍성고) ③ 하선우(청주공업고), 성준영(강원사대부고) △ 밴텀급 = ① 김신윤(경상공업고)

② 김강민(충남체고) ③ 안지원(남녕고), 이기영(한성고) △ 페더급 = ① 김동현(아름고) ② 김남훈(강원체고) ③ 김민제(금정고), 조원희(풍생고) △ 라이트급 = ① 장은석(광양고) ② 이상렬(울산스포츠과학고) ③ 임정준(강원체고), 최승권(강원체고) △ 웰터급 = ① 이시원(경상공업고) ② 윤태연(풍생고) ③ 이호성(성안고), 황주영(울산스포츠과학고) △ L-미들급 = ① 황정욱(울산스포츠과학고) ② 김정제(포항영신고) ③ 박재영(대전체고), 강상현(남녕고) △ 미들급 = ① 박한울(한성고) ② 박치우(충남체고) ③ 송훈(인천체고), 송현근(천안제일고) △ L-헤비급 = ① 조진서(포항영신고) ② 차영주(한성고) ③ 김민준(다사고), 문병성(삼례공업고) △ 헤비급 = ① 최민수(마산구암고) ② 이영진(강북고) ③ 신민철(청주공업고), 유정원(공주영명고)

▲ 여고부 △ 핀급 = ① 천소희(전남체고) ② 정지윤(광주체고) ③ 박연진(효정고), 신수민(홍주고) △ 플라이급 = ① 이예지(포항해공공업고) ② 박수빈(설악고) ③ 김나연(공주영명고), 노은선(소사고) △ 밴텀급 = ① 박정민(마산구암고) ② 윤수현(홍주고) ③ 채민희(양주고), 노가은(경남체고) △ 페더급 = ① 이예린(울산스포츠과학고) ② 박승아(전북체고) ③ 김수민(광주체고), 이해정(부천정보산업고) △ 라이트급 = ① 박주아(영광고) ② 최유리(부천정보산업고) ③ 남도경(창원용호고), 김혜원(대전체고) △ 웰터급 = ① 남민서(울산스포츠과학고) ② 이여령(인천체고) ③ 서혜녕(성안고), 박은서(고양고) △ L-미들급 = ① 박인희(강원체고) ② 김수현(서울체고) ③ 신예슬(창동고), 윤소영(시온고) △ 미들급 = ① 김난경(효정고) ② 박동주(대전체고) ③ 조은진(백석고), 강다현(포항해공공업고) △ L-헤비급 = ① 송다빈(효정고) ② 박은지(성안고) ③ 장서인(울산스포츠과학고), 황희정(전북체고) △ 헤비급 = ① 정수진(전북체고) ② 정경민(문학정보고) ③ 윤재은(선덕여고), 유민영(강원체고)

▲ 남중부 △ 핀급 = ① 이배현(신원중) ② 조용준(울산스포츠과학중) ③ 김유민(천안북중), 양희찬(서원중) △ 플라이급 = ① 박태준(사당중) ② 나강우(풍생중) ③ 이우빈(동원중), 윤준혁(전북체중) △ 밴텀급 = ① 서현우(풍생중) ② 조환주(신관중)

③ 신주환(전남체중), 심민섭(광남중) △ 페더급 = ① 최지성(전북체중) ② 최범하(천안성정중) ③ 안영우(안산성호중), 신민균(태백중) △ 라이트급 = ① 박세현(사당중) ② 정세환(울산스포츠과학중) ③ 이종욱(대성중), 김다선(전북체중) △ L-웰터급 = ① 김태욱(춘성중) ② 신재원(진주중) ③ 변정우(청주중), 장경진(동해광희중) △ 웰터급 = ① 민지환(울산중) ② 김태민(오정중) ③ 김의찬(전남체중), 신태영(청주중) △ L-미들급 = ① 이준서(신관중) ② 김민성(백석중) ③ 김민성(한성중), 문한결(전남체중) △ 미들급 = ① 정재훈(홍해중) ② 박상원(오정중) ③ 박재준(월성중), 구준범(전남체중) △ L-헤비급 = ① 김건우(부산부흥중) ② 이인혁(칠곡중) ③ 박철현(동원중), 김준서(영천중) △ 헤비급 = ① 현지민(오현중) ② 전현민(홍해중) ③ 조성빈(송탄중), 황수범(포항영신중)

▲ 여중부 △ 핀급 = ① 박수아(해제중) ② 윤보영(광남중) ③ 정혜인(광혜원중), 최우영(상무중) △ 플라이급 = ① 오서린(칠곡중) ② 김민경(장림여중) ③ 송현지(북평여중), 유현지(부천동여중) △ 밴텀급 = ① 이한나(오정중) ② 장은영(새본리중) ③ 윤도영(안산성호중), 최은비(송탄중) △ 페더급 = ① 인수완(정각중) ② 표하원(천안성정중) ③ 진서연(광남중), 구해원(부천동여중) △ 라이트급 = ① 김가현(광주체중) ② 박세연(안화중) ③ 이경빈(부천동여중), 권시윤(평원중) △ L-웰터급 = ① 염은빈(정각중) ② 손태연(서원중) ③ 김희선(북평여중), 김승연(새본리중) △ 웰터급 = ① 손효리(북평여중) ② 이예지(부일중) ③ 이다인(서울대사대부여중), 홍효림(동명중) △ L-미들급 = ① 이가현(시흥중) ② 이유진(풍각중) ③ 이윤서(사당중), 안수연(봉의중) △ 미들급 = ① 장현지(관동중) ② 이수연(사당중) ③ 문혜은(석포여중), 문희원(오정중) △ L-헤비급 = ① 김윤영(신관중) ② 이다빈(화원중) ③ 노유빈(동화중), 강민정(곤양중) △ 헤비급 = ① 박주원(울산스포츠과학중) ② 윤다현(서귀중앙여중) ③ 이지현(봉의중), 박주현(성안중)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최종 선발 대회**
(겨루기. 2019년 2월 24~28일. 창녕 군민체육관)

▲ 남자부 △ 편집 = ① 박태준(사당중) ② 류진(오정중) ③ 박선규(목포유달중), 유승민(성문중) △ 플라이급 = ① 최현식(충북체고) ② 박용빈(강원대사대부고) ③ 김태혁(성곡중), 정인호(풍생고) △ 밴텀급 = ① 임성빈(한성고) ② 이장희(풍생중) ③ 김민혁(남주교), 송민수(서울체고) △ 페더급 = ① 이찬영(사당중) ② 이인규(영천고) ③ 서정민(한성고), 안혜성(서울체고) △ 라이트급 = ① 유희서(전북체중) ② 최하영(다사고) ③ 이경전(대전체고), 김정환(관동중) △ 웰터급 = ① 진호준(안중고) ② 연제호(충북체고) ③ 신성민(송곡고), 김지원(금산중) △ L-미들급 = ① 최승권(강원체고) ② 이상렬(울산스포츠과학고) ③ 권도윤(홍성고), 우정수(충남체고) △ 미들급 = ① 이시원(경상공업고) ② 최보성(풍생고) ③ 서건우(동평중), 정지우(산곡남고) △ L-헤비급 = ① 황정욱(울산스포츠과학고) ② 강혁준(남녕고) ③ 김민규(운천고), 최훈식(경상공업고) △ 헤비급 = ① 손태환(전주양지중) ② 박찬희(전남체중) ③ 진건우(광양중동중), 김상현(운천고)

▲ 여자부 △ 편집 = ① 오서린(칠곡중) ② 유성희(동평중) ③ 박연진(효정고), 황영은(광남중) △ 플라이급 = ① 강미르(성주여중) ② 김예림(사당중) ③ 위은서(목포유달중), 하민서(울산스포츠과학중) △ 밴텀급 = ① 이은지(상무중) ② 노은선(소사고) ③ 경채원(안화중), 송윤서(대전체중) △ 페더급 = ① 유은진(시운고) ② 민정민(해중) ③ 박가경(곤양중), 박소현(광주체고) △ 라이트급 = ① 김솔라(대구보건고) ② 임소현(부일중) ③ 윤수현(홍주교), 공서영(동평중) △ 웰터급 = ① 이예린(울산스포츠과학고) ② 강민서(경북체중) ③ 장한나(포항해공공업고), 안영현(수원정보과학고) △ L-미들급 = ① 남민서(울산스포츠과학고) ② 박주아(영광고) ③ 임예은(풍각중), 남유리(부일중) △ 미들급 = ① 서탄야(대전체고) ② 조보민(동평중) ③ 이윤서(사당중), 이혜솔(평원중) △ L-헤비급 = ① 진가연(성안고) ② 김난경(효정고) ③ 이주영(새본리

중), 박세희(성곡중) △ 헤비급 = ① 백선경(서울체고) ② 박주원(울산스포츠과학중) ③ 신지영(경남체고), 박정현(부산부흥중)

**제5회 아시아 청소년 품새 선수권
최종 선발 대회**
(품새. 2019년 2월 23일. 창녕 군민체육관)

▲ 중고부 △ 남자 개인전 = ① 박진웅(의정부광동고) ② 추종우(송도중) ③ 윤제욱(동양중), 남경수(사직중) △ 여자 개인전 = ① 유민영(동인천여중) ② 박채원(부천여중) ③ 김유하(효자고), 이서진(문경여중)

▲ 남자 단체전 = ① 이정원·한주승·이승현(하늬바람태권도장) ② 이현민·이현우·백도준(국가대표청지태권도장) ③ 강경모·권병채·최재영(마루한태권도), 김상우·염규현·박기준(국가대표효자호년태권도장)

▲ 여자 단체전 = ① 김은혜·이채은·문지선(백호태권도) ② 김예지·김서영·이예진(서울아이티고) ③ 조효은·김유나·김다인(남구미태권도장), 권민서·최영은·김다은(마루한태권도)

▲ 복식전 △ 중등부 = ① 이다혜·신우섭(21C한국태권도전문도장) ② 신영환·손민선(청지회태권도장) ③ 박희정·박준영(국가대표세계태권도장), 송원섭·정당느(코리아태권도체육관)

제15회 한국중고등학교연맹 회장배 전국 품새 대회
(2019년 2월 22일. 창녕 군민체육관)

▲ 남자 개인전 △ 남중 1학년부 = ① 문현민(성덕중) ② 박상준(송도중) ③ 김상화(김해서중), 최세현(양청중) △ 남중 2학년부 = ① 이창현(송도중) ② 남경수(사직중) ③ 김준호(동양중), 김승훈(기안중) △ 남중 3학년부 = ① 신우섭(신길중) ② 윤제욱(동양중) ③ 이현우(천안백석중), 이현민(천안백석중) △ 남고 1학년부 = ① 이충원(서울체중고) ② 이준석(상암고) ③ 박진웅(의정부광동고), 현태용(진관고) △ 남고 2

학년부 = ① 이근영(부산디지털고) ② 김경규(호매실고) ③ 홍승표(웅상고), 이화민(창원신월고)

▲ 여자 개인전 △ 여중 1학년부 = ① 오윤아(당산중) ② 박채원(철산중) ③ 권태정(오산원일중), 정지영(신길중) △ 여중 2학년부 = ① 박채원(부천여중) ② 김주하(천마중) ③ 석예진(능동중), 유선화(대성여중) △ 여중 3학년부 = ① 유민영(동인천여중) ② 이채은(신현여중) ③ 김진양(무등중), 서지민(동진여중) △ 여고 1학년부 = ① 권민서(김해생명과학고) ② 김유하(효자고) ③ 박다희(인천디자인고), 이현주(상일고) △ 여고 2학년부 = ① 한다현(안화고) ② 전연서(경원고) ③ 김지우(경기영성과학고), 최윤서(서울아이티고)

▲ 복식전 △ 중학부 = ① 유민영·박성근(비상태권도장) ② 이다혜·신우섭(21C한국태권도전문도장) ③ 박채원·이동은(다운태권도), 김나영·김민성(아라한태권도장) △ 고교부 = ① 손민선·신영환(청지회태권도장) ② 박준영·박희정(국가대표세계태권도장) ③ 엄주혁·엄주희(비상태권도장), 전시원·임태훈(한마루태권도장)

▲ 남자 단체전 △ 중학부 = ① 이창현·추종우·박상준(아카데미국가대표태권도장) ② 최재영·강경모·권병채(마루한태권도) ③ 박기준·황희민·김상우(국가대표청지태권도장), 이현민·김도윤·이현우(국가대표청지태권도장) △ 고교부 = ① 이한열·전현식·이건규(청시의지태권도장) ② 김학준·심진우·허성준(현대호키타권도장) ③ 이건우·박상희·최수민(정무태권도), 배산·안준모·김태훈(우리태권도장) △ 남중부 지도상 = 김외경(아카데미국가대표태권도장) △ 남고부 지도상 = 손유남(청시의지태권도장)

▲ 여자 단체전 △ 중학부 = ① 강나연·석예진·최영은(마루한태권도) ② 윤다영·박지현·한주희(온새미로태권도장) ③ 이소담·한지수·권현아(타이탄새천년태권도), 정지영·송시은·김민태(21C한국태권도전문도장) △ 고교부 = ① 김예지·이예진·김서영(서울아이티고) ② 구예슬·송은서·이채원(아름찬코리아태권도장) ③ 김다민·박정화·나정인(경희대송라체육관), 김호정·정설화·이민영(늘해랑태권도) △ 여중부 지도상 = 안성대(마루한태권도) △ 여고부 지도상 = 임형식(서울아이티고)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1	4.2				

- 2019년도 KTA 품새 최강전 : 올림픽공원 K-아트홀 | 3.9(토)
- 2019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고교부·일반부) : 경북 영천체육관 | 3.14.(목)~21.(목)
- 2019년도 제1차 생활체육 심판 강습회 : 백석대학교 | 3.16(토)
- 제46회 전국 대학 개인 선수권 대회 : 전남 영광스포티움 | 3.26.(화)~4.2(화)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1	5.2	5.3	5.4

- | | |
|--|--|
| | 재미있는 태권도 겨루기 시연회 : 충북 제천 실내체육관 4.1.(월) |
| | 2019년도 전국 중별 선수권 대회(중학부 겨루기·품새) : 충북 제천 실내체육관 4.2.(화)~10.(수) |
| | 제29회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대회(겨루기·품새) : 해남 우של체육관 4.11.(목)~17.(수) |
| | 제10회 상지대학교 총장기 전국 품새 대회 : 강원 영월 4.12.(금)~14.(일) |
| | 제17회 국무총리배 전국 생활체육 대회 : 미정 4.13.(토) ~ 14(일)/예정 |
| | 제13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대회 : 강원 철원 실내체육관 4.19.(금)~21.(일) |
| | 제46회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대회(겨루기) : 강원 4.25.(목)~5.4.(토) |
| | 2019년도 전국 생활체육 대추전 : 충주 실내체육관 4.27.(토) |

스도쿠(SUDOKU)

초급

9			1					8
2			4			5		
5	6			3	8	4		9
6				2			7	
4		8		6	3	1		5
	9		7					6
1		9	6	7			8	4
		3			1			2
8					9			1

중급

		7		2			8	
				8			5	
1			5					4
		5	8		7			6
		1	6			2		
4					9	1		
3					6			2
	6			9				
	1			5		3		

스도쿠 푸는 법

- 가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세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작은 상자(3 x 3 =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애독자 선물

『태권도』 스도쿠(SUDOKU) 퍼즐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도복(아래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맞는 도복과 배송 시 확인을 위해 입을 분의 키(cm)와 상의 크기(100-105 등) 및 전화번호를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02-420-4271~3으로 연락해 당첨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번 호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후 상품이 발송됩니다.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 상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드리는 상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편집팀 앞.

제 172 호 초급 정답

4	6	1	5	7	3	2	8	9
7	5	2	9	6	8	4	1	3
8	9	3	1	4	2	6	7	5
6	2	8	3	5	1	9	4	7
9	3	5	7	2	4	1	6	8
1	7	4	8	9	6	3	5	2
3	8	7	6	1	9	5	2	4
2	1	9	4	8	5	7	3	6
5	4	6	2	3	7	8	9	1

제 172 호 중급 정답

3	6	7	2	9	4	1	5	8
5	1	8	6	7	3	4	2	9
2	9	4	5	1	8	3	6	7
6	8	9	7	3	1	2	4	5
7	3	2	4	5	6	9	8	1
1	4	5	9	8	2	7	3	6
8	7	6	3	4	9	5	1	2
4	5	1	8	2	7	6	9	3
9	2	3	1	6	5	8	7	4

제172호 정답 및 정답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04 장미아파트
8동 202호 이경진(170cm, 110호, 010-8666-47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38 지하 1층 비트리
전보연(162cm, 90호, 010-9600-8318)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42-8 조은빌딩 나동 401호
맹혜림(174cm, 100호, 010-2875-1295)





ADIDAS TAEKWONDO



